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경험에 나타난
다문화상담의 의미 탐색

Exploring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Counseling in the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2023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채 경 란

교육학박사학위논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경험에 나타난
다문화상담의 의미 탐색

Exploring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Counseling in the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2023년 2월

지도교수 김 영 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채 경 란

이 논문을 채경란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3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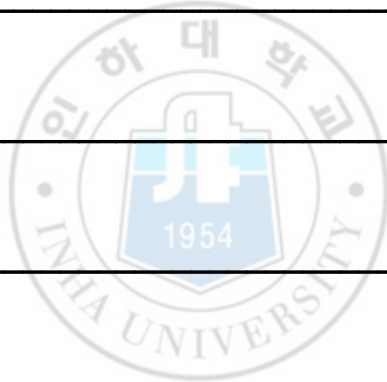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국 문 초 록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경험에 나타난 다문화상담의 의미 탐색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채 경 란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내러티브를 통하여 그들의 문화적응 과정에 나타난 다문화상담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이라는 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다문화상담이 이들의 적응과정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내러티브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부간의 문화차이와 시대과의 갈등,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콜센터, OO시 아동복지관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다문화상담과 다문화학부모상담을 경험했던 결혼이주여성 7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들의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경험과 다문화상담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인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생애에서 문화적응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다문화상담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다. 이 두 가지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내용은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적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둘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양상에 주목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배 담론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상담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국적은 베트남 4명, 일본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중국 1명이며, 연구참여자별 면담 횟수는 3회~5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의 경험과 다문화상담의 의미를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1회기 당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연구의 질을 높이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메리엄(Merriam, 1998)의 일정비교분석과 삼각검증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의 양상과 이에 따른 다문화상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IV장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경험은 주체적, 타협적, 수동적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주체적인 문화적응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종교와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 한 푼 없이 시집왔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마마보이 남편과 이혼하고 딸 셋을 데리고 이집트 총각과 재혼하여 종교와 사랑으로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가난한 맞벌이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지 집에 살면서 말 못할 고통을 겪었지만 불법체류자신분의 중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중국인이 아닌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차별과 편견에 맞서 힘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었다. 자신이 겪었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들은 내가 키우겠다는 각오로 용기를 불태우며 불행을 딛고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주체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 둘째, ‘타협적인 문화적응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종교적 실천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국가 간의 역사적 거리감을 지혜로 극복하고 시댁과의 관계를 좁혀가며 불같은 성격의 남편을 침묵으로 인내하는 속에 현실의 격한 감정을 종교 활동으로 승화시켜가고 있었다. 바쁜 어머니의 삶을 닮고 싶어 하지 않았던 참여자는 친정어머니의 삶에서 지혜를 얻고 고단한 삶은 힘들지만 다둥이 가정을 꿈꾸며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셋째, ‘수동적인 문화적응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환경에 매몰되어 존재감을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21살이라는 어린나이에 26살이나 더 많은 한국인남성과 결혼하고 원하지 않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자신이 한국에 온 목적과 전혀 다른 삶에 우울증과 무기력감으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무능력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자학하며 시댁이라는 다수자와 강자 앞에서 한없이 추락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이 독점하는 경제권은 외국인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의 차별의식이며, 가족들의 의사결정권에서 배제된 자신의 처지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한국가족들의 특권에 수동적 자세로 순응하고 있었다.

V 장 다문화상담의 의미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 있어서 다문화상담은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로서의 문화적응문제와 한국어습득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아 및 자녀교육문제, 사회적 연계와 지지망의 결핍 등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이해해주는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상담은 편견과 차별 없이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하고, 이중문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상호문화존중의 관용적인 태도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도출되었다. 무엇보다 다문화상담이 종결된 이후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추수 상담이 이어져야 하고, 다문화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연구결과로 이어졌다.⁵⁴

국제결혼은 자신의 성장과정의 배경이 되는 문화와 상대 배우자의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 되고, 짧은 기간 동안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진심의 대화가 가능한 부부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부족을 이유로 가족의사결정권에서 제외시키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부부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가족구성원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함으로써 상호문화소통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우리사회 구성원

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 정서적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상담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상담의 필요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담현장에서 소신껏 다문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사와 한국의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질적연구의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의미를 포괄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숙고와 상담자들의 실질적 개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다문화상담, 상호문화교육, 내러티브탐구



목 차

국문 초록	i
목 차	v
표 목차	viii
그림 목차	ix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11
3. 연구 동향	13
4. 연구 동기	21
II. 이론적 논의	25
1. 결혼이주여성과 문화적응	25
1.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과 현황	25
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32
1.3.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35
2. 결혼이주여성 and 다문화상담	39
2.1. 상담과 다문화상담 개념	39
2.2.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및 이용현황	44
2.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한 다문화상담	49
3.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성	53
3.1. 주체성과 타자성	53
3.2. 상호문화적 실천	55

Ⅲ. 연구 방법	58
1. 내러티브 탐구 과정	58
2. 연구참여자	62
2.1. 연구참여자 선정과정	62
2.2. 연구참여자 특성	62
3. 자료수집 및 분석	72
3.1. 자료수집	72
3.2. 자료분석	76
4. 윤리적 고려	80
Ⅳ.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83
1. 주체적인 문화적응	83
1.1. 종교와 사랑으로 다시 만든 삶	83
1.2. 불행을 딛고 일어난 희망의 불씨	90
2. 타협적인 문화적응	99
2.1. 종교적 실천으로 현실과 타협하는 삶	99
2.2. 엄마의 삶에서 지혜를 얻고 사는 한국생활	104
3. 수동적인 문화적응	110
3.1. 환경에 매몰되어 존재감을 잃고 사는 무력한 삶	110
3.2. 다수자와 강자 앞에 추락한 가정부 같은 인생	114
3.3. 가족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외국인 엄마	121
4. 소결	127
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나타난 다문화상담의 의미	130
1. 다문화상담의 경험 양상	130
1.1. 문화적응에 대한 고단함 해소	130
1.2. 이중문화 정체성의 본질 탐색	133
1.3. 상호문화존중의 관용적 태도 함양	136

2. 다문화상담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139
2.1. ‘동화’ 보다 ‘문화다양성’ 을 존중하는 상호문화성	139
2.2. 다문화사회 속에서 ‘정체성’ 을 찾아가는 상호문화성	148
2.3. 타자와의 연대 속에 ‘세계시민성’ 을 함양하는 상호문화성	154
3. 소결	160
VI. 결론	163
1. 요약	163
2. 논의 및 제언	165
참고문헌	170
ABSTRACT	198
부록	202



표 목차

〈표 I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 핵심 내용 ..	13
〈표 I -2〉 시기별 문화적응 관련 관심 주제	15
〈표 I -3〉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상담에 관한 선행연구 핵심 내용	17
〈표 I -4〉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상담 사례 내용	18
〈표 II -1〉 연도별 국제결혼 현황(2000~2021)	29
〈표 II -2〉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혼인건수	30
〈표 II -3〉 결혼이주민 성별현황	31
〈표 II -4〉 베리의 문화적응 전략 2차원 모델	33
〈표 II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도별 이용현황	46
〈표 II -6〉 상담유형별 이용현황	46
〈표 II -7〉 피터슨의 다양성 의미	50
〈표 III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63
〈표 III -2〉 내러티브 탐구 회기별 목표 및 활동내용	73
〈표 III -3〉 반 구조화된 질문지	74
〈표 IV -1〉 주체적인 문화적응 경험	83
〈표 IV -2〉 타협적인 문화적응 경험	99
〈표 IV -3〉 수동적인 문화적응 경험	110

그림 목차

[그림 II-1]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2011~2021)	30
[그림 II-2] 문화적응과정 다섯 단계	33
[그림 III-1] 내러티브 탐구 모형	5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초국적 이주¹⁾와 함께 다문화사회에 정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경험에 주목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과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배 담론에 대한 저항과 협상의 과정으로 구축되고 있는 다문화상담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외연은 지구촌 시대에서 다문화사회에 정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등장으로 단일민족국가라는 경계선이 붕괴된 자리에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상담이 그들에게 어떻게 주체화되어 가는지를 내러티브 탐구라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삶의 내러티브는 국가라는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통치방식과 정치적 학문이 실현되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다문화사회란 하나의 국가 혹은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로 이루어진 사회를 의미한다(김영순, 2014). 세계화와 경제발전에 힘입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한국사회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감정의 적응까지 요구하고 있다(Searle & Ward, 1990; Ward, Kennedy, 1999).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상의 변화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재평가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Bankston, Zhou, 2002; Flaskerud, & Uman, 1996).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결혼이민자 체류현황은 170,307명이고, 그중 혼인귀화자 151,313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1)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는 이주자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옮겨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문화적 패턴과 신 사고, 새로운 행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Kim, 2010). 나아가 초국적 이주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영토중심의 민족국가의 한계를 뛰어 넘어 국민국가에 대한 도전에서 출발한다. 즉 “동일한 국적, 단일민족 정체성, 배타적 시민권, 영토 내 포괄적 통치권”에 저항하고, 이를 전환시킴으로써 전통적 국가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틀을 벗어나는 ‘탈 전통적’ 현상이다(Kim, 2010, 114).

나타났다. 이는 현황조사가 처음 시행되었던 2001년 25,182명보다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법무부 통계월보 2022). 이렇듯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 배경의 결혼 이주여성들의 유입으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었고, 1988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농촌 총각 연변 처녀 짝짓기 운동’ (홍기혜, 2000)을 시작으로 행정주도형 국제결혼은 초국적 결혼시장의 확대(김현미 외, 2007)와 국가의 다문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이민송출 국에서 이민 유입국의 지위로 변화시켜왔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동은 저출생과 저임금 노동력의 대체인력으로 소환된 이주민의 수적 증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을 통한 특수목적의 이주가 촉발하는 사회적, 문화적 변동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주류사회 중심의 일방향적이고 일시적인 동화 형태의 사회통합이 아닌, 결혼이주여성을 정주민과 동일한 위치에서 공존과 상호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다문화사회²⁾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양방향적 사회통합정책³⁾이 필요한 시점으로 담론이 형성되었다(김영순, 2019).

다문화주의는 문화가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이 한 집단에 공존하며 사회문제와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말한다. 다문화정책을 처음 도입한 캐나다와 호주는 문화가 다른 여러 집단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뤄가는 ‘모자이크’ 이론을 주장하며, 고유한 문화적 풍습을 버려야 하는 ‘동화주의’ 보다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 가치가 우월함을 강조하였다(John Murraay Gibbon, 1938).

캐나다 이민자의 문화적응과 복지를 연구한 존 베리(Berry, 2016)는 이민자들이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보다 두 가지 문화에 모두 참여할 때 행복한 생활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존 베리는 10년 동안 7개 국가의

2) 다문화사회란 인구학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 한 나라의 인구에서 체류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이상인 경우 다문화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인 약 2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6%에 해당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다문화사회는 아니지만, 2007년 100만 명이던 국내체류외국인 숫자가 1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증가추세를 볼 때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YTN, 2022.5.12.일자).

3) 사회통합정책은 ‘국민과 외국인의 통합’을 위한 정책으로서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구촌 시대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은 초국적 가족구성원들은 둘 이상의 국가에 흩어져 살면서 문화의 변역을 동반하기 때문에 출신국에서 유입국으로 이주하여, 이민자로 살아가는 일방향적 이주의 이야기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유입국 내에서의 이주민의 적응과 통합에 대한 관심은 한 나라의 경계 안에 갇히기보다, 출신국과 유입국사이의 초국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초국적 실천이 조명을 받게 되면서(Smith and Guarnizo, 1998; 김정선, 2010; 김영순, 2019)사회통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던 ‘John Berry Report’ 를 통해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언어를 잘 유지할수록 차별과 사회적 이슈에 잘 대처하는 반면, 자신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국가에 ‘동화’ 될수록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다민족국가로 출범한 캐나다, 미국, 호주와 다르게 기술의 발달과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증가해 다문화사회가 된 독일의 경우와 분명히 다르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조화롭게 융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부족하기에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은 ‘다문화주의 정책’ 이라기보다는 ‘다문화 지향’ 정책에 가까우며, 동화주의적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김영순, 2019).

한국의 다문화사회 특징을 제시한 김정열(2014)은 다문화사회의 주류가 혈연으로 형성되어 있고 같은 민족을 비롯하여 타민족 출신의 경우 대부분 아시아계이다. 동북부 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혈연을 강조하며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발달시켜왔다. 이와 같이 한국인은 혈연에 기초한 끈끈한 정(情)을 바탕으로 하나 되는 ‘우리’ 를 지향하며, 인간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상호의존적인 가치관을 발전시켜가고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

미국의 경우 가족단위 이민이 가능하고, 이민 후 집단거주지를 형성함으로써 ‘Salad Bowl’⁴⁾과 같이 공동체 형성과 주류사회와의 공존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이민의 단위가 가족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다수집단(한국인)과 격리되어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임형백, 2009).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능한 빠르게 가족구성원으로서 동화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로 인해 개인적 정서와 사회적 소외감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고립감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함께 지적되고 있다(이병석, 나인숙, 2012). 급변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인간과 인간이 친밀도를 높이며 지리적

4) 샐러드 볼(Salad bowl)은 미국사회의 다양한 문화가 샐러드처럼 어우러진 모습을 말하는 개념이다. 각각의 문화가 하나로 녹아들었다는 의미인 ‘멜팅팟(용광로·Melting pot)’과 달리 ‘샐러드볼’은 조화롭게 어우러지되 각각의 고유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샐러드볼’을 캐나다에서는 ‘모자이크’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경향신문, 2011. 2월.15일자).

으로 응축되어 있는 ‘지구촌’은 극단적인 관점 사이에서 ‘중도’를 찾아야 한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는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지리와 역사를 중시했던 듀이는 종교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점과 ‘모든 것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보는 상대주의 사이에서 ‘중도’를 탐구하였다(매일경제신문사, 2021). 이와 같이 세계를 깊이 이해하여 자신에게 어떤 선택이 요구되는지를 잘 알아야 ‘중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저개발국가의 여성과 나이 많은 남성의 물리적 교류의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결혼이주민은 초국적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고 두 개 이상 국가의 경계에 걸쳐 삶을 영위해 나간다(김영순 외, 2016).

이주,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사회적응, 문화적응, 한국어 습득뿐 아니라 아내, 엄마, 며느리 등 다중 역할을 동시에 학습하고 수행하게 된다(김혜미, 2021). 이로 인해 가족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중이 높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o et al., 2017).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인구학적 관심과 그들의 모성에 대한 특혜가 체류권을 보장하고 사회권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주정책의 가부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대한 측면을 부각시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⁵⁾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형태를 구축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통합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규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의 가족주의와 저개발국가에서 유입되는 여성들이라는 편견이 확대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차별받는 타자적(他者的)인 집단으로 전락 되었고 그들의 가정생활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

5)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 9.22. 시행되었고 [법률 제8937호, 2008. 3.21.]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하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www.lawkorea.com).

하고 있다(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단일민족 중심의 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다문화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초기이주 과정에서 이중문화 적응에 대한 부담과 개인·사회·문화적 특성의 복합적인 이유로 가족 내 갈등과 가족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관련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여 인권침해, 의사소통, 자녀양육, 경제적인 문제와 체류문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행위와 당위성에 주목하여 그들을 동화의 대상으로 구분 짓는 한국 주류사회의 시선을 비판하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초국적 공동체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다문화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연구가 붓물을 이루었다(윤형숙, 2005; 김정선, 2010).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한국사회의 경계선 안으로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속에 다문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의 이질적인 문화와 사회, 경제 등의 모든 영역에서 고루 적응해야 한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호간의 문화적 경계를 좁히고 바뀌가는 과정을 적응이라고 하는데(Alba & Nee, 2009),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 기관 및 조직과의 관계에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든(Gordon, 1964)은 이주자가 경험하는 적응 영역을 문화적응(Acculturation)과 구조적 적응(Structural Assimilation)영역으로 구분하고, 동화모형(Assimilation Model)을 제시하였는데, 동화의 핵심은 결혼이주여성이 주류사회와 경제적 구조에 진입하는 구조적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적 적응 경험, 즉 동화의 본질은 한국사회가 제시하는 삶의 틀 속에서 문화적응과 구조적인 적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별개인 듯 보이는 두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할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문화의 표면적인 테두리에서 시작하여 문화의 중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 신념과 같은 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Gordon, 1964; Hofstede et al., 2010).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문화의 이해 부족, 체류나 국적의 문제⁶⁾, 언어로 인한 소통의 문제, 양육 문제, 취업 문제 등 다양한 고충을 경험하고 있으며(Kim, Yoo, 2019),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종종 좌절하기도 하고 상당한 긴장과 불안, 우울을 지니기도 한다(장혜경, 2009; 정미경, 2012). 2000년대 초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41%로 가장 많았고, 남편을 사랑해서가 37%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73%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5). 한편, 한국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는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고, 35.5%는 한국여성보다 배우자로 더 좋다고 생각해서, 9.7%는 현재 부인을 사랑해서라는 응답 순이며, 한국남성과 결혼이주여성 간의 결혼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41%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서로 간의 기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홍달아기, 채옥희, 2007).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국내거주 기간이 15년 이상인 비율은 39.9%로 2018년(27.6%) 대비 12.3%p 증가하였고, 결혼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성격차이 56.6%, 양육문제 26.7%, 경제문제 24.7%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문화적 차이를 느낀다는 대답은 52.4%로 2018년 조사결과 대비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차이 경험 중 식습관(52.7%), 의사소통방식(43.4%), 자녀 양육방식(29.0%)은 오히려 조금씩 올랐고, 가족의례(24.1%), 가사분담(14.2%)순으로 여전히 문화차이를 느낀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아동복지관 심리상담센터 등으로

6) 법무부는 2011년 5월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결혼이민(F-6)체류자격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체류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체류자격 이름 또한 ‘국민의 배우자’에서 ‘결혼이민’으로 개명되었다. 이로써 거주(F-2)비자의 경우에는 1)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을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 3)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4)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었고, 결혼이민(F-6) 비자에는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법무부, 2011).

부부간의 문화차이와 시대과의 갈등, 자녀양육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상담을 의뢰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주 호소 문제를 살펴보면 생활상담이 40%, 가족갈등과 이혼문제 31%, 체류, 취업상담 1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9).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문화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가정, 자녀, 경제, 언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타문화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고 결혼생활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⁷⁾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돌봄 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이혜자, 2016; 조원휘, 2019). 다문화와 인종차별에 대한 연구(김이선 외; 양승민, 연문희, 2009), 우울이나 무기력 등 정신건강 문제(김연수, 2007; 임혁, 2010) 등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쉼터지원을 통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예한 외, 2009; 변화순 외, 2008).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양육방식과 문화적 차이, 언어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는 부모 자녀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가족 기능을 저하시키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한다(김도희 외, 2007; 곽금주, 서홍란 외, 2008).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 및 학업 문제, 학교 부적응과 또래 관계의 어려움(오성배, 2005; 남윤주, 이숙, 2009),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설동훈 외, 2005; 유재신, 2008; 김효선, 2020)과 같은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심리적·정서적 고통은 심각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따른 우울이나 소외감, 불안이나 무기력 등은 그들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Berry, 1997; 김연수, 2007; 김도희, 이경은, 2010 등), 심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교육적으로 부적응과 소외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이영주,

7)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출발점은 2006년 4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와 여성가족부등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마련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개소가 시·군·구에 처음으로 설치되었고, '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설립된 것이 시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12개 팀 단위 규모로 설립되었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전국2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정복동, 2016). 2006년 11월부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에서 이주여성 상담원이 자국의 언어로 가정폭력을 비롯한 각종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가족 내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이며, 이 밖에 성폭력, 이혼 및 자녀양육, 체류와 관련된 법적 상담이 주를 이룬다(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010).

2007; 김인아, 2016). 특히 낮은 환경에서의 부적응에 따른 장기적 스트레스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자신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며 심리적인 무력감으로 인해 대처능력이 감소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다문화가족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맞춰왔던 초점을 정서적·심리적 자원을 발견하여 그들의 강점을 강화하고 도와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양승민, 연문희, 2009; 김나영, 2014; 김미형, 2018; 이진경, 2021). 이와 같은 논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치료적으로 개입할 경우 긍정적인 정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외부환경으로부터 유발된 정서적 자극에 대처하고 조절하는 능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안신호 공역, 2009).

결혼이주여성들은 일반가정의 어머니들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정서적 지지망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에 의한 정신적 우울증이 심각하고 낮은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족 간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지은진 외, 2012). 이와 같은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적, 사회적 자원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강화시키며 가족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지지가 정신건강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홍미기, 2009; 이순자, 2014).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문화적응과 결혼생활 실태조사, 부부갈등이나 결혼만족, 자녀양육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사회 초기 실태 파악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있지만,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과 그들 스스로 내적인 자원을 강화하고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다문화상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상담이 일반상담과 달라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에게 서구적 사고나 생활습관을 동일하게 적용시킨 획

일적 상담기법과 전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Atkinson, Morten, Sue, 1993; Arrendondo, Tovar-Blank, Parham, 2008). 경제적인 빈곤이나 심리, 정서적으로 갈등 상황에 놓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내적자원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적 부적응과 이상(disorder)의 문제를 개인에서 사회, 문화적 시각으로 확장하여 내적통제감과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는 다문화상담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 가족제도 및 역사 등에 역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줄을 이었다(김현아, 이자영, 2013; 한재희, 2016; 김혜진, 김현주, 2017).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다문화상담 현황과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최현수, 2015; 김규식, 2016; 이민자, 2019; 장은정, 2020).

다문화상담은 문화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성공경험을 축적하여 스스로 자기효능감⁸⁾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며 낯선 타국에서의 삶이 쉽지 않음을 공감하며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는 일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장점 강화와 실천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로는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사회적 지지 향상을 위해 미술 활동 활용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음악치료, 무용참여, 원예치료, 웃음치료가 있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심리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최정숙, 오지영, 2011; 고예정, 2014; 하운주, 2011).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 부적응에 따른 역할 갈등이나 정신건강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설동훈 외, 2005; 홍미기, 2009; 김은경, 2010; 이혜림, 2018; 강하라, 2019).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서의 성장과정과 한국에서의 문화적응경험을 연결하여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다문화상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 다문화상담은 차별받는 타자적 집단에

8) 반두라(Bandura, 1997)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의 내면에 감춰진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창조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는 지속적인 작업의 과정이 바로 자기효능감인 것이고 '자기효능감'을 개발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어려운 문제들을 타고 넘어 사회변화의 실질적인 방법을 키우는 근본이라고 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1).

서 무한한 가능성이 내포되어있는 창조적이며 독립적인 자아라는 것을 알려 나가는 것이다. 다문화상담을 경험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문화적응과정을 통해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지만 모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모국에서의 성장과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큰 자극에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반면, 어떤 참여자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중심을 잃고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장성숙, 2010).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증상의 원인은 자극이 아니라 성장과정의 환경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문화적응과정에서 문제 원인이 될 수 있는 자극 및 제반 상황을 점검한 다음 작은 자극에도 휘둘리는 약한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성장 배경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최대한 깊고 넓게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모국에서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 한국문화적응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해나갈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문화상담의 의미를 내러티브 탐구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내용

이 연구는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이라는 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다. 특히 다문화상담이 그들의 적응과정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다문화상담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생애에서 문화적응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다문화상담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경험 유형을 주체적, 타협적, 수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양상에 주목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응과 다문화상담의 의미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II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초국적 이주의 개념과 현황, 정체성을 살펴보고 문화적응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초국적 이주의 흐름과 문화적응의 의미와 연계성을 논의하였고, 문화적응과정의 경험들이 도출되는 다문화상담의 주요 개념과 정책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다문화상담의 능동적 기술을 통한 실천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과 타자성을 통한 상호문화적 실천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III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에서의 성장과정과 문화적응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적용한 질적연구방법을 소개하고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해석과 방법, 연구참여자 선정, 자료수집 및 처리 과정,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적 고려를 기술하였다.

IV장과 V장은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IV장은 연구문제 1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정에 어떠한 양

상이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V 장은 연구문제 2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 결혼이 주여성의 문화적응 양상에 주목하여, 그들이 우리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응과 다문화상담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VI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화적응의 요소가 포함된 다문화상담의 이론적인 논의와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3. 연구동향

이 연구는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다문화상담’ 과 관련된 학위 논문 990편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경험’ 에 관련한 학위논문 339편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 중에서 본 연구의 핵심주제에 따라 ‘다문화상담’ 과 관련된 박사논문 195편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경험’ 에 관련된 박사논문 97편의 연구 흐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다문화상담을 통한 실천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에서의 성장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다문화상담자의 역량과 다문화상담 프로그램개발 등 다문화상담의 필요성에 관련된 연구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문화상담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변화를 탐색하거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실천적 선행연구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접촉 이전의 성장과정이 포함된 문화적응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집중하여 살펴보면 <표 I -1>과 같다.

<표 I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 핵심 내용

구분	핵심 내용	저자명 및 출판년도
문화적응	사회적 편견, 의사소통, 가치관, 가족제도, 자녀양육, 가족갈등, 전통문화, 가정폭력과 우울, 심리적응, 양육스트레스, 성역할, 문화적응스트레스	권미경(2007), 김민정(2007), 홍미기(2009), 김태호(2009a), 임현숙(2009), 이진희(2009), 박지영(2010), 권명희(2011), 김혜신(2011), 이영남(2011), 한숙자(2011), 한재희(2011), 김연수 외(2012), 박선태(2012), 이숙경(2012), 한서연(2012), 이소영(2013), 이혜경 외(2013), 김미원(2014), 김민정(2014), 유현희(2015),
정체성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개인 정체성, 민족 정체성	설동훈 외(2005), 황정미 외(2007), 박신규(2008), 조현미(2009), 홍민기(2009), 이명진 외(2010),

다문화사회 시행 초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및 학문적 관심은 결혼이주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국사회 초기적응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착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되어 왔다(강희영, 문영민, 2017),

먼저,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이다. 2007년 이후부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시기로 이때부터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식 차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갈등을 고조시켜 사회의 편견이나 무시가 매우 힘든 고통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다(권미경, 2007; 임현숙, 2009). 이러한 연구는 언어능력 부재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졌다. 2010년부터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등 가족관련 연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김혜신, 2011; 이소영, 2013; 유현희, 2015). 한국어 습득의 기회를 얻기도 전에 출산하거나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등 일상생활의 적응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송복희, 2012; 박현성, 2014), 이민자들에게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적응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김순규, 이주재, 2010; 김미원, 2014), 배우자의 지지와 가족친척의 정서적지지, 가족생활 스트레스는 결혼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현숙, 2010; 남인숙, 안숙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협소한 사회관계망을 확대하여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송경신, 2010; 김희정, 2014).

다음, 정체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주 초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 동향은 설동훈 외(2005)가 연구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과 박신규(2008)가 연구한 초국적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고정적인 문화개념이나 민족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모순점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단일민족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여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분석한 연구(이명진 외, 2010)와 국제결혼이민자의 결혼 초기 시기가 되므로 주제가 가족 관련 스트레스와 결혼적응에 관련된 연구가 있다(장은정, 2007; 이진희, 2009). 결혼이주여성들은 초국적 이동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이주 동기에 따라 이주국과 모국의 연계망을 형성하고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정착지 간의 이중적인 시공간을 헤쳐하여 또 다른 제3의 지역을 만들어 간다는 연구(조현미, 2009), 결혼이주여성들은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발생 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연구(홍민기, 2009) 등 초국적 이주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다각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양옥경 외, 2009), 가정폭력과 우울, 사회적지지 등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결혼만족도 등 심리문제를 다룬 연구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이숙경, 2012; 이해경, 전해인, 2013).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동향을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심리적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주제가 많았으며, 우울,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를 접목한 연구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노은하, 2016; 장훈성, 2018; 김만호, 2018).

<표 1 -2> 시기별 문화적응 관련 관심 주제

구분	관심 주제 내용	저자명 및 출판년도
2007년 이후	자녀와 관련한 연구, 사회적 편견과 무시, 언어능력 부재, 의사소통 문제, 가족갈등	권미경(2007), 김민정(2007), 이진희(2009), 임현숙(2009), 홍미기(2009),
2010년 이후	심리적응문제,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양육 문제와 스트레스, 가정폭력과 우울, 한국어습득, 사회관계망, 배우자와 가족,	김순규 외(2010), 김현숙(2010), 권명희(2011), 김혜신(2011), 남인숙 외(2011), 이영남(2011), 김연수 외(2012), 박선태(2012), 송복희(2012), 이숙경(2012), 한서연(2012), 이상노(2013), 이소영(2013), 이해경 외(2013), 김미원(2014), 김민정(2014), 박현성(2014), 유현희(2015)
2015년 이후	정서적·심리적 요인, 양육스트레스, 우울, 정신건강, 가족건강, 부모역할, 경제적 부담, 자녀양육경험, 경제활동, 사회관계망, 사회적지지,	현경자 외(2012), 김동희 외(2015), 노은하(2016), 황혜영 외(2015), 강복정 외(2016), 임금빈(2016), 이창운(2017), 한수연 외(2017), 함진옥(2017), 김만호(2018), 단효홍(2018), 서정원(2018), 이미경 외(2018), 장훈성(2018), 이민자(2019),

특히 2015년 이후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이나 가족건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며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강복정 외, 2016; 이미경, 안상근, 2018).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 자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임금빈, 2016; 서정원, 2018),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들의 어머니인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한수연 외, 2017; 이민자, 2019).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철민, 2012; 단효홍, 2018).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을 자녀양육경험에 초점을 둔 질적연구(박동숙, 2018)와 낮은 문화적 환경에서 겪게 되는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있고(오미정, 오은정, 2018; 설임추, 2020), 2021년도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한 부모 다문화가정의 경제활동과 사회관계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이춘양, 2021, 한가은, 2021)가 있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 아내’ 그리고 ‘외국인 어머니’로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며 ‘한국사람 다 됐네’라는 표현도 이러한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수행에 관한 결과로 나타난다(이지영, 2019; 조혜련, 2014). 문화적응과정은 개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대부분 개인 정체성의 혼란과 어려움에 대한 대처능력의 저하로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된다(홍미기, 2009; 이국진, 2014). 김연수, 박지영(2010)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경험으로, 언어, 식습관, 종교, 전통문화, 성역할에 있어 차이를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 및 당혹스러움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문화와 한국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문화적응유형을 갖는 것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경옥, 2010; 박은정, 2020).

홍달아기 외(2012)는 심층 면접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허니문단계, 조화단계, 자립단계, 한국생활적응단계의 경험을 밝히고, 입국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국어 및 문화 교육이 필요하며, 입국 후기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립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정숙, 2010; 김미영, 2018).

결혼이주여성은 이주한 사회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 연결된 가족으로부터 익숙하지 않은 사고나 행동을 요구받는 복잡한 적응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문화적 갈등을 겪게 된다(조진숙, 황재원, 2017). 문화적응은 개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Luo Le, 2016),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이민자, 2019)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연구는 설문조사나 실험연구에 의한 양적연구들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적이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반영한 질적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상담과 관련된 KCI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1993년 첫 논문이 발표된 이래 1995년과 1998년에 각각 한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4편이 발표되었다(송윤선, 이미나, 2019). 그러다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과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등 가족구성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2012년에는 46편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에는 4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단계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세움에 따라 다문화상담에 대한 연구동향들도 활발해진 것으로 사료된다(송윤선, 이미나, 2019).

〈표 1-3〉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상담에 관한 선행연구 핵심내용

핵심 내용	저자명 및 출판년도
다문화상담 개념과 이론, 다문화상담기법, 심리적·언어폭력, 식생활방식, 활동의 자유, 경제적 착취, 가정교육프로그램	송미경(2008), 홍성하(2010), 김지영 외(2011), 김동호(2013), 김현화 외(2013), 서양임(2014), 안중애(2016), 한재희(2016), 김미영(2018), 장영신(2018), 이진경(2021)

다문화가족지원포털(2017)에서 발표한 전국 상담실적 통계 보고서를 살펴보면, 베트남(37.5%)결혼이주여성의 상담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중국(16.3%)

과 캄보디아(9.3%)가 뒤를 이었고, 다음은 필리핀(9.0%)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다문화상담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 부부문제, 자녀문제, 가족심리와 정서문제, 법률문제, 취업, 성폭력, 병원진료에 관련한 문의 등 다양한 내용의 상담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그들의 심리적·언어적 폭력, 한국 식생활방식의 강요, 활동의 자유 구속, 경제적 착취와 권리박탈 그리고 고국과의 단절강요 등을 빈번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 최훈석, 2011).

〈표 1-4〉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상담 사례 내용

다문화상담 내용	저자명 및 출판년도
심리적·언어적 폭력, 활동의 자유 구속,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고국과의 단절강요, 경제적 착취와 권리박탈	김태호(2009), 김지영·최훈석(2011), 한재희(2011), 김현아·이자영(2013), 김혜진·김현주(2017), 이진경(2021).

다양한 상담이론과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문화적인 다름과 융통성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특성을 적용하는 상담에 대한 연구가 있고(송미경, 2008), 한재희(2016)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서로 간에 문화적 배경, 가치관, 생활양식에 대하여 다른 차이를 우선적으로 인식하여 상담에 접근하는데 유연하게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홍성하(2010)는 다문화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개방성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외국의 상황과 다른 한국의 다문화 사회적 상황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상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태호, 2009; 한숙자, 2011; 한재희, 2011). 또한, 다문화상담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담자와 내담자의 다른 인종과 문화적 차이로부터 드러나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의 연구(김동호, 2013).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차이, 언어소통, 사회적 편견, 가족갈등, 높은 취업 장벽 등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문화적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려는 한국인 다문화상담자에 대한 경계가 심하고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 신뢰

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김현아 외, 2013).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특징과 개인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다문화상담은 그들의 문화적 배경, 가치관, 가족제도 및 역사 등에 역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김혜진, 김현주, 2017; 이자영, 201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심리적 현상(서양임, 2014), 상호문화교육과 상호문화상담에 대한 연구(안증애, 2016),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김미영, 2018), 내담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이를 포함하여 기존의 상담이론과 방법을 적절하게 융화시키는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연구(장영신, 2018),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대한 연구(이진경, 2021) 등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다문화상담의 필요성과 요구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다문화상담현황과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한숙자, 2011; 이영란, 2019; 최현수, 2015, 최승호, 2019)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상담의 실천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경험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경계가 사적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경험이 존중받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긍정적인 다문화인식은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다고 뱅크스(Banks, 2008)가 주장한 바 있다. 많은 국제 연구가 이민자들의 사회와 문화유산, 참여방식, 그들과의 관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존 베리는 캐나다 이민자 7,000명의 샘플을 토대로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그들의 2가지 문화적 특성을 평가하였는데 결과는 캐나다 사회의 특징으로서 세대에 걸쳐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그룹의 문화적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호 친숙함과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 간 상호작용과 포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더 큰 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프로그램과 미디어, 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 문화 간 만남의 기회를 촉진함으로써 달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10년간(캐나다, 미국, 호주,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영국 등 7개국) 5,000여 명을 인터뷰했

던 존 베리 보고서를 보면 이민가정 자녀들 가운데 자신의 민족적 특징을 문화 전통, 언어 등을 통해 배우고 잘 유지하고 있을수록 차별이나 각종 사회 이슈를 다루는 데 문제가 없다. 반면에 민족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국가, 환경에 흡수된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욱 많은 문제를 겪었다고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모자이크식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존 베리 보고서(Berry, 2016)는 다문화상담의 필요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설문조사나 실험연구에 의한 단편적인 연구의 흐름을 탈피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적이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반영된 체험들을 그들의 내면의 목소리로 듣는 것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에서의 성장과정과 그들이 살아온 삶에 녹아있는 체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탐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갖는다.



4. 연구동기

클레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7)의 내러티브 분석 방법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연구자가 자신의 현재의 입장을 형성하게 된 과거의 사건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한 경험이 이루어졌던 환경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내러티브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러티브 연구는 인간의 삶의 경험이 내러티브 안에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자서전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자의 내러티브 탐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오랫동안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유년시절 해방과 6.25를 겪으며 가난과 병마의 고통 속에서 사셔야 했던 부모님은 소아마비 장애로 말을 못하는 큰 딸과 다운증후군의 막내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평생 별 받는 심정으로 죄인처럼 사셨다. 그런 부모님의 처절한 삶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나는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말을 거역한적 없었고, 장애인 가족이라는 불편한 시선에 기죽어 사셨던 불쌍하신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께 효도하자’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연구자는 25살에 한푼 두푼 어렵게 모아서 화장품가게를 차렸다. 가게 운영은 학업을 뒤로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유한킴벌리에서 배운 기업윤리를 고객들에게 실천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신뢰를 쌓은 고객들의 입소문으로 꽤 많은 수익을 창출하며 가난한 부모님의 팍팍한 삶에 작은 희망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

1996년 여름,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게 된 인천에서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연구자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잠시 뒤로 미뤄두었던 유치원교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유아교육과에 진학하였다. 그 당시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며 틈틈이 취득해두었던 아동미술자격증을 활용하여 낮에

는 미술학원교사로, 밤에는 야간대학에 다니며 성실한 삶을 온몸으로 실천하였다. 누가 시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 연구자의 부지런한 삶에 강철과 같은 원동력은 장애인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불편한 시선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평범함을 버리고 도전적인 삶을 선택해서 살았던 연구자는 서른 살이라는 결혼적령기를 뒤로한 채 2000년 3월 작은 어린이집(정원 39명)을 시작으로 2005년 5월 어린이집 2호(정원 80명)와 2012년 3월 어린이집 3호(정원 92명)를 개원하여 부모님과 가족들의 삶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성실하고 강인한 도전을 하였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일요일에도 오고 싶은 어린이집이 되었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던 학부모들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신뢰를 쌓았다.

국제결혼이 활발해진 2000년을 기점으로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숫자는 점점 늘었고, 3호 어린이집을 설립한 2012년에는 한 반에 2명~5명이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확대되었다. 이에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원장이었던 연구자는 앞장서서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학부모상담과 교사상담 등 무수히 많은 상담을 진행하였고, 2010년 2월 본 대학의 ‘심리치료상담’ 석사과정을 졸업하며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되기 위해 각종 자격시험과 집단상담,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며 다문화교육을 위한 끊임없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14년 봄, 본 대학의 ‘다문화교육’ 박사과정에 입문하면서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사회통합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찾아 다양한 방면으로 지식을 넓히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내러티브 탐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서전적 내러티브는 연구의 폭을 넓히고 연구자의 개인적 삶에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사용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클라딘(Clandinin, 2016)이 밝힌 중요한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평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들을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던 연구자는 00시 아동복지관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부모교육’ 과 ‘다문화상담’ 을 전담하고 있다. 상담현장에서 만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보였다.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그들의 용기에 절로 고개를 숙이며 상담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힘겨운 삶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다문화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다. 낯선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각자의 힘든 삶을 격려하며 고생했다 말해줄 수 있는 건 상담자의 특권이고 숭고하고 엄숙한 의무일 것이다.

다문화상담에서 대화가 성립하려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이 보내는 ‘마음의 소리’ 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상담자의 역할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연구자가 운영했던 어린이집은 분기에 1회 학부모상담과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반가정의 학부모들과 다르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아야 했던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과 전화상담, 가정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교육을 확대하여 그들의 한국문화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특히 자폐아동과 발달지체 아동의 경우, 담임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의 안전생활과 각 가정에서 이어지는 건강한 가정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다문화가정 엄마들의 어려움(법률, 금융, 의료, 공공지원)에 공감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부 문제와 시대과의 갈등, 한국말이 서툰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국시어머니의 하소연 등 아동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지는 모든 주변 인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장으로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연구자에게 있어서 상담은 가치 있는 도전이고 희망의 선물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결혼이주여성들을 우리라는 개념속의 타인으로 인식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상황보다 조금 더 나은 한국에서의 삶에 희망을 갖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자원이고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다. 때문에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과의 차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서로 고양시키며 성장하는 마음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인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거듭하며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고 있다.

다문화상담을 진행하며 연구자는 매순간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처진 어깨와 기죽은 듯 눈물을 머금은 눈빛을 보게 된다. 남편의 무관심, 아이들의 문제행동, 시댁의 차별과 갈등, 불편한 사회적 시선, 모국의 가족들에 대한 상처, 등 각자 사연들은 다르지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길 바라는 간절한 눈빛은 힘든 외로움이 묻어 있다.

연구자는 항시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연구자는 힘든 한국생활에 눈시울을 적시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선택했던 상담자의 길에 후회는 없다.

인간으로 태어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그것은 자신의 생명에 어떠한 철학을 쌓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로 결정된다. 인생은 입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남들이 모르는 그들의 무대에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상담은 진리를 깨닫고 타자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다문화를 탐구하는 연구자로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그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담아내기 위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삶을 최대한 깊고 넓게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도적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들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이 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응의 의미와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험했던 다문화상담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이론적 렌즈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다문화사회에 정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해와 현황,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일반상담과 다문화상담의 개념을 정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이용 현황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한 다문화상담을 살펴보았고 3절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결혼이주여성과 문화적응

1.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과 현황

1.1.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가. ‘결혼이주여성’ 용어의 정의와 이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결혼이민자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2020). 즉, 결혼이주여성은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법률규정에 의해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의 형식을 통해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상태에 있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12).

국립국어원대사전에는 여성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성매매종사자, 외국인 여성, 국제적 인신매매 피해여성을 모두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주여성’ 이란 용어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국사회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의 경우와 다르게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한국 제도로 인해 돈을 벌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이주가 진행되고 국적법에 의해 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착성이 강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법⁹⁾과 국적법으로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국적법에서는 혼인 후 2년 이상을 동거해야 혼인귀화의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있어, 남편의 가정폭력과 학대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김두년, 2003). 이에 2004년과 2010년 개정법¹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법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혼인에 의

9)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국립국어원대사전(www.stdict.korean.go.kr)

10) ‘국적법’은 2004년과 2010년, 결혼이주민에 관련한 법 개정이 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간이귀화 요건)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2010년 개정법은, 제10조 제2항 이하를 신설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중 간이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간이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것은 제6조 제2항 1호, 2호 요건 해당자 즉, 귀화 당시 혼인상태인 결혼이주민으로 제한하여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과 아동보호차원에서 국적취득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박귀천, 이유봉, 2012). 이와 같은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들의 국적에 따라 보는 시각이 차별적이고 냉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은 본인 스스로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들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동질혼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유정균, 2021).

나. ‘결혼이주여성’ 유입 배경

단일민족의 순수혈통을 강조했던 한국사회는 80년대 후반 ‘세계평화’를 위해 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통일교의 종교적 실천으로 한국의 농촌 총각과 일본여성의 결혼을 주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반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사회적으로 거부하는 분위기로 인해 결혼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1990년대 초반 외교 관계가 공식적으로 재개된 한국과 중국은 조선족 여성들을 친척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시켜 취업활동을 시작하였고, 합법적인 영주권취득을 위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동남아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조원휘, 2019).

1990년대 말부터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직업소개소¹¹⁾로 위장하여 예비신부를 모집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의 국제중매로 이루어졌고(최승호, 2019), 필리핀은 영어권이므로 2세의 영어교육에 유리하고, 모계사회에서 자란 필리핀 여성들은 농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필리핀 여성을 선호하게 하였다(안현정, 2003).

국제결혼이 정점을 이루던 2005년까지 한국남성들이 선호하는 외국인 여성은 중국(한국계)인, 중국, 일본 여성 순으로 이루어졌으나 2006년부터 한국인 여성

11) 2005년 1월 17일 필리핀 국가수사국(Th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 요원들은 마닐라 근교 파라냐케시(Paranaque City, Metro Manila)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급습해 필리핀 여권 수백 개와 결혼서류,비자서류, 필리핀인 예비 우편주문신부들의 사진 등을 압수하고, 한국인 남성 6명과 필리핀 여성 5명을 체포하였다. 그들은 직업소개소를 위장하여 예비 신부들을 모집했는데, 2004년 이 업체의 알선으로 결혼한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점이 체포 사유였다(중앙일보, 2005.1.19일자).

과 비슷한 외모에 생활방식과 자녀교육관, 음식의 차이가 나지 않는 베트남 여성들과의 결혼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moi)’ 라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국제결혼에 배타적이던 분위기가 호의적인 태도로 변하면서 많은 국가와 교류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TV 방송을 보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한류열풍이 불게 되면서 한국남성들과의 결혼이 베트남 여성들에게 꿈이 되었다(김도희 외, 2007).

보건복지부(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형제나 친척 등의 혈연집단에 의해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필리핀과 일본은 한국남성들이 결혼 명목의 경비를 종교단체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베트남은 대부분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사실 국제결혼 알선 업체들의 적극적 상술과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한국사회에 결혼이주여성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이진경, 2021). 그 증가의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편중된 성비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가 급증하였고, 둘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셋째, 농촌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한국여성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저개발국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넷째,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었다(오주연, 2018).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인 한국 이주가 많아졌으며, 한국의 경제 상황보다 뒤쳐진 동남아시아 주변국 여성들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 탈출로 생각하였다(주미연, 2010). 이렇듯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와 한국남성의 경제력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자 하였고, 국제결혼을 통해 모국에서의 성장과정과 불안정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1.1.2.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2022년 5월 30일 기준으로 2,012,862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전체 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결혼이주여성)는 169,588명으로 12%를 넘어섰고, 특히 한국남성과 아시아권 외국여성의 결혼이 급증하면서

2000년대 초 7,000건이 채 되지 않았던 한국인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5년 뒤 2005년에는 3만 건을 넘어, 2010년까지 전체혼인의 10%이상을 상회하며 정점을 찍었다. <표 II-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사증 발급심사 강화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7년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K팝과 K드라마로 인한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1).

<표 II-1> 연도별 국제결혼현황(2000-2021)

(단위: 천 건 %)

연도	전체혼인	외국인과의 혼인	한국남자와 외국여자혼인	한국여자와 외국인남자혼인	외국인과의 혼인비중
2021	192.5	13.1	9.0	4.1	6.8%
2020	213.5	15.3	11.1	4.2	7.2%
2019	239.2	23.6	17.7	6.0	9.9%
2018	257.6	22.7	16.6	6.1	8.8%
2017	264.6	20.7	14.8	6.1	7.9%
2016	281.6	20.6	14.7	5.8	7.3%
2015	302.8	21.3	14.6	6.6	7.0%
2014	305.5	23.3	16.1	7.2	7.6%
2013	322.7	26.1	18.2	7.6	8.0%
2012	327.2	28.2	20.5	7.8	8.7%
2011	329.1	29.8	22.2	7.5	9.0%
2010	326.1	34.2	26.2	8.0	10.5%
2009	309.8	33.2	25.1	8.2	10.8%
2008	327.7	36.3	28.2	8.0	11.0%
2007	343.6	37.6	28.5	9.0	10.9%
2006	330.6	38.8	29.6	9.1	11.7%
2005	314.3	42.4	30.6	11.6	13.5%
2004	308.6	34.6	25.2	9.5	11.2%
2003	302.5	24.8	18.8	6.0	8.2%
2002	304.9	15.2	10.7	4.5	5.0%
2001	318.4	14.5	9.7	4.8	4.6%
2000	332.1	11.6	6.9	4.7	3.5%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22)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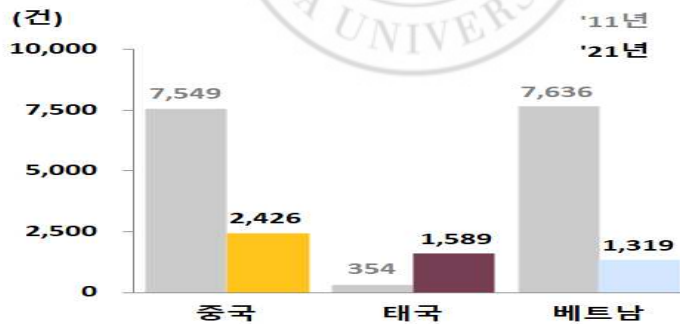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일본여성들이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하여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과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다양한 출신 국적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혼인 건수는 <표 II-2>에서와 같이 중국(27%), 태국(17.7%), 베트남(14.7%), 일본(8.0%), 미국(5.1%), 러시아(4.0%), 필리핀(2.9%), 기타(20.6%) 순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아시아계가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2).

<표 II-2>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혼인 건수

(단위: 건, %)

국적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총 건수	14,677	14,822	14,869	16,609	17,687	11,100	8,985	100.0	- 19.1
중국	4,545	4,198	3,880	3,672	3,649	2,524	2,426	27.0	- 3.9
태국	543	720	1,017	1,561	2,050	1,735	1,589	17.7	- 8.4
베트남	4,651	5,377	5,364	6,339	6,712	3,136	1,319	14.7	- 57.9
일본	1,030	838	843	987	903	758	723	8.0	- 4.6
미국	577	570	541	567	597	432	457	5.1	5.8
러시아	110	125	171	234	305	275	366	4.0	29.5
필리핀	1,006	864	842	852	816	367	260	2.9	- 29.2
기타	1,801	1,789	1,902	2,178	2,528	1,873	2,074	20.6	- 1.0

출처: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2022



[그림 II-1]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2011~2021)

출처: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2022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은 초창기에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비율이 높았던 반면 2000년을 기점으로 나이 많은 한국남성과 저개발국의 동남아시아 여성의 결혼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비율의 5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결혼이주민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 결혼이주민 성별 현황

(단위: 명)

연도	2006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93,786	152,374	155,457	159,207	166,025	168,594	168,562	170,307
남자	10,958	23,856	25,230	26,816	28,931	30,716	31,851	32,995
여자	82,828	128,518	130,227	132,392	137,094	137,878	136,711	137,312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2022)재구성

2006년에는 전체결혼이주민 93,786명 중 결혼이주남성은 10,958명이고 결혼이주여성이 82,82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7배 이상 많았고, 2022년에는 전체결혼이주민 170,307명 중 결혼이주남성이 32,995명(19.4%), 결혼이주여성이 137,312명(80.6%)으로 여전히 4배가 넘는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3>과 같이 한국 남자와 여자의 국제결혼은 부부사회 인구학적 특성에서 확연하게 대비되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발견된다. 혼인적령 인구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 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의한 촉진된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 남자와 중국, 동남아시아 및 구소련연방 국가의 여자와의 결혼에도 나타난다 (김두섭, 2006).

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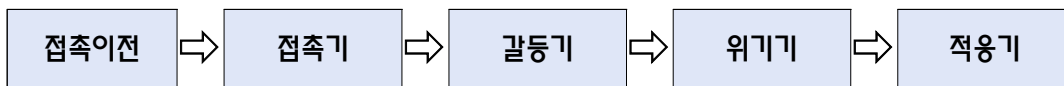
1.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문화적응(Cultural Adaptation)이란 레드필드, 린턴(Redfield, Linton)과 하스코비츠(Herskovits, 1936)에 의해 소개되었다(홍미기, 2009).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 집단이 토착문화에 접촉함으로써 생겨난 현상들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즉, 이주 집단과 토착집단의 문화에서 일어나는 연속적 변화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세계적인 거장 하프데드를 비롯하여 트리안디스(Triandis), 마커스(Markus), 니스벳(Nisbett) 등의 심리학자들이 문화차이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고, 국내에서는 최상진, 한덕용, 조궁호, 최봉영, 한규석 교수 등이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특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존 베리(1997)가 정의하고 있는 문화적응이란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강제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 문화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변화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고 기존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적 양식에 자극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존 베리(1980)는 두 문화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그 결과로 생긴 지속적인 변화로 정의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부정적 경험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는 건강심리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화적응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응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개념화가 바람직하다. 둘째, 문화라는 용어에는 하나의 문화만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문화적응이라는 용어는 두 개의 문화가 상호작용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베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을 선호하고 있다(Berry, 2005). 베리 와 김(Berry & Kim, 1988)은 문화적응과정을 접촉이전, 접촉기, 갈등기, 위기기, 적응기로 나누고 개인의 환경과 새로운 문화의 여건, 시간의 결과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사회로 이주를 결심하도록 하는 접촉이전 시기(pre-contact phase)는

가난과 전쟁의 위협, 인구과밀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사업의 실패와 좌절 등 개인적인 동기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접촉기(contact phase)는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며 문화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행동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이주초기의 단계다. 갈등기(conflict phase)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문화적 압력이나 이민 집단 간의 갈등, 혼란과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시기로 정신건강에 가장 취약한 시기를 말한다. 위기기(crisis phase)는 긴장과 갈등이 축적되어 공격적인 행동과 알코올 중독, 가정불화, 후회와 좌절을 반복하며 자살 행동의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기(adaptation)는 갈등기와 위기를 극복하고 그 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단계다. 이와 같이 베리, 김(Berry & Kim, 1988)은 문화적응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눠서 다음 [그림 II-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림 II-2] 문화적응과정 다섯 단계

존 베리(1997)는 새로운 문화에 정착하는 이주민들이 자신의 원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유지할 것인지를 문제와 주류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문제에 따라 문화적응 특성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가지로 밝히고 있다. 즉,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문화적응 전략은 다음 <표 II-4>과 같다.

<표 II-4> 베리의 문화적응 전략 2차원 모델

2차원 \ 1차원		문화적 정체감과 특성 유지	
		Yes	No
주류사회와 관계유지	Yes	통합 (Integration)	동화 (Assimilation)
	No	분리 (Segreg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

출처 : 베리(Berry, 1997)재인용.

첫째, 통합(Integration)은 개인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문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적응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둘째, 동화(Assimilation)는 개인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버리고, 새롭게 접한 주류문화에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분리(Separation)는 개인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만 유지하고, 주류문화에 대한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다. 넷째, 주변화(Marginalization)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문화정체성도 부정하고 주류문화와의 상호작용도 거부하는 것이다(조진숙, 황재원, 2017).

베리(Berry, 1988)는 문화적응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변화를 신체적,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신체적 변화는 낯선 사람들, 거주지, 새로운 기후를 통한 변화를 말하며, 생물학적 변화는 생소한 음식으로 인한 건강상태 변화이고,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 변화이며, 문화적 변화는 정치와 경제, 사회, 종교, 언어, 기술적 변화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심리적 변화는 태도, 가치, 신념, 정신건강의 변화를 의미한다(홍미기, 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어려움을 연구한 송복희(2012)는 국제결혼이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여성의 대다수가 매매혼의 성격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보니 의사소통의 부재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위협과 가정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임성주(2017)는 인지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부갈등으로 인해 부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결혼생활을 하며 자신의 감정조절과 행동을 인식하고 상호 간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므로 다문화정책을 시행할 경우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프로그램개발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는 모든 권한이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일방적으로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하는 가정문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통계청(2022)이 발표한 외국인 결혼귀화자 국적취득현황을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베트남 국적이 30.4%, 중국 국적이 20.3%로 두 나라의 결혼귀화자가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두 나라는 자국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이루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사회체제로의 변화가 쉽지 않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의 적응을 어려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설동훈 등, 2005).

한 인간의 삶의 뿌리는 자신이 자라고 경험한 사회 환경 속에 있다. 문화를 모르고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의 가족과 친구, 능숙한 언어를 떠나 낯선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한국생활 및 문화적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의 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그들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마련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1.3. 결혼이주여성의 복합적인 정체성

정체성이란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라고 정신분석 용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삶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과거의 지나온 삶의 경험들이 개인의 성격과 신념을 형성하는 현재가 되며 이렇게 형성된 현재의 모습을 통해 미래의 꿈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한 개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김영순 외, 2018).

국제결혼은 글로벌 시대 지구를 하나의 울타리로 보는 전 지구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결을 같이 하면서 국가의 개념이 고정된 특정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인 사회 공간적 관계로 변화하고 그 안에서 개인들의 정체성과 성, 인종, 국적, 계층의 상호작용에 따라 초국가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이혜경 외, 2006). 즉 결혼이주여성들은 초국적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고 두 개 이상 국가의 경계에 걸쳐 삶을 영위해 나가며(김영순 외, 2019), 이주를 통해 기존에 생활하던 특정 환경에서 벗어나 상이한 문화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그 지역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Taylor & Lambert, 1996).

초국적 이주란 단순히 국가에서 국가로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주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포괄하고 현실적인 전환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

유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과정 자체가 사회 문화적 패턴과 사고, 행태를 새롭게 유발하기 때문이다(Kim, 2010). 이렇듯 이주민으로서 삶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기존의 정체성 또는 본국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된 정체성을 유지하고 변화시켜나간다. 이는 이주 이전의 삶을 통해 구축된 정체성과 이주 후 유입국에서 새롭게 체득된 정체성이 조화와 저항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은 단순히 주류문화로의 일방적인 순응을 통해 그 문화에서 원하는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한다거나 주어진 환경에 적응 한다기보다 지역사회의 거시적·미시적 조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문화적 변용(cultural acculturation)’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다(정유리, 2016).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 초국적 이주는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그들의 의지와 의도를 반영하며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 물리적 이동과 유입국의 문화적 관습이나 규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화적인 갈등과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경제적 빈곤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 결혼생활을 적응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심리적인 위축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의 79.5%가 19~29세이며, 한국인 배우자 남성의 61.3%가 40~49세와 20.6%의 50세 이상으로 나이 차이가 20년 안팎으로 부부간의 연령 차이가 높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연합뉴스, 2021), 또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를 표방하면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을 배제한 채 한국사회로의 무조건적인 동화와 편입을 강요하며 한국적 질서와 문화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특히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나 유학생과 달리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의 정주민으로 살아가는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책은 동화모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최병두, 2012).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된 다문화주의는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주민들이 자신의 인종과 문화적인 정체성을 표현할 권리로 지칭되었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민족적 정체성의 표현을 권리로 국제문화 교류 활동이 다양하게 장려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소외된 사회집단의 요구를 수용해 주는 규범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단일문화주의를 오랫동안

동안 강조했던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국적과 민족 개념을 연결 지어 출발하고 있어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로부터 인종적 우월성과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영토 내에서 살고 있는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 집단들 간의 이해와 관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2007년 한국사회 내에서 다 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한국이 ‘단일민족국가’ 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5년 후 2012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정기보고 심의에서도 한국은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 발언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조치, 특정 국가 출신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집중단속, 이주 배경 아동의 교육을 위한 미흡한 법·제도적 장치, 인종차별 기본법 미비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정복동, 2016).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한국사회는 문화와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앞서가는 동경의 대상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시작으로 나이 많은 노총각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불공정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의 성원이자 이주민으로서 종족적, 인종적 차이는 물론 다문화가정의 계급, 젠더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면적 관계와 복합적인 정체성의 동학을 드러내고 있다(강진웅, 2016).

국제결혼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적 범위가 넓지 않고 경제활동도 남성보다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자신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남성을 배우자로 선호한다. 반면, 가정환경이 부유하고 학벌과 직업이 좋은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 자원을 활용하지만, 계층이 낮은 남성은 자국 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혼기를 넘겨 늦은 나이에 저개발국가의 여성을 상대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와 지역 간의 불균등한 경제적 차이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인종, 민족, 문화, 종교, 계급, 젠더 등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조희원, 2010).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인간의 주체적인 존재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한국적인 문화에 따르는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

에 충실하기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Shin, 2012).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은 한국사회는 남녀성비 불균형과 고학력 여성들의 결혼적령기 지체 현상으로 한국남성들이 국내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고 설령 결혼에 성공하여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도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일이 많아지면서 가정해체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2.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상담

2.1. 상담과 다문화상담의 개념

2.1.1. 상담과 다문화상담

일반적으로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상담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상담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천성문 외, 2021).

‘다문화상담이란’ 문화적 배경과 국가, 인종, 가치관, 생활양식 등이 서로 다른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다문화상담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상담자와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이 상호간의 문화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통합하여 문화중심적인 상담기술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다(Sue, Ivey, Pedersen, 2008).

다문화상담이 처음 생겨나게 된 배경은 196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차별받는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시작으로 소수민족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상담 종사자들과 심리학자에 의해 발전하였다(Baruth, Manning, 2007). 1980년대 이후 미국 내 아프리카계만이 아니라 라틴계와 아시아계 등의 소수 민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점차 미국 주류문화 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여 다문화상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확장되었다(오은경 외, 2016). 그들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종주의와 문화적 억압의 결과로 경험하는 독특한 장점, 취약점, 어려움에 주목한 타 분야의 이론가와 연구자들로부터 탄력을 받아 수행되었다(Ivey, D’Andrea, & Ivey, 2012).

미국상담학회(AC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는 상담자의 다섯 가지 핵심가치 중에 사회 문화적 맥락을 가진 내담자의 독특성과 가치 등을 지지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여 다문화적 접근방식을 수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지

식, 개인의 인식(지각), 민감성, 성향, 기술 등의 다문화상담역량이 모든 상담자에게 필요하며, 수퍼비전과 교육에서도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지식, 기술, 인식 등의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ACA, 2014).

다문화상담이 일반상담과 달라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에게 서구적 사고나 생활습관을 동일하게 적용시킨 획일적 상담기법과 전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Atkinson, Morten, Sue, 1993; Arrendondo, Tovar-Blank, Parham, 2008).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의 상담은 ‘문화적변인’이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상담에서의 접근은 문화보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특수적인 요소에 대체하여야 높은 상담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특정문화유산에 근거한 연구는 해당 문화적 개념을 반영하지 못했고, 다문화상담 역량 연구에 있어서는 Sue 등(1982)이 제시한 현재의 상담은 서구 문화적 가치와 신념체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2. 다문화상담과 다문화상담자의 역량

다문화상담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제1세력인 정신역동 심리학을 서두로 제2세력인 행동주의 심리학이 자리매김 하였다. 제3세력의 인간주의 심리학이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제4세력의 문화중심 심리학이 다문화상담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Pedersen, 1994).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상담이론가 프로이트(A. Freud), 아들러(A. Adler), 스키너(B. F. Skinner), 로저스(C. Rogers) 등은 유럽식 미국문화의 체제를 담고 있는 반면 다른 문화는 배제하였고,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나 피아제(J. Piaget) 인지발달단계는 아동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이고 선형적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던 전통적 상담이론과 기법에 다문화 주제가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다문화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완하는 상담학자들의 노력과 서양의 상담이론과 토속적 치료기법들의 통합과정을 통해 다문화상담이 발전하게 되었다(Ivey, Ivey & Simek Morgan, 2002).

워딩턴, 소스-맥넛, 모레노(Worthington, Soth-McNett, Moreno, 2007)는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의 내용 분석을 통해 다문화상담자 역량 연구들의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다문화상담 역량모형(Mode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MCCs)이 시작점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문화상담자 역량모형개발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수, 아렌돈도, 맥데이비스(Sue, Arrendondo & McDavis, 1992)는 수(Sue, 1982)등이 제시한 다문화상담역량모형(Mode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MCCs)을 발전시켜서 태도와 신념·지식·기술 영역을 가정·가치·편견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의 세계관 이해, 적절한 개입전략 및 기법의 개발 등의 세 가지 특징과 교차시켜 9가지 문화간(Cross-cultural) 상담역량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 9가지 영역을 다시 31개의 역량으로 자세히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역량은 곧 미국 다문화상담 및 발달협회의 ‘다문화상담역량’ 기준이 되었다. 다문화상담에 대한 31개 역량 기준은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수(Sue, 1982)등의 다문화역량개념에 기반을 두고 지식·기술·인식 영역으로 다문화상담 역량측정 도구들 개발하였다.

수(Sue, 2001)는 상담에서 문화적 유능성에 대한 다차원적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서 문화적 유능성이란 첫째, 인간행동, 가치, 편견, 선입견, 개인적 한계 등에 대한 자신의 가정을 인식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둘째,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셋째,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와 작업할 때 내담자에게 적절하고 밀접하며 민감한 개입전략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다(Sue & Sue, 2008).

아렌돈도(Arredonodo, 1996)등은 상담자가 다문화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편견에 대해 인식하는 것, 내담자의 세계관(worldview)에 대해 인식하는 것, 적절한 문화적인 기법과 개입전략을 사용하는 세 영역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각 영역은 다시 태도와 신념, 지식, 기술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상담자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편견을 인식하는 영역에서 상담자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이 자신의 태도·가치·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려야 하고, 지식의 면에서는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 정상/비정상의 정의

와 상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다(공윤정, 2008).

소도프스키(Sodowsky, 1996)는 다문화상담 역량으로 ‘다문화관계 역량’을 제안하였는데, 이 영역은 상담자가 소수집단 내담자와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인식·지식·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유현실, 2009). 미나미(Minami, 2008)의 다문화상담자역량 네 가지 요인 모형에서는 정서·행동·인지를 포함하는 다문화적 태도를 추가하였다. 그는 문화권에 적합한 다양한 상담개입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현장의 지식을 축적해야 하며 다문화적 자기-자각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때 다문화상담자 자질로 추가된 다문화적 태도의 정서적 기능은 호기심, 흥미, 의지, 바램, 안정감, 열정을 말하고 다문화적 태도의 인지적 기능은 다문화적 상담능력을 탐색하여 과제를 완성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다문화적 태도의 행동적 기능은 다문화적 상담능력을 발전시키고 발휘하여 실제로 다문화적 상담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김현아, 2013).

수와 수(Sue & Sue, 2008)는 다문화상담자는 일반상담자와 동일한 조력자의 역할에 더하여 상담자의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아이비(Ivey, 2012)등도 다문화 배경 내담자의 심리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활용 가능한 조력 체계를 이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임은미 외(2018b)은 다문화 상담역량과 일반상담역량, 사회정의 옹호 상담역량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고, 최가희(2018)는 상담심리학자들이 전통적인 상담자의 역할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현아(2013)는 다문화상담자의 자질(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문화수용성을 꼽고,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상담자 자기효능감, 다문화상담자 자질(역량)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 중 다문화상담자 자질 측정에 사용된 도구는 감스트(Gamst, 2004)등이 개발한 캘리포니아 다문화상담자 자질척도(CBMCS)인데 반편견적 능력(7문항), 다문화적 지식(5문항), 문화장벽에 관한 인식(6문항), 내담자에 대한 민감성(3문항) 등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트의 총 21문항 검사이다. 연구결과, 다문화상담자로서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상담자 자질이 높고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다문화상담자로서의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효과

적인 다문화상담자 훈련을 위해서 다문화상담자 효능감 향상을 위한 동기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다문화상담자 자질(역량)으로써 다문화적 지식·자각·기술 이외에 상담자 자신의 다문화적 태도와 신념에 직면할 수 있는 역동적 구성요소로서 다문화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Minami, 2008)와도 맥을 같이한다.

최근 임은미 외(2018a)은 미국상담학회의 다문화상담분과(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AMCD)의 다문화상담역량 모형(Arredondo et al., 1996)을 기반으로 상담자, 내담자, 개입기술의 세 가지 측면에 각각 세 가지 요인으로 총 9개 요인 83개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를 개발하였다. 다문화상담의 특성은 상담자의 문화적 배경과 지식이 아닌 내담자의 문화적 관점과 맥락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생활범위 안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기법이다.

다문화상담이 일반상담과 다른 특징은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가족, 문화, 사회적 이슈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문화상담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고, 다문화상담자의 역할은 상담실 안에서 말로 하는 상담보다 상담실 밖에서 실질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상담은 상담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기술이나 지식, 전통적 상담뿐만 아니라 다문화상담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이고 차별적인 전문성을 요구한다(주은선, 이현정, 2010). 다문화상담자들은 조연자이자 옹호자, 토속적 조력 체계의 촉진자, 자문가이다. 그리고 변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앞서 제시한 다문화상담자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기존 상담자의 역할과 구별되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역할에 더하여 조연이나 자문, 기관연계 등을 수행하는 등 상담자 역할의 확장을 주장하지만(성상환 외, 2010), 다문화상담은 문화적 부적응과 이상(disorder)의 문제들을 개인에서 사회·문화적 시각으로 확장하고 통합적인 접근에 도움을 준다.

이렇듯 상담이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합리적인 분야인 것을 감안하면 다문화상담은 상담자의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속해있는 사회와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

으로 해야 하며 상담의 효율성과 상담자의 윤리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최미희, 2017).

2.2.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및 이용현황

2.2.1 결혼이주여성 상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다문화상담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강조되면서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상담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어머니, 다문화가족 남성 외국인 등 이주 당사자에 대한 연구와 다문화가족, 부부, 시어머니 등 가족과 관련된 연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문화정체감과 같이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논문,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와 학교에서의 상담연구, 상담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 자질 등 상담자에 대한 연구,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족 학부모 상담, 다문화가족 학생 지도를 위한 학교상담 방향 등 학교상담과 교사들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하다(마음쟁이, 2019). 이처럼 다문화상담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상담영역이 이전과의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22년까지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151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가족정책의 중앙기관이었던 중앙가정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 지원단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통합되어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거점센터는 전국 16개 광역으로 구분하여 네트워크 구축, 방문교육 지도사교육, 통합센터사업지원을 수행하며 통합센터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연계지원, 상담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오세민 외, 2017).

또한, 정부는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다’, ‘대한민국 품에 안긴 다민족과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결혼이민자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써 가족관계 증진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다문화상담, 통번역, 자녀교육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를 운영하고 있다(정복동, 2016).

다문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366), 쉼터, 여성의 전화, 지자체 복지관, 여성단체, 여성 문화 회관,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종교 기관, 지역 상담센터 등이 있으며, 이민자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크게는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이수 제를 주관하고,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다문화 배경 자녀들의 교육정책과 지원을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김정흔, 2017).

2022년 1월 기준 23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성 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등 국내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이중 언어환경조성, 자녀언어발달지원 등 다문화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방문, 온라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위기에 처한 가정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보호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마련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2.2.2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이용현황

우리나라 다문화상담의 시발점은 다문화적 배경으로 소외받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에 관심을 두고, 그에 대한 적응전략과 정착을 위한 정책이나 법, 교육 문제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장영신, 2018).

2020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4개 사업영역의 총 참여인원은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1,920,470명(50.99%), 가족돌봄 747,828명(19.76%), 가족관계 702,359명(18.56%), 가족생활 404,539명(10.69%)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영역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인원은 907,691명이고 그중 상담을 이용한 인원은 46,295명으로 다음 <표 II-6>와 같이 해마다 줄고 있는 이용률 대비 상담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표 II-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도별 이용현황

(단위: 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센터수	211	211	211	211	211	228	230
센터이용	1,667,292	1,693,932	1,729,739	992,263	1,061,052	1,165,694	907,691
상담이용	-	-	-	41,227	46,738	47,261	46,295

출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22)에서 발표한 「2021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총 상담건수는 169,106건으로 2018년 132,115건보다 2.2% 증가하였고, 다문화가족자녀의 증가와 맞물려 그 수가 누적 증가함에 따라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담방법으로는 센터내방(면접, 방문) 52.57%(88,906건)과 비대면(전화) 35.11%(59,381건), 가정방문면접 5.28%(8,929건), 매체(번역, 사이버) 3.67%(6,206건) 상담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접근이 용이하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전화상담이 94.5%(124,735건)로 전체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2018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센터내방과 가정방문면접 등 대면상담이 52.85%로 다음 <표 II-7>과 같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밖으로 들어내며 실효성 있는 상담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표 II-6> 상담유형별 이용현황

(단위: 건, %)

상담 유형	이용건수	비율
센터내방면접	88,906	52.57
전화상담	59,381	35.11
사이버상담	6,206	3.67
방문면접	8,929	5.28

기타	5,684	3.36
합계	169,106	100.00

출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다누리콜센터에서는 남녀 이주민을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부부·가족갈등, 심리정서 상담에서부터 체류·국적, 취업·노동 등 종합 정보제공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한 내담자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37.3%(49,270건)로 가장 많고, 가장 큰 이용 증가폭을 보인 나라는 태국으로 전체 비율 중 6.8%(8,925건)이며 전년(4.5%) 대비 2.3%p 상승하였다. 국제결혼에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국적별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는 가운데 태국만 1.4%p 증가하여 다누리콜센터 출신국 비율증가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다누리콜센터 이용자의 거주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 32.7%(31,338건), 서울 13.2%(17,456건)의 순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용자가 40.7%(53,863건)로 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7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수는 경기 32.4% (603,609명), 서울 22.2%(413,943명), 경남 6.3%(116,379명) 순으로 그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60.3%(1,121,993명)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구집중지역 중심으로 이용자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유형으로는 전년 대비 폭력피해 상담은 1%p 증가한 10.9%로 나타났고, 피해의 경우 전년과 같은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일반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상담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 추세이며 특히, 성폭력 피해 상담의 경우 폭력피해 상담 중 전년(0.9%) 대비 0.5%p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증가시기를 보면 상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2018년 상반기 활발히 공론화된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누리콜센터는 언어장벽 및 체류 등의 문제로 폭력피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여성에게 경찰,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와 통번역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심리정서지원 등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다누리콜센터의 상담결과를 보면, 직접상담이 전체 결과 중 8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 전문상담원들이 모국어 등 13개 언어를 통해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가족 갈등상담과 정착 초기의 체류

등 기본적인 정보에서부터 정착의 장기화에 따른 생애주기별의료, 자녀, 기타생활정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인 정보제공을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 1차 상담 후 내담자의 욕구, 언어적 필요성, 폭력피해 또는 위기갈등 상담 등 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2차 상담을 권유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연계 진행(위기지원) 365일 24시간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상담과 함께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역 7개소에 임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여 2018년 총 444명(성인 287명, 아동 157명)이 567일간 이용하였다. 긴급피난처 이용자를 포함하여 부부·가족갈등 상담, 폭력피해 상담 등 위기상황에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2,266건의 해피콜을 진행하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다누리콜센터, 2018).

다문화기관 인력은 상담의 내용에서도 엇볼 수 있지만 기능적 전문성과 다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이주자 및 다문화 관련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해내야 한다(민무숙 외,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은 센터운영과 관련이 있는 상담학,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센터장을 세우고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황미경, 2012).

2009년부터는 가족생활 주기별로 직면하는 문제가 다르듯이 정착하는 과정에 있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에 따른 사업내용이 진행되었고, 전문상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센터 종사자로 두고 개인상담과 가족상담을 맡아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강화하기를 촉구하였다(장영신, 2018).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로 상담이 제공되는 가운데 일회적인 상담은 센터 인력이 진행하지만 면접 상담의 경우 상담심리, 가족상담, 교육심리 등을 전공한 상담 전문 인력이 문제해결 및 상담종결이 될 때까지 진행하거나 적절한 상담기관에 연계하게 되어 있다(장영신, 2018). 그러나 현실은 이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현장에 있는 다문화상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현실은 낮은 수준의 급여와 상담 이외의 행정업무 과다로 전

문 상담사를 고용하여 배치하기에는 어려운 근무 조건 환경이다(김영혜 외, 2011; 김현아, 이자영, 2013a; 조은숙 외, 2015). 그래서 결국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로 배치된 많은 인력들이 전문상담 자격증 없이 상담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강기정 외, 2010). 이에 다문화상담 종사자들은 업무를 겸임하면서 심리상담과 복지서비스 사이에서 자신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일반상담에 비해 다문화상담의 문제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띄고 있어 대처 방안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장영신, 2018). 이런 현실에 다문화상담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상담교육은 물론 더불어 다문화상담자가 갖춰야 할 다문화 역량에 관한 교육욕구가 강했으며, 특별히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재교육 및 보수교육, 슈퍼비전, 사례발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요구된 바이다(위주원, 최한나, 2015; 조은숙 외, 2015). 이와 같은 현실에 주은선(2011)과 조은숙 외(2015)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 3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다문화상담 인력을 양성하는 공신력 있는 교육과정과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양성과정 내용에 다문화상담현장을 반영한 실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이론 중심적인 교육이 아닌 사례와 실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현장적용이 가능한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와 관련된 기관들과 상담자들 간의 자조모임을 만드는 것이다(장영신, 2018). 즉 기관 내 상담자들 간의 소통부재로 어려움을 느끼는 상담자들은 다문화상담 수행 과제에 부담감을 안고 있으며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다양한 경험과 심리적 안정, 정서적 지원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2.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한 다문화상담

문화적 다양성을 기술적 용어로 다문화주의라고 한다. 다른 나라에 대한 존중과 인정, 타 집단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다문화상담은 보편적이고 문화특수적인 전략을 사용해야 하고 한국생활경험과 문화적 가치를 조화롭게 다뤄야 하며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집단적, 보편적 측면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의 균형을 추구하

고 결혼이주여성들 개인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산물인 개인으로서 지각하는 것이다(Sue & Sue, 2012).

피더슨(pederson, 1990)은 상담현장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은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ies)을 공유함에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경험하거나 또는 정체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문화적이라고 하였다. 즉,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피더슨(pederson, 1994)은 다양성의 의미를 다음 <표 II-7>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II-7> 피더슨의 다양성의 의미

민족적변인	인구학적변인	지위변인	소속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 국적 • 종교 •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성별 • 거주지 • 장애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 교육적 • 경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 소속과 신념 • 생활방식 • 성 정체성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가부장적인 인식, 시댁의 차별대우,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 남편과 시어머니가 독점하는 경제권으로 인한 존재감 상실, 문화차이에 따른 갈등과 지역주민의 냉대로 인한 사회생활의 어려움, 서툰 한국어 실력과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결혼 전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의 조율이 쉽지 않고,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동화적인 부부관계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남성 중심의 가족주의와 저개발국가에서 유입되는 여성들이라는 편견이 확대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차별받는 타자적 집단이 되었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결혼이주여성들 우리 안의 타인으로

인식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다룬 생애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개별적인 생애사는 그들이 살아가는 한국문화 속에서 가부장적인 제약과 여성을 얽매는 전통적 관습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료는 우리사회의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성 규범을 비롯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잘 드러내 주고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자료로 받아들인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편견과 시대이라는 권위에 의한 폭력 등을 폭로하며 불평등에 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은 내러티브 범주에 들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진실을 드러내면서 사회변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상담 현장에서는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결혼이주여성을 상담하는 상담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효과적인 적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상담과 완전히 무관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전통적인 이론과 방법에 다문화적인 부분을 추가한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상담의 기본적인 원리는 차별과 편견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며 모국과 한국의 이중문화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 위험 요인을 줄여주고 안전한 삶을 강화해주는 상담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상담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보다는 긍정적인 심리행동 특성과 감정을 강화하고 균형 있고 종합적인 관점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선택하고 그들의 삶의 반경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과감한 의사표현을 통해 과거보다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아직 주변의 경계에

서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넓게 소개되어 우리사회의 현장 속에서 공감을 이룬다면 다문화담론이 생성될 수 있고 통합적이고 상호문화적인 다문화사회가 뿌리 내릴 수 있게 된다.

다문화상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을 개인, 집단, 보편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인정하고 조력과정에서 개인적, 문화특수적인 전략과 역할을 사용한다(여성가족부, 2015). 이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균형이 필요하다(Sue & Torino, 2005).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을 돕고 결혼이주여성의 독자적이고 유성과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이 다문화상담자의 역할이다.

김창대 외(2008)는 상담자 요인을 5가지 범주(이해, 관계, 태도, 기법, 자기관리)로 나누고 상담성과를 이루기 위해 국내외의 공통요인과 한국적요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내외 공통요인으로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맺기, 내담자에 대한 융통성 있고 진솔한 태도, 상담기법 활용, 자기성찰과 자기관리 등을 공통요인으로 보았고, 한국적 요인으로는 부모-자녀 중심의 가족주의에 대한 이해, 내담자가 하는 말의 표면과 이면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 등을 언급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상담은 인종과 민족,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단순한 면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경험하는 다양한 적응의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며 직접적인 도움과 구체적 지원 방안을 조력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때문에 다문화상담은 상담심리와 심리치료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은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조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상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에 대한 차이 보다 특정한 문화 안에서 개인별 차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종이나 민족, 문화적 배경보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인종문제나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요인과 관련된 문제들보다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으로 상담자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3.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성

3.1. 주체성과 타자성

21세기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대한민국은 사회, 문화, 교육, 정체성 등 다원적 특징을 강조하며 다문화주의를 도입하였지만 소수문화 집단을 주류문화 집단에 동화시키며 사회통합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문화주의적 관용과 인정은 동화와 배제의 역학을 극복하지 못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혼재하면서 복합적인 정체성과 다양한 혼종적 개인성이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주의를 실행했던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 역시 변화를 중재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다문화주의 정책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실패를 선언하며 다문화주의의 대안으로 상호문화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연합뉴스, 2011).

미세린 레이(Micheline, 1986)는 ‘상호(inter)’의 의미를 ‘상호성, 교류, 장벽을 무너트리는 것, 상호작용, 객관적 연대’라고 정의하고 시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개인과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가치, 상징적 표현에 대한 인식과 생활방식 등을 ‘문화’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상호문화’는 역동성을 표현하고 문화와 정체성의 구성을 강조하며 자기중심주의(egocentrism)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Micheline, 2010).

한 사회가 결속력을 다지며 서로 다른 문화 및 구분지어지는 것들에 의해 분열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마르틴 압달라 프리트세이(Martine Abdallah-Pretceille)는 상호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로 ‘문화’와 ‘정체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문화의 개념이 현재의 문화적 다양성을 묘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즉 상호문화의 패러다임은 혼성(hybrid), 세분화(segmentary), 이질적 사고(heterogeneous thinking)를 시도하는 경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문화는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는 겉으로는 문화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차별과 편견이 강조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21세기 다문화사회에서 전 지구인들의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이 인정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의 기본가치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상호문화교육을 추구하고 있지만 다름의 ‘인정과 공존’에 방점을 두고 있는 다문화주의와 ‘상호열린 대화와 소통’에 초점이 있는 상호문화주의는 접근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관리의 공통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테드 캔틀(Ted Cantle)은 공동체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확장된 결속(cohesion)과 통합(integration)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정책으로서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대체이고 급속도로 다양화되어 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공생의 법칙’을 배우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긍정적 모델로서 상호문화주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있는 그대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상호문화주의는 인정을 넘어 주류사회와 소수이민자들의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을 주류집단의 산물이 아니라 주체자, 행위자로 보는 것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수단으로 사회통합을 강조하며 개인의 행동을 주류집단과 관련시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다문화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시키고 있다(김창근, 2015). 여기서 상호인정이란 다수집단의 문화가 소수집단의 문화적 다름을 묵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호문화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공생하기 위한 실천적 교육을 의미한다.

레비나스(Lévinas, 1979)는 서양철학을 지배한 주체성의 이념이 타자의 존재를 자아에 동화시킴으로써 타자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였음을 비판하며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즉 타자를 내 집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윤리성이 시작되며 전체성의 틀을 깨고 무한의 이념이 자리하는 공간이 열릴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김연숙, 2000).

다문화사회에서 타자와의 연대는 단순히 여러 문화의 공존을 통한 외적인 연대가 아니라 윤리성과 타자에 대한 절대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내적 소통으로서의 연대이어야 한다(이화도, 2011). 이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개

별적 존재들이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존중의 연대를 이어나갈 때 역동적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버(Buber, 1964)는 자아와 타자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맺고 ‘나’와 ‘너’가 만나는 것이며 대화적 관계는 순수성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는 모든 대화는 포용의 요소들이 관련되어질 때 그 진정성이 획득되는 것이고 상대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때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제라르 부샤르(Gerard Bouchard)는 상호문화주의가 ‘문화주의’의 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생산하고 영속시키는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레이는 상호문화주의를 변증법적 과정이라 하였으며, 필 우드(Phil Wood)와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상호문화도시를 기획하며 하나의 신조(creed)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진행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최승은, 2020). 다문화사회의 진정한 통합은 비주류문화로 간주되는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인간의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타자와의 만남은 주체와 주체가 만나는 것이며 윤리적 실천이 바탕이 되어야 그 만남의 관계가 지속성을 갖기 때문이다(최승은, 2015). 이와 같이 상호문화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소속된 주류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상호문화 안에서 고유문화와 타문화의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통해 ‘제3의 문화적 형태’와 상황이 창출되는 것이다(Rathje, 2006).

자아와 타자가 상호 교류와 교감을 통해 주체가 되는 ‘상호주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민주사회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식이고 타자에 대한 인간존중과 윤리적 논의는 현시대의 철학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3.2 상호문화적 실천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들의 개별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더불어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 열린 마음으로 개방성을 지닐 때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창조할 수 있고(Ricoeur, 2006),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모든 관계 맺기의 토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상호문화 간 의사소통이란 낯선 문화와 가치 체계를 이해하고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알맞은 방식으로 의사소통하

고 행동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권순희, 2010). 즉, 배경지식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효율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문화의 실천은 만남이다. 문화와 문화, 학생과 교사,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인격을 바탕으로 진심이 담긴 만남을 가져야 한다.

부버(Buber, 1979)는 참된 공동체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만나고 상호관계에 들어서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버(Buber, 1964)는 대화적 관계에서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포용 경험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상호적인 포용경험을 진정한 대화적 관계라고 하였다. 여기서 대화적 관계는 살아있는 상호성이자 연대성이고 생생한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문화의 실천은 자신의 문화를 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되어 시민성교육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고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를 이뤄가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공동체적인 문제에서부터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활동의 개념으로 옮겨지면서 균형잡힌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Abdallah-Preteuille, 1999).

오늘날 인간성의 상실과 인격의 상실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며 비인격화로 전락하는 것에 경계를 두고 있다. 상호문화적 실천을 한국사회환경에 맞는 이론적 모델로 구축하려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철학이 어떤 논점을 지니고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사회학자 짐멜(G.Simmel)은 19세기 말 이주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필연적이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인식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성의 인정’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 독일에서는 그의 주장이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20세기 초 미국으로 건너간 독일 학자들에 의해서 구체화 되었다(박영자, 2012). 이때 생겨난 미국의 상호문화교육국은 미국연방정부가 기존의 동화주의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문화인류학에 기반을 둔 다문화주의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에 기초한 다문화교육이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1970년대 독일로 역수입되었던 상호문화개념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통합하고 사회제도의 구성과

확충을 위해 유럽사회의 한 위원회가 ‘상호문화’를 발표함으로써 유럽사회 전역에 확산되었다. 그러나 1982년 헌법에 명시되었던 다문화주의와 달리 상호문화주의는 공식적으로 정의되거나 채택되지 못하였고 한 사회 속에 존재하는 문화집단들 간의 교류에 관한 철학으로만 자리매김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상호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름에 대한 능동적인 이해와 교류를 통한 관계성을 지향하고 인식적·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실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상호문화주의는 여러 문화의 공존을 넘어 문화 간 의사소통과 상호관계를 핵심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서로에게 상호작용과 공유가능한 문화성의 창출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상호문화교육은 공통의 문화를 전수하고자 하는 시민성교육과 연결되어 있고 사회의 필요에 의해 수립된 사회·문화 정책적 조치나 특별한 목적을 지닌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제한된 이해를 넘어 인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반교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Portera, 2005; Auernheimer, 2003; Allemann-Ghionda, 1999; 최승은, 2015). 상호문화의 원리는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소속은 그대로 간직한 채 개방과 배려하는 상호적 분위기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Carlo, 1998). 또한 상호문화교육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상호문화적인 관계성을 확립하며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에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상호 교류와 학습을 통해 획득해야 할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김현미, 2013).

Ⅲ. 연구 방법

1. 내러티브 탐구 과정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비수학적(non-mathematical)분석, 비수치적(non-numeric)자료, 비통계적(non-statistical)방법을 차용하는 연구다(Strauss & Corbin, 1998). 크레스웰(Creswell, 1998)은 질적연구에 적합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적절성’과 ‘충분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였다(김영순 외, 2014 재인용). 연구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을 기록하며 분류의 과정을 거쳐 해석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Cresswell,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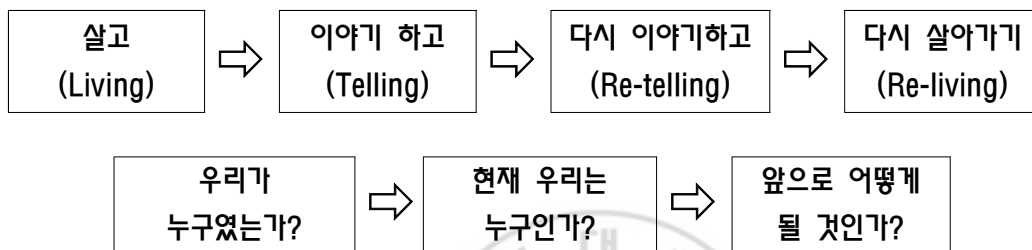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과정을 탐색하고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과 다문화상담은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경험을 분석하는 질적연구 방법으로 인간의 경험을 실제적 맥락 안에서 기술함으로써 현상의 전체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의미를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영순 외, 2017; 신경림 외, 2005; 유기웅 외, 2013; 홍영숙, 2015).

클레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7)가 처음으로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Dewey의 경험이론을 바탕으로 경험의 속성을 경험의 내러티브적 특성에 적용하여 시간, 환경, 공간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Three 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이라는 틀을 제안하였다.

내러티브 탐구공간의 세 가지 차원을 살펴보면, 먼저 ‘시간성(temporality)’은 내러티브에서 연구되는 사람, 사건, 장소를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고, ‘사회성(sociality)’은 실제적 상황이나, 환경, 개인의 맥락적인 요소들과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탐구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며(최정화, 2014), 마지막 ‘장소(place)’는 탐구와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장소로써 각각의 장소가 인간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기 위해 중요하다

고 보고 있다(염지숙, 2009).

내러티브는 개인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연구자가 자신의 내러티브에서 시작된 연구 문제들을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 살고(livings), 이야기하고(tellings), 다시 이야기하고(re-tellings), 다시 살아가는(re-livings) 4단계 과정을 통해 연구의 동반자로 존재하게 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경험의 순환적 재구성을 통해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의미와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 탐구의 관계적 의미를 다음 아래 [그림 III-1] 와 같이 모형으로 구상하였다.



[그림 III-1] 내러티브 탐구 모형

내러티브는 개인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로 생성하는 의미양식이다. 인간의 경험에 관심을 갖고 이를 기본적인 구조로 사용해 총체적 질(holistic quality)을 형성한다(박진채, 2017). 이를 통해 개인이 경험한 사건들을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주제로 연결한다(Polkinghorne, 2009). 내러티브는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 상호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므로(염지숙, 2001),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다양한 실재들과 경험의 이해와 의미의 해석과 재해석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듀이(Dewey, 1938)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인간 의식에 이르는 수단을 제공하고, 인간 본질의 복잡성에 접근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하였다(장은정, 2020). 인간의 경험은 상황(Situation)의 맥락에서 활성화되는 계속성(Continuity)과 상호작용성(Interaction)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으로서 교류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이해해야 한다고 하

였다(홍영숙, 2015). 경험은 다른 경험에서부터 기인하며 과거의 경험적 바탕을 가지고 경험적 미래로 이끌어 가는데 클라딘인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는 내러티브탐구절차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현장으로 들어가기’이다.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 동기에 적합한 현장을 선별하고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참여자와 연관되는 관계자와 주변 가족들을 만나가는 과정을 통해 현장에 익숙해지는 단계다.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아동복지관 내에서 진행되는 상담이 아닌 개인별 가정방문을 통해 관계 맺기를 시도하였다. 두 번째 ‘현장 안에서 현장텍스트로 이동하기’이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장텍스트를 생각하고 정리해서 써보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대해서 관찰과 함께 간단한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할 계획을 세웠고 연구참여자와의 부드러운 관계형성을 위해 면담 전 따뜻한 차와 함께 가벼운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이때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참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면담 일정과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세 번째는 ‘현장텍스트 구성하기’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현장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데이터 혹은 자료가 “발견하거나 찾은 것이 아니라 현장경험의 양상을 나타내기 위해 연구참여자와 연구자에 의해 창조된 것”(Clandinin & Connelly, 2000)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녹취록과 현장기록 메모장, 사전질문지 등이 수집되었다. 연구자는 면담과정을 녹취하고 면담이 끝난 후 즉시 전사하였으며 전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불분명하거나 면담 시 놓친 질문과 이해되지 못한 부분은 다음회기 면접 시 추가질문을 통해 보충하였다. 네 번째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이동하기’이다. 이 단계는 일반적인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연구텍스트와 현장텍스트를 번갈아 가며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였다. 넓은 의미의 카테고리 내러티브를 구체화하고 연구목적에 따른 재분류와 의미형성을 통해 구조를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로 자료를 수집하여 수정 보완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필

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섯 번째 ‘연구텍스트 구성하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주목하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에 주력하여 내용을 기록하였다. 연구를 시작한 이후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연구참여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고 수정 보완을 통해 연구수행 작업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경험을 탐색하는 연구에 타당성을 부여하며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경험이 그들의 과거의 성장과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각자 다르게 경험하는 개인의 특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참여자들의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한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딜타이(Dilthey, 2002)는 인간의 삶은 시간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성격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특성이 있지만 삶은 그 시간적 제약의 성격을 뛰어넘는 자서전적 의미를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내러티브 연구방법은 국제결혼을 선택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방식과 가치체계 등 다차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삶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연구과정과 연구참여자

2.1. 연구참여자 선정과정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00시 아동복지관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한 다문화가정 어머니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콜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다문화상담과 다문화 학부모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7명을 선별하여 문화적응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한국어 구사능력이 자유로우며 자신의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의도적인 표집(purposeful sampling)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참여자들과의 인터뷰는 가정방문으로 진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시행으로 연구참여자 거주지 주변의 카페나 식당을 대관하여 심층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5회기 면담 이후부터 가족상담으로 전환하여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개별상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고 가족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여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2. 연구참여자 특성

본 연구자는 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 선정기간을 6개월 이상 길게 잡았다. 한국어가 서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인 경우 주변 친구나 연구참여자 남편의 도움을 받아 면담을 끝까지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대상자는 베트남 4명, 일본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중국 1명, 총 7명이며 연구참여자의 나이는 20대 2명, 30대 4명, 50대 1명으로 21세에서 56세까지다. 연구참여자 중 베트남 여성 3명과 우즈베키스탄 여성 1명은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한국인 남편을 만났고, 일본여성 1명은 통일교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나머지 베트남여성 1명은 재 베트남

남 한국건설회사에 근무하다가 베트남에 파견 나온 남편을 만나 2년간 연애 끝에 결혼으로 이어졌다. 중국여성 1명은 한족인 할아버지와 가족 모두 한국에 귀화한 국적취득자로 유학생체류비자에서 불법 체류자가 된 중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해서 세 아이의 부모로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결혼기간은 참여자 A로부터 소개받은 베트남여성 3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10년이 넘었고, 결혼기간이 가장 긴 일본인 여성 참여자 D는 한국 생활 25년차의 주부다. 연구참여자 중 우즈베키스탄 여성 참여자 B는 이혼 후 이집트남성과 재혼한 상태이고, 참여자 A로부터 소개받은 베트남여성 참여자 G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다. 아동복지관에 상담을 받으려온 참여자들의 특성상 모두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참여자 B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3명과 현재 이집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1명을 한 집에서 양육하며 다문화의 중심에서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전업주부이고 참여자 F는 인력사무소에서 인력배치와 통역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자 G도 핸드폰 만드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돈이 목적이 아닌 가정살림이 하기 싫고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서 라는 이유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직업과 이름을 기피하는 경우 포괄적 표현으로 대체하였다.

<표 III-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국적	연령	교육 정도	이주 경력	결혼 유형	직업	상담 경험	자녀	남편 연령
A	베트남	34세	대졸	11년	중개소	주부	7회	아들3명	46세
B	우즈벡	36세	대졸	15년	중개소	주부	5회	딸3,아들1명	34세
C	중국	33세	중졸	13년	연애	주부	7회	딸1,아들2명	33세
D	일본	57세	고졸	26년	통일교	주부	3회	아들2,딸1명	60세
E	베트남	21세	고졸	1년	중개소	주부	3회	아들1명	47세
F	베트남	33세	대졸	6년	연애	인력센터	2회	아들2명	36세
G	베트남	28세	고졸	3년	중개소	방직공장	4회	딸1명	53세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 OO시 아동복지관 심리상담 센터를 통해 다문화상담과 다문화 학부모상담을 경험했던 결혼이주여성 7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그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응의 의미와 다문화상담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한국문화접촉 이전의 모국에서의 성장과정과 한국문화접촉 이후 문화적응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동참한 연구참여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참여자 A는 올해 나이는 34세, 한국살이 11년차인 베테랑 주부다. 다섯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할머니와 살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언니와 오빠와 헤어져 보육원에서 혼자 살았다고 한다.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였고, 같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던 동생이 국제결혼을 신청한다고 해서 심심해서 따라갔다가 모두 짝지어 나가고 혼자 바보처럼 남아있던 남편이 불쌍해 보여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는 중개소직원의 말에 속아 결혼했다고 한다. 참여자의 남편은 전기검침원으로 일을 하다 아는 지인이 베트남여자와 국제결혼을 했는데 착하고 살림도 잘하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킨다는 말을 듣고 한국에서 장남으로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 국제결혼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두 사람은 국제결혼으로 한국생활은 12년차이고 아들만 셋을 낳았다. 결혼해서 처음 2년은 언어와 음식 등 한국문화를 적응하는 과정이 힘들었고, 첫 임신으로 쌍둥이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 7개월 때 시부모님과 의견 충돌로 분가하게 되어 예정일 보다 빠르게 조산하였다고 한다. 쌍둥이 아들 중 큰아이는 ADHD판정을 받고 거친 말과 각종 문제행동으로 가족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경우가 많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큰 아들 때문에 재혼한 친정 아버지의 새어머니를 한국에 초청해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새어머니는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급여 전부를 송금하고 참여자에게는 숙식비 15만원만 주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기에 참여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양육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참여자 A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아서 불만이고 재정관리를 남편이 도맡아서 하고 있어 생활비카드지출 이외에 단돈 10원도 개인적으로 쓸 수 없어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한다. 남편은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동생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사소한 여행까지도 참여자에게는 여행당일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는 등 습관처럼 참여자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참여자의 문제는 결혼가정에서 자라서 피해의식이 강하고 가족에 대한 결속력과 자식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며 가정교육을 따로 배우지 못하고 보육원의 규율과 규칙 생활이 몸에 밴 듯 집안 정리정돈은 깔끔하게 잘 하지만 어른을 공경하거나 예의를 갖춰 행동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 아이들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연구자의 말에 격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교육방식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한국어가 서툰 엄마를 무시하고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쌍둥이 아들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다. 또한 가정통신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참여자에게 아직도 이런 것 까지 물어보냐며 짜증내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학교선생님에게 심한 욕을 하고 각종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큰 아들 때문에 담임을 찾아가 무릎 꿇고 빌어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다고 했다. 참여자는 통제 불능의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훈육하고 있지만, 너무 커버린 아이들은 참여자의 훈육을 비웃으며 엄마의 잔소리쯤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엄마의 잔소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② 참여자 B는 36살이고, 한국거주 15년차 우즈베키스탄 여성이다. 결혼해서 첫딸을 낳은 참여자의 친정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집살이가 극심했고 참여자가 4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자 할머니는 참여자와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한다. 친가에서 쫓겨난 참여자 모녀는 외할머니 댁으로 가서 살았는데 참여자의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큰 외삼촌의 구박과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참여자를 데리고 집을 나와 다리 한쪽이 없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재혼하여 식모처럼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 자녀들은 참여자 모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매일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어 참여자를 의과대학까지 보낸 참여자 어머니에게 저 여자가 우리 집 돈을 다 쓰고 있다며 매일 참여자를 괴롭혔다고 한다. 결국 참여자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이혼하고 다시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갔지만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 집주인 행세를 했던 큰 외삼촌은 참여자 모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외양간 옆에

있는 허름한 창고에서 살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 떠나라고 했다. 오갈 데가 없던 참여자 모녀는 외양간 옆 창고에 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국제결혼을 신청하였다. 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영어도 잘하고 배려심이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혼을 3일 앞두고 남편이 자신의 머리를 보여주며 대머리라서 싫으면 지금이라도 결혼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돈도 잘 버는 남편을 놓치기 싫어 두 눈 딱 감고 결혼해서 딸 셋을 낳았다고 한다. 결혼 후 2주 동안 시어머니와 한집에 살며 아들 방문 앞에 이불을 깔고 작은 소리에도 방문을 두드리며 ‘내일 출근하는 사람 일찍 재워라’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불편한 간섭과 가난한 나라에서 돈 한 푼 없이 시집왔으니 우유도 사먹지 말고 된장국에 김치만 먹어야 한다는 시집살이는 첫 아이가 딸이고 장애까지 갖고 태어난 후부터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다행히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컸던 큰 형수님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와의 문화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게 되면서 결혼생활에 평화가 찾아왔지만 아들을 갖고 싶어 했던 남편의 바람과는 달리 연달아 2명의 딸을 더 낳으면서 부부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큰딸의 장애를 이슬람교로 극복하고 싶었던 참여자는 남편에게 개종을 강요하였고 남편이 그 뜻을 받아주지 않자 세 딸을 데리고 가출하여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이혼한 아들이 세 딸의 양육비로 매월 90만원을 외국인 며느리에게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시어머니는 인천으로 올라와 손녀딸 셋을 직접 키우겠다고 데려갔지만 아이들을 때려서 멍들게 하고 준비물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학교에서 자주연락을 받게 되자 결국 5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시골로 내려가 버리셨다고 한다. 참여자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종교를 강요한 건 잘못했다고 다시 합쳐서 살자고 빌었으나 시어머니의 반대와 남편의 합의가 없어서 재결합에 실패하고 3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다. 그 뒤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의 소개로 송도에서 자동차사업을 하는 이집트남성을 만나 친해지게 되었고 청혼을 받은 자리에 딸 셋을 데리고 나가서 거절의사를 밝혔지만 이집트남성의 강한 집념과 ‘두 사람만 좋으면 다른 사람의 딸들이라도 자기 자식처럼 키우며 사랑을 주면 된다.’는 이집트어머니의 넓은 배려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하여 전 남편이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현재의 이집트 남편 사이에 낳아 세 딸과 함께 한집에서 잘살고 있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남편과 세 딸들은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면서 걸으려는 관계가 좋은 듯 하지만 딸들의 취향에 관심이 없는 친아빠보다 딸들의 각자 개성을 존중하며 배려심이 많고 다정한 이집트 새 아빠가 딸들과 더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③ 참여자 C는 한국거주 13년차 중국(재중동포)여성이다. 나이는 33세,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남편을 한국에서 만나 2년마다 이사를 다니다 결혼해서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고 지금은 주안에서 살고 있다. 중국 흑룡강성 시골에서 태어난 참여자는 4살 때 부모가 돈을 벌겠다고 대련 도시로 떠났고 조부모 집에서 고모네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고모가 돈을 벌겠다고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서 2년 동안 고모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조부모에게 그 사실을 말했지만 조부모는 참여자를 나무라며 고모부에게 참여자가 아직 철이 없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라며 오히려 고모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다. 참여자는 그 길로 집을 나와 부모님이 있는 대련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참여자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였고 참여자의 엄마는 중국인 남자와 재혼해서 집을 떠나고 없었다. 참여자의 절박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참여자의 아버지는 중학교는 가야 한다며 참여자에게 다시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참여자는 지옥과도 같았던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중학교를 포기하고 홀로 떠돌아다니며 돈을 벌었다. 재중동포였던 할아버지는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 하셨다. 고모는 무능하고 여자 문제가 복잡했던 고모부와 이혼하고 한국에 먼저 나가 귀화를 신청하고 중국인 남성과 재혼한 후 시흥에서 식당을 크게 운영하면서 1990년에는 가족모두의 국적을 한국으로 옮겨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자는 한국에 먼저 나가서 자리를 잡은 어머니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어머니와 재혼한 아저씨의 반대로 어머니와 한집에서 살 수 없었고, 조그만 월세 방을 얻어 휴대폰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혼자 살았다. 참여자가 오랫동안 아르바이트 했던 안산의 휴대폰가게에서는 직원들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차별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남편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다보니 이직을 하게 된 휴대폰가게 직원들 모두 한국 사람이란 편견이 심했다. 싸구려는 죄다 중국산이라며 참여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

리로 놀렸고 참여자가 싸간 도시락을 보면서 더러워서 안 먹고 싶다며 손도 안 댔다고 한다. 가족 모두 한국으로 귀화한 참여자의 가족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지만 결혼이나 재혼 상대는 조선족이나 한족의 중국남성이었다. 참여자가 경험했던 성장과정은 참여자의 한국생활적응 과정에서 그대로 녹아들고 있었다. 4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고 할아버지 집에서 상처와 폭력의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 잡으며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참여자는 자신의 딸들은 엄마처럼 기죽거나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어른들의 폭력에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다. 참여자의 경우처럼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심하고 항상 눈치를 살피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들으며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은데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붙잡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해 본적 없었고 마음이 병들어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하소연 할 곳도 없었던 참여자에게 날아든 자살예방센터의 문자메시지는 한줄기 희망이 되었다고 한다.

④ 참여자 D의 나이는 57살이고, 이름은 기요미, 국제결혼 26년차의 일본여성이다. 초등학교 시절 2년간 농구선수를 했고, 청소년 때는 육상선수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운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가네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케이스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한다. 생활력이 강했던 부모님은 장녀인 참여자에게 동생들을 맡기고 일터에 나가셨고, 참여자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보며 희생했지만 부모님은 장녀인 참여자에게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하면서 두 동생들은 대학을 보냈다고 한다. 참여자는 전문대라도 나온 동생들과 자신의 학력을 비교하며 부모님을 원망했고, 가네보를 그만두고 7년 동안 일하며 모았던 돈을 모두 찾아 자가용을 구입하고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구입하며 모두 써버렸다고 했다. 돈이 떨어진 후에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회계사무실에서 보조 일을 하다 통일교에서 주선한 국제결혼에 참여하면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하고 뒤늦게 얻은 아들 둘과 그 뒤로 10년이 넘는 뒤에 어렵게 가진 딸아이를 통해 세상의 행복을 모두 가진 듯 기뻐했지만 소중한 딸이 거식증과 결벽증으로 등교를 거부

하며 코로나를 핑계로 집안에서도 비닐장갑을 끼고 생활하고 가족들과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한 채 1년째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자의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딱 한번 찾아간 통일교에서 참여자를 만나 결혼하긴 했지만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과학자가 꿈이었던 남편은 정부보조금 7억을 지원받아 ‘연료저감장치’를 개발하였으나 대기업의 횡포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환갑이 넘도록 미혼으로 혼자 사는 세 명의 친형들을 데려다 숙식을 제공하며 ‘저감장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아 기술을 계속 개발 하고 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빚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개발 유전자를 물려받은 큰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컴퓨터게임을 개발해서 통장에 수 천만 원의 돈이 입금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군에 입대한 후 게임개발에 흥미를 잃고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해서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다 게임에 빠져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

⑤ 참여자 E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다. 나이는 21살이고, 이름은 OO투짱으로 베트남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연세가 많은 부모님과 나이차가 13살, 9살이나 벌어진 두 명의 오빠와 한 집에서 살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학창 시절 친구를 단 한명도 사귀지 못했다고 한다.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고 빅뱅의 지 드레곤이 있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 결혼중개업소에 국제결혼을 신청하여 47세인 남편을 만나 2020년에 결혼하고, 현재는 3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한국거주 1년 동안 여덟 번의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세 번 정도 실려 갔고, 다문화센터에 함께 다녔던 참여자 A의 도움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상담도 여러 번 받아 봤지만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고 아이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형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⑥ 참여자 F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다. 한국 거주기간은 9년이고 나이는 33세, 이름은 김OO으로 개명하였다. 현재 인력사무소에서 인력배치와 통역을 하

며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친정 부모님 모두 호치민에서 지방공무원이었던 참여자는 외동딸로 자랐고, 베트남에서 상류층의 부유한 유년시절을 거쳐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두산건설에 입사해 근무하다 베트남에 파견 나온 GS건설설계직원이었던 남편을 만나 연애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자녀는 9살과 4살의 아들만 둘이고, 한국말이 서툰 엄마를 무시하는 큰 아들 때문에 엄마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한국에서 살기 싫고 기회만 되면 베트남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부모님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2명의 시누이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은 비교적 만족스럽지만 엄마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큰 아들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베트남 가족과 친구들과는 sns를 통해 매일 연락하며 소식을 전하고 있고, 시차의 차가 크지 않아 무료수신통화도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2년째 베트남 부모님을 한국에 모셔와 코로나를 핑계로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⑦ 참여자 G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다. 나이는 28살이고 이름은 ‘OOO안린’ 베트남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어린 시절 호치민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뇌 전문 의사였던 어머니의 장녀로 사랑받으며 성장했고, 결혼하기 전까지 고등학생인 남동생과 유치원에 다니는 남동생 두 명과 한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장녀였던 참여자는 스트레스가 많은 어머니의 직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막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지 않아 간호전문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간호사로 일을 했다. 한 달에 50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고 한다. 평소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컸던 참여자는 돈이 많은 한국남자를 만나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국제결혼을 신청하였다. 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53세의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생활 4년차에 12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청소와 빨래, 설거지 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싫다는 참여자는 어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핸드폰 만드는 공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가정살림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간부로 돈도 잘 버는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와 집안 청소

와 빨래, 음식 만드는 일을 도맡아 했고 참여자는 딸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며 남편의 잔소리에 귀를 닫고 있었다. 둘째를 갖고 싶었던 참여자는 남편에게 여러 번 의사를 표현했지만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았고 참여자의 청결상태를 문제 삼으며 매일 다투는 일이 많아져 현재는 심각한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적 삶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은 자기성찰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를 통해 문화적응의 형성과 실천에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내러티브 연구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로서 참여자와 연구자 모두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고 재형성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기회는 결국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확립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과정의 태도나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1. 자료수집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경험을 탐색하고,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과정은 어떠한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문화사회인 한국사회에서 문화적응과 다문화상담은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가 주도적으로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담초기에 형성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합의(goals)는 따뜻하고 수용적인 상태로 이루어졌고, 면담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 과제(tasks)에 대한 합의는 면담과정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정서적 유대감(band) 형성에 유의하여 계획을 세웠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일관성 있는 면담이 이루어지기 위해 면담 전 질문 범주를 구분하여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작성된 질문지의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도교수님의 자문을 받았고, 질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면담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면담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게 변형하였고,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해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라는 연구의 특성상 연구참여자가 면담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연구자의 질문 내용이 이야기의 방향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연구참여자의 기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질문에 신중함을 기하였다.

심층면담의 큰 틀은 Bandura(1997)에서 제시한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측정 질문항목과 ‘2021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참조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 사회생활과 자녀양육 등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한 질문들을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술면담의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다문화상담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내러티브 탐구 회기별 목표와 활동내용은 다음 <표 III-2>와 같고, 반 구조화 질문에 대한 범주는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2> 내러티브 탐구 회기별 목표 및 활동내용

회기	목표	활동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적응의 의미를 바라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장을 풀기 위해 차를 마시며 인사 나누기 자기 소개하기 내러티브 탐구의 목표 및 진행과정 이해하기 소감나누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국에서의 삶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자신의 성장 과정이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밀한 관례를 위해 차를 마시며 인사 나누기 한국에서 문화적응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해 모국에서 성장과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모국에서의 성장과정을 유년기, 청년기, 연애기로 나눠 정리하고, 국제결혼 선택 계기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과거의 경험을 긍정적 표현으로 승화시켜 소감 나누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혼 선택 후 변화된 삶 인식하기 문화적응의 어려움 이해하고 수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를 마시며 인사나누기 국제결혼과 문화적응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문화적응에 대한 자신의 강점 찾기 문화적응에 대한 약점을 찾고 강점으로 바꿔 말하기 문화적응과정에서 발견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을 새롭게 소개하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응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고,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고 익히기 문화적응 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 강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를 마시며 감사한 일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문화적응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살필 수 있는 방법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을 보살피는 방법으로 규칙적인 운동 마음을 보살피는 방법으로 명상, 긍정적 사고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만의 대처방법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문제들을 찾고, 자신에게 적절한 대처방법 찾아 익히기(부부관계, 시댁과 갈등, 자녀문제)등 한 발 물러서서 숨고르기, 역지사지, 긴장 이완방법) 문화적응 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 강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정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강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찾기(메모지에 자신을 그리고, 칭찬, 격려, 충고 등으로 자신을 강화하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삶을 희망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을 찾고 목표를 구체화하기 현재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상담의 전체적인 만족도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를 마시며 자녀와의 사랑의 대화법 점검하기 소중한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장점 3가지 찾기 삶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야기 나누기 상담을 받고 난 후 심리변화에 대해 소감 나누기 삶의 의미와 목표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문화적응과정 점검하기(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힘들었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삶의 의미 발견하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이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피드백나누기

〈표 III-3〉 반 구조화된 질문지

범주	세부 내용
개인적 특성 및 성장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에서의 가족관계는? - 모국에서의 친구관계는? - 모국에서의 사회생활 경험은? - 모국에서의 경제적 상황은?
결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현재 한국 남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의 남편과 결혼생활 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현재의 남편과 결혼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자녀양육과 관계에서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자녀양육과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경제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생활에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직장생활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 경제적으로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문화정착화 와 한국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만족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가장 만족했던 문화생활 및 취미가 무엇입니까? - 가장 힘들었던 문화생활 및 취미가 무엇입니까? - 한국생활에서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해당 질문은 큰 틀에서의 문화적응경험에 중점을 두고 기획하였다. 구체적인 면담의 진행은 질문지의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참여자가 주도하는 방식을 따랐다. 다만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거나 연구자의 질문내용이 이야기의 방향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문의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다. 질문의 범주를 벗어 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 함을 기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6월 16일부터 2021년 11월 10일까지 연 구참여자별 5회기 면담을 끝으로 6개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에서 면담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면담 전

에 전화 통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어가며 라포를 형성하고 면담 시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녀의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참여자 A, B, C, D의 경우 아동복지관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던 10회기 상담 중 5회기를 심층면담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참여자 A의 소개로 연결된 참여자 E, F, G의 경우 참여자들의 각 가정이나 인근 카페에서 3회기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복지관에 내방한 참여자들의 경우 매주 정해진 시간에 1시간 면담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 A로부터 소개받은 가정방문면담 참여자들의 경우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 심층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너무 늦거나 이른 시간을 피하였으며, 면담도중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아동복지관 상담실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연구참여자의 자택근처 카페나 독립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식당을 대여하여 소음이 적고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였다. 면담을 진행하기 전 연구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만일의 상황을 고려하여 휴대폰과 노트북을 동시에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참여자의 감정변화에 따른 표정이나 행동 등을 별도로 메모하여 자료수집에 첨부하였다. 면담완료 후 녹취된 내용은 당일 넘기지 않고 전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참여자의 목소리가 불분명하거나 놓친 질문은 다음회기 면담 시 추가 질문을 통해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반복청취 하여 주제에 맞게 보완작업 하였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참여자의 집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나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수집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며 문헌연구로 얻은 자료와 함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문헌연구로는 주제와 관련한 신문기사, 웹사이트,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월간지 등을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전사와 분석은 일정비교분석을 활용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Merriam, 1998). 일정비교분석은 연구자가 면담, 현장일지나 기타 문서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비교하여, 일시적인 특정한 범주를 형성하고 범주들이 속해있는 영역을 구성하고, 어떤 이론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주와 영역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분석 방법을 말한다(Merriam, 1998). 수집된 심층면담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음기와 핸드폰을 동시에 작동하여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은 파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전사를 통해 녹취서로 문서화하였다. 면담이 종료된 후 인터뷰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메모하고 연구참여자가 말한 문화적응경험에 대한 의미를 상기하며 인터뷰 당일을 넘기지 않고 연구자 노트에 기록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최소 5회 이상 반복 청취를 통해 전사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녹취서로 만들어 연구자 노트에 기록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를 취합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기록하였다. 전사도중 연구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말끝이 흐려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재 방문상담 시 다시 질문을 하거나 연구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전화나 문자를 통해 확인 작업을 마쳤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면담기록은 초기면접 일지에 기록하여 전사한 녹취서와 함께 보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자료의 준비는 연구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단독보관 하였다. 면담초기에 형성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면담목표에 대한 합의와 면담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 과제(tasks)에 대한 합의는 따뜻하고 수용적이며 면담과정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유의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주 호소문제, 기본적 인적사항, 심리검사결과 등은 복지관 상담일지에 별도 보관하였다.

3.2. 자료분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심리적, 정서적 갈등과 어려움들을 공감과 수용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다문화상담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자료를 세분화하지 않고 이야기 전체를 맥락적으로 이해하여, 각각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Ezzy, 2002). 이와 같은 방법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시간의 연속성과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자는 말해진 이야기에 표현된 경험을 가지고 탐구를 시작한다(Clandinin & Connelly, 2007). 내러티브 공간에서 경험의 3차원을 사고하는 것은 다문화상담에서 내담자를 또 하나의 상담자로 보

는 것과 유사하고, 상담자의 훈련과정이 중요하듯 내러티브 탐구자의 훈련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내러티브 연구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세분화하여 이해하기보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개인별의 이야기의 의미를 분석하는 특징이 있다.

클라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4)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있을 때 그들의 행동과 이야기에 대한 진정성을 공감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내러티브 연구는 단순히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에서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클라디닌(Clandinin, 2015)은 내러티브는 분석과 재현을 위한 단순한 장치가 아니므로 내러티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경험들을 내러티브 탐구의 시작을 위한 핵심이라고 하였다. 또한 내러티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연구의 퍼즐을 형성하고, 연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며, 연구 텍스트를 형성하기까지 전 과정이 연구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인터뷰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반응에 따라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는 순환 인터뷰 기법(circular questioning)을 활용하였다. 순환 인터뷰 기법은 사전에 기본적인 질문은 준비하지만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질문의 내용이나 순서를 조정하여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구수연, 2010).

시드만(Seidman, 2006)은 질적연구에서 면접 자료는 많은 양의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질적연구의 여러 갈래와 접근방법들, 수많은 단어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을 향하여 귀납적으로 텍스트의 양을 줄여나간다고 하였다. 또한 클라디닌(Clandinin, 2015)은 연구질문에서 퍼즐로의 전환은 내러티브탐구가 다른 연구방법들과 확연히 다름을 밝히고, 연구방법에 연구주제와 관련된 경험과 그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연구 퍼즐을 생성하는 과정은 질적연구자마다 각 단계에 대한 명칭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질적 분석방법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분석의 4단계를 설계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퍼즐 형성하기 단계는 연구의 주제를 초점화 하고 선행연구를 검

토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경험과 그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연구피즐을 생성하는 과정을 돕는다. 본 연구의 피즐을 구성하는 절차는 연구자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문화상담가로서의 역할 정체성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화 되었을 때, 다문화사회로의 시대적 변화에 연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구상되었다. 한 가정의 태양이고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편견과 가난한 나라에서 나이 많은 남자에게 팔려왔다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다문화상담이 결혼이주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전체 구성원과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워서 연구 피즐을 마련하였다.

둘째, 연구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단계는 연구자가 상담자라는 개인적인 삶의 한가운데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만나 시간과 공간, 장소를 공유하며,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클라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7)는 내러티브에 동참하고 전경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연구자는 거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빠져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21년부터 내러티브 탐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참여자의 삶에 공감과 이해의 과정으로 연구 한가운데로 들어갔으며, 내러티브 탐구의 심층적 분석을 준비하기 위한 자전적 글쓰기 과정을 무한반복하며, 연구의 현장에서 숙고의 시간을 통해 존재하였다.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 글쓰기는 상담가로서의 경험과 정체성 형성과정을 정리하고,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탐구하고 분석해 변화시킬 수 있는지 미리 계획하였다.

셋째, 현장 텍스트 구성단계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관계하면서 면담, 전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모았고, 모집된 자료는 점검과 추가 모집을 통해 어떤 위치의 현장텍스트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과는 2021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5회기 면담을 실시하였고, 다수의 전화통화와 문자를 활용하여 소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모든 면담은 녹음된다는 사실을 공지하였고,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해 녹취한 후 전사하여 반복적으로 점검하였다.

클라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7)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

에 현장 텍스트 의미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연구 텍스트에 형태를 갖춘다고 하였다. 즉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단순한 이야기의 전개만이 아닌 이야기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인위적으로 구성된 현장 텍스트는 협력적이고, 해석적이며, 연구자의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 대한 어려움에 공감하였지만 연구자로서 연구자의 생각을 공유하되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전개가 자유로운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방해하지 않았다.

넷째,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단계는 현장텍스트 속에 있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를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에 위치한 존재로 기술하는 것이다. 기술된 연구텍스트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와 선배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받는 과정을 통해 연구텍스트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의 텍스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현장 텍스트를 찾아 이해하며 연대기적으로 요약하였고, 수집된 현장텍스트가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와 현재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 다문화상담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글쓰기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의 대가인 지도교수와 학문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교수, 동료연구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연구 텍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쳤다.

클라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7)는 현장 텍스트를 연구 텍스트로 만드는 과정은 사회적 의미에 대한 대답이고, 연구 텍스트는 현장 텍스트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계속되는 질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이렇듯 내러티브 탐구는 참여자를 만나고, 이야기 듣기를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전 과정을 통해 관계적인 책임과 윤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고, 연구를 읽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 사이에서 연구자의 목소리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4. 연구의 윤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인간의 경험을 내러티브로 탐구하는 질적연구방법의 참여자들로 사적인 경험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연구의 특성상 윤리적인 문제를 엄격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경험을 세밀하게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그들의 이야기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 진행하였고, 참여자와의 관계형성을 돈독히 하여 연구참여자의 삶의 경험이 정확하고 진솔하며, 편견이 없도록 신중하게 기록하였다.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사적인 경험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질적연구이므로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감수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공지하였고 자발적 참여와 동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익명성을 강조하였다. 동의서의 내용에는 연구자의 신분과 연구의 목적 및 연구계획이 포함되었고 녹음된 인터뷰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참여자가 연구진행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즉시 철회하고, 연구된 자료는 모두 폐기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질을 높이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메리엄(Merriam, 1998)의 전략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은 첫째, 다수의 자료원과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수의 방법을 사용하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이다. 둘째, 연구 대상자확인법(member check)은 연구를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견해를 물어 연구의 정확성을 확립하는 방법이다. 셋째, 수행하고 있는 연구주제의 질적연구방법론,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식견이 있고 연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동료 2-3명을 선정하여 연구 분석 자료와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동료검토법(peer examination)을 사용하였다(유기웅 외, 2013).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연구윤리는 자유로운 동의,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 참여자 보호의 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의 윤리적 관계에 집중하고(Clandinin, 2012), 윤리적 고려는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Connelly & Clandinin, 2006).

메이슨(Mason, 1996:22)에 의하면, 질적연구자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부터 가치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고 초연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수행과정에서 자신들을 행동과 역할을 부단히 점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웹스터와 메르토티바(Webster & Mertova, 2007)는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확실하고 믿을 만 하게 기록되었는지에 따라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잘 해결되도록 해피엔딩을 제공하기 위해 왜곡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비판받는다고 하였다(장은정, 2020). 때문에 동료검증은 1인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 대한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동료연구자를 감시기제로 활용하는 것으로 1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김영천, 2016). 구술면담을 실시할 때 개인사가 노출되고 그의 일상적 삶의 세밀한 부분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보호, 양심의 자유보장, 상호신뢰의 약속 보장 및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성 보장 등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였다(Reynolds, 1979). 특히 연구참여자의 선정과정과 면접에 집중하고, 연구과정 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참여자에게 공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 면접내용의 녹취여부, 참여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확인으로 연구참여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인체유래물 및 5개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연구대상자의 존엄성 및 권리와 안전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승인을 받았으며 승인 번호는 201005-3AR이다. 수집된 연구참여자들의 면담내용 및 개인정보 등은 반드시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연구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기록은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상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철저한 비밀유지로 관리하였다. 또한 면담자료로 녹취된 파일과 전사된 기록들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적 시행 규칙에 따라 그 이후에는 폐기하며, 연구 중단 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입회하에 그 즉시 폐기하는 것을 원

칙으로 삼았다.¹²⁾

내러티브 연구는 관계적 형태의 연구방법이다. 클라딘(Clandinin, 2007)은 내러티브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관계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 문제는 배가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러티브 연구는 연구자만의 관점에서의 일방적인 연구가 아닌 연구참여자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이 명료화해지도록 연구진행 과정동안 내러티브 현장에서 본 연구를 소개하고 안내하였다. 또한 질적연구방법 내에서 내러티브 연구방법 이외의 근거이론과 사례연구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진행한 선배 연구자 3인에게 본 연구의 효과성을 검증받았다.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에게 인터뷰 텍스트에 기술된 표현이나 내용이 거슬리거나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절차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12)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승인을 받았으며, 승인 번호는 201005-3AR이다.

IV.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1. 주체적인 문화적응

주체적인 문화적응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과 편견, 고립된 환경 속에 부적응 문제로 불행하게 살 거라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단순한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가 아닌 다양한 삶의 적응방법을 전략적으로 구사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 주체적인 문화적응 경험

분석범주	문화적응 경험
종교와 사랑으로 다시 만든 삶 (연구참여자 B)	① 호랑이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편 ② 시집살이가 힘들어 죽음까지 생각했던 시간 ③ 가난한 나라에서 온 며느리의 서러움 ④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시어머니 ⑤ 이슬람을 거부한 남편이 미워 세 딸을 데리고 가출 ⑥ 남편과 이혼 이후 이집트 남자와의 만남 ⑦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배려로 탄생한 새로운 가정
불행을 딛고 일어난 희망의 불씨 (연구참여자 C)	① 고모 딸을 부러워했던 어린 시절의 나 ②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 ③ 중국인에게 차별이 심하지 않은 나의 보금자리 안산 ④ 불법체류자 신분의 중국인 남자와의 결혼 ⑤ 나는 이제 중국인이 아니라 온전한 한국인 ⑥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키우고 싶은 나의 자식들 ⑦ 혼란과 좌절 속에서 피어난 용기

1.1. 종교와 사랑으로 다시 만든 삶

연구참여자 B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다시

올렸다고 했다. 참여자가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과 착하고 예쁘게 생겨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고, 참여자의 남편이 참여자를 선택한 이유는 아빠 없이 힘들게 살았고, 엄마 혼자서 참여자를 키웠으니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참여자가 한국에서 결혼한 건 2007년이었고, 결혼에 대한 모든 준비는 참여자의 남편이 다 알아서 준비했다고 한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도 월급이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참여자가 고향을 떠나 한국결혼을 선택한 이유에 금전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난한 나라에서 돈 한 푼 없이 시집왔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의 무서운 얼굴이 참여자의 눈에는 호랑이 처럼 느껴졌고, 어머니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참여자의 남편이 야속하게만 보였을 것이다.

① 호랑이 첫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편

“처음 결혼하고 17평 아파트에서 시동생과 시어머니까지 네 식구가 살았어요. 남편은 시청공무원이었는데 재산이 많지 않았는지 작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까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술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무섭게 생겼고 남편이 출근하면 하루 종일 마늘과 생강 까는 일을 저에게 시켰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아침, 저녁으로 빵만 먹는데 시어머니는 된장국에 김치만 먹으라고 했어요. 돈이 없다며 우유도 못 사 먹게 하셨어요. 샤워도 자주 못하게 하셨고, 샤워도중 보일러를 꺼버려 찬물로 목욕하는 일이 많았어요.” (2021. 9. 15. 인터뷰)

참여자의 시어머니는 가난한 외국인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술병에 걸린 남편을 일찍 저세상으로 보내고, 홀로 삼형제를 키우며 공무원까지 만들었으니 자식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 돈 한 푼 없이 시집온 며느리가 마땅치 않았고, 김치 냄새에 코를 막고 한국 음식을 거부하며, 삼시 세끼 라면만 먹는 며느리가 예뻐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다. 참여자는 신혼생활을 즐기며 남편과 한국문화도 체험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호랑이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루종일 마늘만 까게 하면서 반찬은 김치만 먹으라고 했으니 외국인 며느리가 참고 견디

기엔 힘든 한국문화였을 것이다. 더욱이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봤던 참여자의 남편은 어머니의 말에 단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았고, 매일 밤 방문 앞을 지키며 일찍 자라고 재촉하는 어머니 때문에 신혼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었다고 한다.

② 시집살이가 힘들어 죽음까지 생각했던 시간

“시어머니는 남편이랑 저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셨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 허락 없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 남자였고, 친구도 없는지 쉬는 날에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신혼 초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치고 화를 내시는데 내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니까 저도 너무 답답하고, 시어머니도 답답해서 못살겠다고 남편에게 저를 집에 돌려보내버리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면 우리 엄마처럼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동네사람들이 저를 놀렸을 거예요. 창고에서 살기 싫어 국제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 쫓겨나면 다시 창고로 돌아가야 해요.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죽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 떨어져 죽으려고 했어요.”(2021. 9. 15. 인터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삼형제를 키우며 힘들게 사셨던 참여자의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특히 큰 아들과 큰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남달랐고, 집안의 모든 일은 큰 아들이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한다. 반면 둘째아들이었던 참여자의 남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어머니의 허락 없이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마마보이었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 한 푼 없이 시집와서 딸만 셋을 낳았다는 이유로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라고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 앞에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 숙이는 참여자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만 보던 남편을 보면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한국에서의 삶을 비관했다.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난 친정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 허름한 창고에서 숨어 살았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삶은 어린 참여자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다. 친정어머니의 삶을 닮아가는 참여자는 자신도 아들을 낳지 못해 시댁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세 딸을 데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에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수차례 산에 올라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③ 가난한 나라에서 온 며느리의 서러움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돈도 없이 결혼해서 왔다고 결혼하고 저를 우즈베키스탄으로 돌려 보내버리라고 매일 저희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쫓아다니며 귀찮게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마마보이라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저희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 시어머님은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가장 아끼고 좋아하셨어요. 항상 된장국에 김치만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맛있는 한국음식을 먹을 때가 있는데 큰며느리가 음식솜씨가 좋았어요. 남편의 큰형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챙겨주는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큰형수님에게는 힘든 마음을 이야기 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큰형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갑자기 짐을 싸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 뒤로 남편이 계양구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시동생과도 떨어져 새로운 신혼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2021. 9. 15. 인터뷰)

참여자의 시어머니는 홀로 자식들을 키우느라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고, 어린 삼형제는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삼형제 모두 음식 솜씨가 좋았다고 한다.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결혼생활을 시작한 참여자는 남편이 어려서부터 갈고 닦은 음식 솜씨를 자랑하며 만들어준 잡채와 불고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고, 역겹기만 했던 김치와 된장국도 남편에게 배워 이젠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고 했다. 참여자는 신혼집에서 큰딸을 낳고 2년 정도 살다가 국가에서 제공한 공무원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둘째와 셋째 딸을 낳은 후에 첫째 딸의 다리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일명 코끼리 다리라는 병인데 한쪽 다리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희귀병이라고 한다. 참여자의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참여자가 밋고 싫었는데 큰 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니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미움과 편견이 더욱 심해졌고, 아들을 낳은 큰며느리와 막내며느리를 참여자와 편애하며 참여자에 대한 못마땅한 심정을 차별적인 대우와 잔소리로 표현하셨다고 한다.

④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시어머니

“2008년에 큰딸을 낳았을 때 아들손자를 바라셨던 시어머니는 병원에도 한번

오지 않으셨어요. 그 뒤로 둘째와 셋째까지 계속해서 딸을 낳으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더 많이 미워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했을 때 막내 도련님 와이프도 임신을 했었는데. 추석이나 설날에 모이면 막내동서한테만 ‘이거 먹어, 더 먹어, 예쁜 거 먹어, 그래야 예쁜 아기 낳아’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먹어보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밥 먹을 때도 막내동서가 낳은 아들손자만 안아 주시고 제 딸이 안아달라고 하면 ‘응 그래’하시며 그냥 옆에 앉히셨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돈 한푼 없이 시집온 며느리가 아들도 못 낳고 딸만 셋을 낳았으니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아들손자가 아니라고 차별받는 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어머님을 원망했어요.” (2021. 9. 15. 인터뷰)

참여자의 친정어머니 경우도 1990년대에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났던 경험이 있다. 참여자는 그런 어머니의 삶을 가까이 지켜보며 자신은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선택한 길이 국제결혼이었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의 뿌리가 더 깊었던 한국의 시어머니는 딸만 셋을 낳은 참여자를 곱게 봐주지 않았고, 아들을 낳은 큰 며느리와 막내며느리만 예뻐하며 참여자에게 참기 힘든 차별적 대우와 수모를 주었다고 한다. 참여자는 자신도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딸만 셋을 낳은 참여자는 시어머니의 차별적인 대우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고, 장애가 있는 큰 딸의 아픈 다리를 치유하기 위해 이슬람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른 뒤에 참여자의 남편은 이슬람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했었지만 추석이나 설 명절에 절을 하지 않는 며느리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까지 이슬람교로 끌어들이는 참여자가 밋고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처음에는 참여자 혼자 몰래 믿었지만 결국 남편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면서 부부관계가 멀어졌고,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한 적 없던 남편이 개종을 반대하자 참여자는 딸 셋을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다고 한다.

남아선호사상은 인류가 문명을 갖기 전부터 존재한 관념이다. 노동력에 도움을 주던 남성의 신체적 특성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겼고,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문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면서, 남존여비라는 시대착오적인 사상과 예법이 성차별을 정당화하였다. 1990년 한국의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까지 치솟았고, 첫째 아기의 출생 성비는 108.5인 반면 셋째 아기의 출생

성비는 189.5로 성별을 가려 낳았다는 강력한 방증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비 인플레이는 저출생 추세로 약화되기 시작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연 성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세계에서 남아 선호 경향이 강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대만, 홍콩, 아제르바이잔 등 아시아지역 12개국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성별선택에 의한 낙태로 2300만~4600만 명의 여자아기가 태어나지도 못한 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겨레, 2021.8.11.일자).

⑤ 이슬람을 거부한 남편이 미워 세 딸을 데리고 가출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남편이 이슬람으로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제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참고 살았어야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살았어야 했는데 첫딸의 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이슬람을 거부하는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워 딸 셋을 모두 데리고 제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낯선 한국 땅에서 외국인 엄마가 세 딸을 혼자 키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힘든 일인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다행히 2009년에 초청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모으셨던 친정엄마가 15만 원짜리 월세를 얻어주셨고 근처에 살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이슬람을 강요하고 집을 나간 건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후회돼요” (2021. 9. 15. 인터뷰)

참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참여자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이들이 아프면 알아서 하고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며 재혼한다고 했다. 남편의 재혼소식이 참여자에게는 충격이었고, 세 아이의 양육비로 급여의 반을 지급해야 하는 남편과 재혼하겠다는 여자가 있을까? 라는 의심도 했지만 만약 남편이 정말 재혼을 하게 되면 나 혼자 세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라는 걱정이 앞섰다고 했다. 참여자는 자신이 성급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건 자신의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편을 찾아가 두 손 모아 빌며 아이들을 혼자 키우기 힘들니 다시 합쳐서 살고 싶다고 했다. 참여자의 진심을 받아들인 남편은 동인천에 전세방을 얻어 재결합을 준비했지만 시어머니의 강한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참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전셋집 계약을 취소했다고 한다.

⑥ 남편과 이혼 이후 이집트 남자와의 만남

“아이가 3명이나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친구 남편이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싫다고 말했는데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말해서 만나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혹시 아이들 아빠와 다시 합칠 수 있을까 봐 다시 합칠 생각이 있으면 기다려 주겠다고 했는데 아이들 아빠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랑 같이 못산다고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뒤로 우즈베키스탄 친구에게 아랍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2021. 9. 15. 인터뷰)

참여자는 남편과 이혼하고 3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살았는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이혼한 후 아랍 남자를 만나 재혼한 우즈베키스탄 친구의 소개로 이집트 남성인 현재의 남편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참여자의 이집트 남편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었고, 외제차를 판매하는 직업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딸이 셋이나 딸린 것을 알면 자신을 포기할거라 생각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 딸 셋을 모두 데리고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집트 남성은 오히려 딸 셋을 너무나 사랑스런 얼굴로 바라보았고, 자신이 아이들을 함께 키워주겠다고 결혼하자고 했다고 한다. 참여자는 이집트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죄송한 일이라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집트 남편은 참여자를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누나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고, 한 달 동안 전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이집트에 다녀왔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는 앞으로 아이들 셋은 자신이 키우겠다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아이들을 돌봐준 5개월 동안 아이들을 때리고 멍들게 하시더니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며 시골로 내려가 버렸다. 그 뒤로 전남편이 보육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몇 달간 데리고 살았는데 남편도 도저히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를 120만 원으로 올려줄 테니 데려가라고 했다고 한다.

⑦ 자애로운 이집트시어머니의 배려로 탄생한 새로운 가정

“이집트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되실 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착하셔서 반대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들만 좋으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된

다. 어차피 아가씨와 결혼한다고 해도 마음이 안 맞으면 혼자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아들인데 내 생각이 뭐가 중요 하나'라고 하셔서 그 동안 망설였던 재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2021. 9. 15. 인터뷰)

참여자는 이집트의 시어머니를 만나고 온 후 재혼을 결심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는 참여자를 며느리로 흔쾌히 받아들인 시어머니의 마음이 고맙고 감사해서 이집트에 다녀온 뒤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내가 낳은 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각오에 공감해준 이집트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그렇게 낳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아들까지 낳아 글로벌 대가족으로 살고 있다. 한국과 이집트의 문화가 다른 배경도 있겠지만, 참여자의 경우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이집트의 문화가 고맙고 감사했을 것이다.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 이집트문화의 배경을 보면 아라비아반도에서 이슬람이 발흥하고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무슬림 남성들이 사망하였고, 과부와 고아들이 급증했다. 당시 가장을 잃은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장의 죽음이 가족들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사도 무함마드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일부다처제'를 시행함으로써 당시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책'의 사회적 방식으로 일부다처제를 시행했다. 현대에 와서는 부자들이 일부다처제를 누리고 있지만, 이슬람권 국가들은 이혼을 허용하지만, 예언자 모하마드가 '할랄(종교적으로 허용된 것) 중에 알라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혼이다' 라고 언급한 탓에 이혼보다는 다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연합뉴스, 2019.3.3.일자).

1.2. 불행을 딛고 일어난 희망의 불씨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의 고모가 한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동안 고모의 남편은 변변한 직업도 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 한국에서 잠시 들어온 고모와 싸우고 이혼을 할 때도 고모의 남편은 참여자의 가족들을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며 자신

의 딸도 필요 없으니 다 떠나라고 했다고 한다. 고모 딸은 그때 그 충격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결별하고, 고모를 따라 일찍 한국에 나가서 대학까지 졸업했고, 고모도 새로 재혼한 한족 아저씨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다.

① 고모 딸을 부러워했던 어린 시절의 나

“모든 가족들이 한국에 귀화할 수 있도록 손을 쓴 사람이 고모예요. 고모는 시흥에서 한족아저씨와 재혼해서 식당을 운영하며 부자로 잘살고 있어요...중략...할아버지 할머니는 고모 딸과 먼저 한국에 나갔고, 저는 엄마가 초청장을 보내 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고모는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고 의지했고, 고모가 잘하니까 고모 딸도 어른들이 예뻐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걱정을 많이 드렸고, 이혼까지 했으니 어른들이 저를 예뻐하지 않았고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집에 살면서 제가 고모 딸을 얼마나 많이 부러워했는지 우리 부모님은 알까요?” (2021. 11. 17. 인터뷰)

참여자는 흑룡 강성 목단강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아버지를 낳았고 참여자의 어머니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조선족으로 흑룡 강성에 살았기 때문에 중매결혼을 통해 결혼해서 참여자를 낳았다고 한다. 큰아들이었던 참여자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뜻을 잘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고, 똑똑하고 생활력이 강한 고모는 딸과 남편을 친정에 맡기고 한국에 나가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

참여자의 부모님은 돈을 벌기 위해 참여자가 4살 때 동네 큰어머니에게 참여자를 맡기고 대도시 대련으로 나갔고, 참여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 하셨다. 큰어머니 집에서 할아버지 집으로 떠돌아다니며 성장했던 참여자는 어른들의 강압적인 폭행과 이기심에 짓밟혀 집을 뛰쳐나갔고,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흑룡 강성에서 대련까지 부모를 찾아 길을 나섰지만 부모님은 이미 이혼한 상태로 어머니는 중국인 남성과 재혼해서 한국으로 떠나고 없었다. 고모 딸을 부러워했던 어린 시절이 상처로 남아 참여자의 삶을 괴롭히고 있었다. 다른 남자와 재혼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엄마처럼 자식을 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지만 세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을 때면 모두 버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수차례 자살을 결심했다고 한다.

②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

“저희 엄마는 고양시에서 한족 아저씨랑 재혼해서 살고 있어요.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모 집에서 살고 있다가 할아버지는 제 큰딸이 6개월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작은 엄마랑 아이들 돌봐주면서 살고 계세요. 한국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가끔씩 볼 때가 있었는데 그냥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얼마 못사실 것 같아서 그냥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가끔씩 불쑥불쑥 통명스럽게 말대꾸했던 것이 지금은 후회가 돼요.” (2021. 11. 17. 인터뷰)

참여자가 가족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참여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해야 했던 부모님과 조부모님이라 더욱 그렇다. 참여자를 방치하고 믿어주지 않았던 가족을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부모와 가족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용서는 참여자 개인의 선택이며 자신의 감정이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용서는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여자 자신을 위해서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 용서는 가족들이 만든 상처를 버리고 더 이상 가족들이 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용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다. 용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를 떠올리면 온갖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때 느껴지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 학대는 참여자의 잘못이 아니며 어른들의 학대로 인해 참여자가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족들의 학대로 인해 자신의 삶의 일부를 잃었다고 느끼거나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자신을 먼저 바꾸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부터 해야 한다.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것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 사로잡혀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이혼

하셨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할아버지와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어도 적어도 부모님을 용서하기 위해 참여자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하면 된다.

③ 중국인에게 차별이 심하지 않은 나의 보금자리 안산

“제가 먼저 한국에 나왔고 아버지는 대륜에서 조금 더 일을 하시다 한국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가실 곳이 없어서 제가 조금 모시고 살았어요. 돈은 제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하면서 벌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맨 처음 살았던 곳은 안산인데 중국사람들이 90% 이상 살고 있어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직장도 안산에서만 계속 일했으니까 다른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2021. 11. 17. 인터뷰)

참여자의 어머니는 재혼했고, 참여자와 함께 살 수 없었다. 안산에 작은 월세 방을 얻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혼자 살기 시작한 나이가 19살 때다.

다행히 안산은 중국인들이 많아 참여자가 혼자 살면서 차별경험을 겪지 않았다고 하지만 낮은 한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 한국에 들어온 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했던 참여자가 느꼈을 삶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도 많은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안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 정을 붙이며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참여자의 삶의 의지가 훌륭하다.

④ 불법체류자 신분의 중국인 남자와의 결혼

“안산에서 한국남자를 사귀는 것은 불가능해요. 핸드폰 개통실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한국 사람은 사장님뿐이었어요. 한국남자는 조선족 여자를 중국여자라고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함께 일하던 중국인 언니가 지금 신랑을 소개시켜 줬어요. 우리 신랑은 한족이라 한국에 사는 건 불법체류였어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연애하는 동안 2년마다 이사를 해서 열 번 정도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중국 사람이라는 차별을 받으며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여자 대우를 받고 싶었어요.” (2021. 11. 17. 인터뷰)

조선족 이민사와 민족교육의 문제를 연구해온 황유복(2022)교수에 따르면 90

년대 초반 한국에서 장가를 못간 농촌의 노총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나타났고, 연변 조선족 처녀를 신붓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레 논의되었다. 위장 결혼과 합법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시집온 조선족 여성의 수는 1993년 1,463명, 1994년 1,995명, 1995년 7,693명으로 늘다가, 1996년부터는 1만 명을 넘어 현재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은 7만 명 이상으로 중국에서 자녀를 낳고 공동체를 유지해야 할 조선족 여성 3명 중 1명이 한국에 와 있다는 말이다(세계한민족 문화대전, 2022). 조선족 인구[46만 명] 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하는 흑룡강성의 경우, 30세가 넘어도 장가를 못 든 노총각의 수가 20~30명씩 되는 조선족 부락(村)이 적지 않아 성(省) 전체의 30세 이상 노총각 수는 1만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신동아, 2006). 그러나 참여자의 경우 한국남성이 아닌 중국 남성과 결혼하였고, 참여자의 친정어머니도 조선족인 아버지와 이혼하고 중국 남성을 만나 재혼하였으며, 참여자의 고모도 한족이었던 중국 남성과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남성이 한족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생활을 꿈꾸며 사회계층을 높이기 위해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지만, 가부장적인 한국남성들은 조선족 여성을 중국 여성으로 인식한다. 홍기혜(2000)의 연구를 보면 조선족 여성들은 위계화 된 부부관계, 남성 중심의 서열화 된 가족제도에 ‘아내’, ‘며느리’로 편입되고 일정 기간 한국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노동력과 섹슈얼리티를 통제당하여도 저항하기가 힘들고, 한국사회의 ‘국외자’로서 경험하는 억압과 불평등이 가중되기가 쉽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의 가족들은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 그 이유는 지혜롭고 생활력이 강한 참여자의 고모가 귀화조건을 충족해서 가족들의 한국시민권을 확보하여 조선족 여성을 한국여성으로 인식하고 신분 상승의 기회로 존중하는 중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참여자에게는 좋은 모델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⑤ 나는 이제 중국인이 아니라 온전한 한국인

“남편 때문에 안산에서 이사를 나와서 다른 곳에 취업했고, 거기도 핸드폰 개통

실이었는데 거기는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사장님 사모님은 너무 좋은 분이셨고, 직원들한테 저를 소개하며 귀화했으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중국은 못사는 나라다’ ‘싸구려는 죄다 중국산이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음식으로 차별과 편견을 느낄 때 저는 그냥 눈치 보면서 피해요. 저는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답을 못하고 무서워서 할 말을 제대로 못 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먼저 걱정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홍보고 놀려도 싫고 좋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2021. 11. 17. 인터뷰)

참여자를 고용한 핸드폰 개통실 사장님 부부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았다. 중국여행을 통해 중국이 못사는 나라라는 선입견이 해소되었고, 생각보다 깨끗하고 부유한 나라라는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직원들에게 귀화한 참여자를 차별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고 했다. 그러나 직장동료들은 참여자를 한국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중국 사람으로 대하며 참여자가 싸간 도시락을 보면서 ‘더러워서 안 먹고 싶다’ 라고 말하며 손도 안 댔다고 한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발표한 ‘2021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세계 주요, 아시아 지역별, 세계 국가별 호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에게 호감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33.6℃)이고, 북한(33.8℃), 중국(35.8℃)을 이어 인도(41.1℃), 가나(42.3℃) 순으로 한국은 인접국과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국인에게 호감도가 높은 나라는 미국(65.9℃)에 이어 스웨덴(59.5℃), 호주(59.2℃), 독일(58.1℃), 프랑스(57.3℃)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신뢰하는 국가 또한 미국(71.6%)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13.3%)보다 중국(6.8%)을 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연합뉴스, 2022.1.12.일자).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가장 신뢰하고, 중국과 일본은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세계 GDP 2위와 3위에 있지만, 한국인들은 아시아가 후진국이고, 서구 유럽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가 근무했던 핸드폰 개통실 직원들은 참여자가 귀화해서 한국시민권을 가졌다는 것과 무관하게 조선족 특유의 억양과 사투리를 놀리며 참여자가 입고, 먹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며 중국인으로 대했다. 참여자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함을 느끼며 한국 사람들과 당당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혼자서 살아왔던 외로움이 습관

이 되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힘들어했고, 용기를 내서 다가서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까 봐 걱정부터 앞서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힘들다고 한다. 참여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사람들이 싫은 내색을 하면 참을 수 없는 좌절감을 느끼고 그 좌절감을 극복해내는 것이 너무 많이 힘들다고 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다들 자신을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섭고 겁이 난다고 말하는 참여자의 모습에서 외로움과 힘겨움의 무게가 느껴진다. 참여자의 성장과정에서의 기억은 한국생활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사례로 참여자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었다.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어야 했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고 할아버지 집에서의 나쁜 경험은 사람에 대한 상처와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치유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참여자는 자신의 딸들은 자신처럼 기죽거나 피하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지난 과거 앞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⑥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키우고 싶은 나의 자식들

“제가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았잖아요. 저는 내가 돈이 없고 거지가 돼도 아이들은 무조건 내가 키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중략.. 저는 큰딸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싫어요. 그런데 큰딸이 언제부턴가 제 눈치를 살피고 저와 같은 모습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자꾸 못하게 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 바뀌지 않아요. 솔직히 저의 가장 큰 잘못된 행동은 문제가 생기면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딸이 저와 똑같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그래서 속상해요.” (2021. 11. 17.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처럼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눈치를 살피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조상호, 김치용, 2017). 반대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자기주장이 강하고 당당하다. 실수하더라도 부모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며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당할까 봐 눈치를 살펴야 할 이유도 없다. 참여자의 딸이 참여자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할 거라고 짐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아이가 커서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 아이의 인격 형성의 모델링은 엄마고 엄마의 삶의 방식이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가 자신의 모습에서 가장 싫은 부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참여자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자신의 단점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아이의 문제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아이를 치료하기 전에 양육자인 엄마의 심리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작은 것부터 성공 경험을 쌓아가며 효능감을 개발해야 한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걱정하기보다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당당하게 다가설지를 고민해야 한다. 참여자의 딸들은 자신의 모습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엄마보다 엄마의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멋진 엄마가 필요하다.

⑦ 혼란과 좌절 속에서 피어난 용기

“저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그런지 한국말도 빨리 늘지 않고, 친구도 사귀지 못했어요. 웬지 저를 중국사람 이라고 싫어하고, 중학교도 못 나왔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괜히 기가 죽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을 때 아직도 이해하기 힘든 글이 많아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속상해요. 부모님이 이혼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저는 딸들이 못난 나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 싫어요.” (2021. 11. 17.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처럼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고, 어른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다. 중학교를 포기하고 돈을 벌겠다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간 참여자의 반항심은 부모와 상의 없이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하는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혼한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위해 참여자에게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무책임한 결정으로 이혼을 선택한 부모의 걱정은 참여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특히 재혼한 엄마는 참여자의 결정에 그 어떤 조언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도 빠듯했다. 부모의 이혼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참여자에게 정신적 후유증을 남겼고, 지금도 분

노, 원망, 좌절,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른에 대한 불신은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균열을 만들며 정신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참여자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었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외롭게 자라야 했던 참여자에게 세상은 냉혹하고 무서운 곳이었지만 그나마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이 붕괴되었으니 참여자를 지켜줄 보호막이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다. 부모의 피치 못할 사정은 참여자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부모의 이혼은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재혼한 엄마를 그리워하며 외로움의 상처를 끌어안고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했던 참여자의 삶이 애처롭다.

부모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아이의 감정과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해 주면 아이는 점차 자신을 존중하며 자존감을 형성한다. 참여자는 자식을 낳으면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딸을 낳고 엄마가 되고 보니 이혼한 엄마의 행동을 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부모의 이혼은 어린 참여자에게 가혹한 삶의 시련을 안겨주었고, 특히 재혼한 엄마의 이기적인 삶은 어린 참여자에게 어른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심어주었다. 참여자의 불안한 마음은 생애 단계마다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며 참여자의 삶을 괴롭히고 있었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참여자가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이겨내고 용서라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것은 부모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불행한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부모를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부모님이 참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다문화상담이 시작되어야 한다.

2. 타협적인 문화적응

타협적인 문화적응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사회가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부족해 불편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결혼생활에 만족하며 다문화복지사업 및 다문화지원센터의 정책을 통해 다문화인식을 개선하고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일방적인 문화적응을 강요하기보다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모두의 인식개선과 그들 스스로 현실에 맞는 문화적응에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표 IV-2〉 타협적인 문화적응 경험

분석범주	문화적응 경험
종교적 실천으로 현실과 타협하는 삶 (연구참여자 D)	① 통일교에서 소개 받은 교인 아닌 일반인 남편 ② 지혜로 극복한 국가 간의 역사적 거리감 ③ 마음먹기에 따라 좁힐 수 있는 시대과의 관계 ④ 불같은 성격의 남편에 짐묵으로 인내하는 나 ⑤ 현실의 격한 감정을 달래주는 나의 종교 활동
엄마의 삶에서 지혜를 얻고 사는 한국 생활 (연구참여자 G)	① 엄마처럼 살기 싫었지만 엄마를 닮아가는 나의 모습 ② 신혼 때 나를 착각하게 만든 남편의 행동 변화 ③ 사람은 많은데 도움 받을 곳이 없는 나홀로 육아 ④ 한국어의 어려움을 눈치로 터득한 의사소통 기술 ⑤ 삶은 힘들지만 다둥이 가정을 만들고 싶은 자신감

2.1. 종교적 실천으로 현실과 타협하는 삶

연구참여자 D는 1995년도 통일교에서 한국으로 봉사활동을 나오면서 전도하였고, 청소년 학교의 일을 도와주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8남매 중 여섯 번째인 남편은 아들 형제 중에서 막내였는데 위로 결혼하지 못한 형들이 두 명이나 있었지만, 시어머님이 신장이 좋지 않으셔서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은 후 막내라도 먼저 결혼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고 하

여 그때부터 여기저기 결혼 상대를 알아보던 중에 통일교에서 진행하는 ‘참 만남’이라는 결혼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자를 만났다고 한다. 참여자 또한 내성적인 성격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연애를 했던 기억이 없고, 두세 번은 남자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남자를 사귀는 것이 부담스러워 연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남편과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통일교 측 간부가 중간에서 재촉해서 등 떠밀려 결혼하게 되었지만, 남편이 전혀 싫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① 통일교에서 소개 받은 교인 아닌 일반인 남편

“남편에 대한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냥 몇 번 만나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통일교는 교인들끼리만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편견이에요. 교인들끼리 하면 종교관이 같아서 좋기는 하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 입구에서 접수만 봤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나서 사귀는 동안 교회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을 보면 제가 속았다고 생각해요.”
(2021. 7. 14. 인터뷰. 인터뷰)

1954년 문선명이 세운 통일교는 신자들끼리의 결혼을 교리로 내세우고 있다. 통일교에서는 일반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금기시되어있다. 한국인 남성 신자들의 10명 중 7명은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남은 3명 중 2명 정도가 서양 여자와 결혼한다(통계청, 2022). 일반인이 처음 통일교인이 되어 결혼하는 것을 1세 축복이라고 하고, 2세 축복보다 내야 하는 헌금액이 많다. 2015년을 기준으로 18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모두 국제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라도와 경상도처럼 과거 조상들이 원수끼리 결혼을 해야 후대에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다는 교리를 갖고 결혼을 추진한다.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국제결혼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문선명이 짚어주는 절대 축복방식과 통일교인과 연애한 후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상대 축복이 있다. 절대 축복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하게 되지만 매칭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한다. 통일교인은 혼전순결을 지키고, 연애 자체를 하지 않으며, 남들보다 결혼을 일찍 하는 편이라고 한다. 통일교는 수많은 악행을 설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차교체 축복이라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헬스조선연구소, 2017). 참여자의 경우는 절대 축복방식으로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교회에서 접수를 보고 있는 남편이 신앙심이 깊은 줄 알았던 참여자는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속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참여자 때문에 일본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② 지혜로 극복한 국가 간의 역사적 거리감

“저희 시부모님은 저를 일본 며느리라고 차별대우하지 않으셨고 잘 해주셨어요. 신장이 좋지 않으셨던 시어머니는 우리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고, 시아버님도 그 뒤로 몇 일만에 돌아가셨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제일 큰 아주버님이 일본이라면 치가 떨리는데 제수씨가 결혼해서 오니까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아이들 아빠가 그러는데 시아버님의 형님이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셨는데 시아버님 대신 일본에 징용 가서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2021. 7. 14. 인터뷰)

참여자의 시댁은 참여자가 통일교를 통해 국제결혼을 선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종교의 교리가 진리가 되는 것은 그 종교를 실천하고 있는 인간이 종교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의 시댁 식구들은 사람의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참여자가 통일교의 교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한국문화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참여자가 자신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좋은 이미지로 변했다는 시댁 식구들의 평가를 얻어냈으니 낯선 타국에서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닌 듯하다. 참여자의 시댁 식구들은 일본이라는 역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참여자를 순수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 대접하고 있었다. 참여자 또한 자신을 통해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시아버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 뿌리까지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니 세계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에서부터 출발하고 가정의 행복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③ 마음먹기에 따라 좁힐 수 있는 시대과의 관계

“저희 시대 식구들은 제가 결혼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이것저것 가르쳐 주면서 잘해줬어요. 형제간에 금전적으로 싸우거나 불편해서 안 보고 사는 형제들은 없는데 성격이 다들 불같아서 만나면 항상 싸우면서 헤어져요. 재산문제도 있고 시골이니까 위아래 땅 경계선 때문에 매번 싸우니까 남편은 시골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은데, 저는 일본 사람인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고 저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시대 식구들이 좋아서 남편보다 먼저 앞장서서 시골로 내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2021. 7. 14. 인터뷰)

참여자의 남편은 8남매 중 막내아들이고, 남편의 위로 셋째, 넷째 형들이 있는데 예순 살이 넘도록 아직 결혼을 못 하고 참여자의 집에서 얹혀살고 있다. 더욱이 보일러 회사에서 퇴직하고 연료저감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퇴직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정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저금리로 대출받은 빚이 7억을 넘고 있는 참여자의 남편은 한방이면 해결된다는 말을 벌써 10년째 하고 있다. 그런 동생의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2천만 원이 넘는 돈까지 빌려서 갚지 않는 형들을 보면서 연료저감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동생에게 돈까지 빌려서 2천만 원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이자를 준적도 없고, 아직도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남편은 대책이 없다. 참여자의 남편은 개발사업이 잘 되면 그 깃 돈쯤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대기업의 횡포와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어 요즘은 무전취식의 형님들이 야속하기만 하다고 한다. 참여자를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일본에 대한 편견을 좋은 이미지로 바꿔준 형님들이 고마워 그동안 참고 살았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무전취식의 형님들을 모시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많은 참여자의 어깨가 무겁다.

④ 불같은 성격의 남편에 침묵으로 인내하는 나

“성실하고 착해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성격이 불같아요. 한 번은 아이들 문제로 크게 싸웠는데 제 몸에 손을 댈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화를 내면 제가 뭐라고 하면 더 심해지니까 저는 아무 말

도 하지 않고 10분 동안 한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 출근해서 전화로 미안하다고 해요.” (2021. 7. 14. 인터뷰)

참여자는 남편과 한 침대를 사용하고 25년 동안 단 하루도 떨어져 자본적이 없다고 했다. 남편이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가도 저녁에는 꼭 들어오고, 여름휴가나 친구들과 동창모임 때 하룻밤 정도 밖에서 자고 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여자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다. 참여자의 남편은 머리가 좋아 2008년부터 연료저감장치를 개발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개발비를 7억이나 빌렸는데 1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 기술개발이 뭔지 잘 모르는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예순 살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셋째, 넷째 형님들을 거두며 숙식을 제공하고 개발사업의 부수적인 일들을 맡기고 있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손님도 없고 기존에 써왔던 사람들이 다시 의뢰하는 것만 해주고 있어 한 달에 100만원도 못 가져올 때가 많다고 한다.

⑤ 현실의 격한 감정을 달래주는 나의 종교 활동

“남편과 결혼해서 돈 문제 말고는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중략..저를 아껴주고 부족한데도 데리고 사니까 고마워요. 남편이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한국여자랑 결혼했으면 금방 이혼했을 거다. 너니까 계속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뭔가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와 결혼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2021. 7. 14. 인터뷰)

부부관계에 있어 참여자의 인내심은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격한 감정을 한 템포 쉬어가게 한다. 부부싸움은 어떻게 저릴 수가 있을까? 에서 시작된다. 부부싸움의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에서 다시 재현되고, 부부싸움을 시작으로 상처가 건드려지면 참을 수 없는 불안과 강박, 우울증 등이 극도의 분노로 표출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만 보지 말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갖고, 서로를 만나기 이전의 어린 시절의 기억, 부모님과의 관계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 누구라도 성장 과정의 상처와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부부싸움 중 상대의 상처나 약점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배우자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 포용하는 것이 배우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헬스조선, 2015). 참여자의 경우처럼 부부싸움의 진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특히 문화가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의 깊은 내면의 성장과정과 상처, 결핍된 욕구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중요하다. 참여자가 남편의 화가 진정될 때까지 종교적 교리를 묵상하며 두 눈을 감고 한쪽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백년해로의 지혜로운 방법이다.

2.2. 엄마의 삶에서 지혜를 얻고 사는 한국 생활

연구참여자 G의 경우 병원 일로 바쁜 어머니와 군인이셨던 아버지의 부부관계는 애정보다 의무감이 앞섰고, 그런 부모로부터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 못했다. 바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밖에서 일하는 엄마가 아닌 집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마음 따뜻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으나 참여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7개월 된 딸아이를 어린 이집에 보내고 화장품 만드는 공장에 다니며 가정살림보다 직장에서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더 많았다.

참여자의 남편은 결혼 전 말이 많지 않았고, 신혼 초에는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하며 한국음식도 잘 만들어주던 남편이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참여자를 보면 살림도 못하고 아기도 키울 줄 모른다고 짜증부터 내고 매일 잔소리로 하루일과를 마무리하고 있다. 부부의 생활패턴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보았을 때 참여자의 생활패턴은 남편에게 신뢰를 얻고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패턴에서 멀어지는 길을 걷고 있어 행복보다 불행을 더 가깝게 느끼고 있는 듯하다.

① 엄마처럼 살기 싫었지만 엄마를 닮아가는 나의 모습

“처음 결혼하고 아기가 없을 때는 남편이 저를 아기처럼 예뻐했어요. 남편이 한국음식도 맛있게 만들어 주고 식당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많이 사줬어

요. 바닷가에도 데려가고 예쁜 옷도 많이 사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밖에 안 나가요. 남편이 아기 생겨서 돈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국에 오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힘들어요. 한국음식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음식 만들면 맛이 없어요. 아기도 내가 만든 이유식 안 먹어요. 마트에서 사주면 잘 먹어요. (중략) 그런데 지금은 크게 소리치고 화도 잘 내요. 그러면 나도 남편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싸워요. 지난주도 싸웠고, 어제도 싸웠어요.” (2021. 6. 27. 인터뷰)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있지 않은 국제결혼의 경우 남편의 잔소리와 큰 목소리는 아내의 자존감을 끌어 내리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하며 심각한 갈등의 심화과정을 겪게 된다. 반면, 참여자의 남편은 집안일에 관심이 없고 어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장에 다니며 돈 버는 것만 좋아하는 이기적인 아내가 밉고 서운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아내는 신혼 초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남편이 큰 소리로 화내고 소리치면 목소리가 큰 베트남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이 상기되어 방어기제를 발동하고 남편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며 싸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는 단순히 부부간의 상호작용만이 아니라 부부관계와 관련된 가족생활요인들에 대한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불공평성을 인지할수록 부부갈등은 높게 나타났고, 특히 남편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부부갈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김오남, 2006). 이와 같이 부부가 갈등을 지혜롭게 이겨내면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지만, 현명하지 못한 갈등의 대처방법은 평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다가 결혼생활을 청산하게 될 수도 있다.

② 신혼 때 나를 착각하게 만든 남편의 행동 변화

“결혼해서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청소도 잘 하고 밥도 맛있게 잘 만들어요. 저는 밥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집안 청소도 잘 못해요. 처음부터 남편이 다했는데 요즘은 남편이 자꾸 청소 안한다고 화를 내서 자주 싸워요. 청소는 힘들어요. 내가 정리하면 다시 더러워져요. 남편은 집에 오면 빨리 청소해라 잔소리를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청소문제로 싸웠는데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자주 있는 일이라 남편이 집을 나가도 놀라거나 걱정되지 않아요.” (2021. 6. 27. 인터뷰)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응(adaptation)이란 다른 문화와 집단의 접촉을 통해서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가치, 신념, 생활방식 등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대부분 ‘적응’의 결과에만 집중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제결혼이라는 세계화된 사회·문화적 맥락과 실존적 선택 속에서 국제결혼의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되고 있다(Seo, D. 2010). 즉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를 선택하게 된 환경적 맥락이 상이하며 원 가족 경험 및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상황 또한 다르다. 연구참여자의 경우 결혼 초기 자상한 남편을 따라 가족구성원으로서 편안한 삶을 꿈꾸며 국제결혼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깔끔한 성격의 남편과 반대의 성향을 가진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대책 및 전략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③ 사람은 많은데 도움 받을 곳이 없는 나홀로 육아

시부모님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형님이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을 대신해서 형님을 자주 만나러 다니고 있지만 도움을 받지는 못해요. 아기가 울면 힘들고 속상해요. 특히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울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아기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하는데 남편이 조퇴하고 병원에 같이 가주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아기가 특별히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귀찮게 해요. 7개월 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제가 집에서 돌봐줄 때보다 밥도 잘 먹고 어린이집 가는 것도 좋아해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남편이 집에서 봐요” (2021. 6. 27. 인터뷰)

결혼이주여성은 원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 범위가 좁아지며 이주 이후 새로워진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또한 관계 내 여러 갈등과 어려움은 이들의 부담을 심화하며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Sodowsky & Lai, 1997). 반면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사회적 관계는 새로운 문화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충하며(이주재, 김순규, 2010), 특히 사회적 지지는 낮은 환경에서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심리적응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유수정, 이청아, 2014). 연구참여자의 경우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에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정적인 남편의 도움을 받고,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한국에서의 삶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었다.

④ 한국어의 어려움을 눈치로 터득한 의사소통 기술

“저는 호치민에서 한국말을 재밌게 배웠어요. 그런데 부평구 다문화센터에서 한국말을 배웠을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저는 아기와 대화할 때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한국말을 못하지만 우리 아기는 한국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2021. 6. 27. 인터뷰)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연구들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곽금주, 2008; 김순규 외, 2010; 이무영, 2010; 이지현 외, 2013; 김만호, 2018; 박동숙, 2018; 강하라, 2019; 김효선, 2020). 언어 및 학습 능력은 물론이고 정체성과 자존감, 효능감과 교우관계 등 성장을 위한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어정책을 현실에 맞는 교육적이고 제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실제 다문화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중 언어사용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의 언어발달에 일차적인 교육 환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언어학습 경험의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어머니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이중언어교육이 출발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중언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항들이 정책적이고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작가 유디짓 베타차지(Yudhijit Bhattacharjee)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중 언어 사용자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도 뇌 속의 두 개의 언어 체계가 함께 동작하여 혼란을 겪기 때문에 이 혼란은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지 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밝혔다. 또 유디짓 베타차지는 이중 언어사용을 통해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계획 수립 능력·집중 유지 능력 등을 강화 시킬 수 있고,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중앙일보, 2016).

다문화가정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에 언어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문화 적응과 한국어습득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과 언어는 가족 내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자유롭지 않은 의사소통 때문에 경제활동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언어문제는 언어교육지원과 더불어 그들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주여성별 커뮤니티를 통한 지원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외로움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개개인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언어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⑤ 삶은 힘들지만 다둥이 가정을 만들고 싶은 자신감

“저는 둘째를 갖고 싶은데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남편은 딸 하나면 괜찮대요. 둘째가 생기면 돈 많이 필요하고, 키우기 힘들다고 수술한다고 했어요. 나는 둘째를 갖고 싶은데 남편 수술 못하게 막아야 해요. 우리 딸도 동생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2021. 6. 27. 인터뷰).

참여자의 시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큰 형님이 부모님을 대신하고 있어 시부모님 대신 형님을 자주 만나러 다닌다고 했다. 남편은 가족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착한사람인데 요즘은 참여자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참여자도 참지 않고 말대꾸를 하며 매일 싸우고 있다고 한다. 결혼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요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요인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해 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부모와의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 등은 가정 내에서 심각하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갈등국면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갈등국면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이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거나 취하는 행동양식을 갈등대처 방식이라고 한다(김영희, 정선영, 2007). 감정이입, 경청, 융통성, 동의와 승인을 유발하는 유머감각은 갈등 자체가 결혼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처방식이 된다(Gottman, 1994). 참여자는 남편과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보다 문제를 확대해석하여, 남편과의 갈등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청소하고, 한국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집안일은 돌아서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가사 일은 자신과 맞지 않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3. 수동적인 문화적응

수동적인 문화적응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낯선 환경에 매몰되어 자신의 존재감을 잃고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시댁이라는 다수자와 강자 앞에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무시당하며 가정부와 같은 인생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또한 26살이나 많은 배우자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에 맞서 아내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보모와 같은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가족구성원에 합류되지 못하고 있었다.

〈표 IV-3〉 수동적인 문화적응 경험

분석범주	문화적응 경험
환경에 매몰되어 존재감을 잃고 사는 무력한 삶 (연구참여자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에 와서 내가 한 일은 출산과 육아 ② 코로나 때문에 다시 집순이로 살고 있는 나
다수자와 강자 앞에 주락한 가정부 같은 인생 (연구참여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친할머니로 착각한 적이 있는 나의 시어머니 ② 외국인 며느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한국말 ③ 며느리를 팔처럼 생각한다는 시어머니 말의 의미 ④ 시댁도 친정도 기댈 곳 하나 없는 힘겨운 내 인생 ⑤ 가족에서 제외되고 무시당해 주락해 버린 나의 자존감 ⑥ 남편과 시어머니가 독점하는 경제권 ⑦ 효도를 강요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가족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외국인 엄마 (연구참여자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사일과 집안일로 밤낮으로 지친 생활 ②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외국인 엄마의 소망 ③ 남편의 무심함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초라한 나

3.1. 환경에 매몰되어 존재감을 잃고 사는 무력한 삶

연구참여자 E는 K팝그룹 빅뱅의 지드레곤을 보기 위해 무작정 한국행을 선택

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지만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도 열리지 못해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빅뱅을 볼 수 없게 되었다며 속상해했다. 국제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지드레곤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시기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의 증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여러 번 시도했고,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도 여러 차례 겪으며 남편과의 갈등도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참여자의 남편은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있는 참여자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고, 아기 이유식을 만들고, 한국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나이 어린 아내가 낯선 타국에서의 삶을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학대하며 자해행동을 수차례 반복한 아내가 잘못되면 엄마를 잃은 아이가 불쌍해 질까봐 응급실에 실려 다니는 아내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다문화센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참여자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였다고 한다.

① 한국에 와서 내가 한 일은 출산과 육아

“2019년 6월 17일 베트남 식당에서 처음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내가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결혼하고 한국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남편이 샤브샤브, 삼겹살 사줬는데 너무 맛있어요. 남편은 한국음식 잘하고 청소, 빨래도 잘해요. 나는 한국말 못하고 임신해서 밖에도 못나가요. 한국에서도 집에만 있고 하루 종일 게임만해요. 남편은 아기를 예쁘다 하는데 나는 아기가 울면 힘들어요. 3개월 때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편이 퇴근할 때 아기를 데려와요. 아기는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데 나는 아기가 힘들어요. 토요일은 어린이집이 쉬는데 남편이 회사에 가면 혼자서 아기를 돌보는데 너무 힘들고 아기가 한 번 울면 계속 우니까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짜증나고 정말 힘들어요.” (2021. 6. 29. 인터뷰)

참여자의 나이가 어려서 아기를 혼자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친정과 시댁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친정은 베트남이고 시댁은 ‘양주’라서 명절 때나 가족들 생일 때 남편 혼자서 다녀온다고 했다. 참여자가 결혼한 후 시부모님을 딱

한 번 봤고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베트남에 있는 큰오빠 여자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본다고 했다. 한국말이 서투니까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고,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베트남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다문화센터도 문을 닫아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짜증스럽다고 한다. 참여자의 남편은 아기가 돌은 지난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참여자는 자신이 집에서 아기를 돌볼 자신이 없다며 백일도 안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한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한 참여자는 임신 중 우울증 약을 복용할 수 없어 증상이 심해졌고, 임신기간에도 자해시도를 여러 번 했었다고 한다. 아기를 낳고도 밤에 아기가 울면 남편이 아기를 안아서 재웠고, 아기가 아파도 남편이 조퇴를 하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부모의 도리를 다했지만 참여자는 아이를 돌보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지내고 있다.

② 코로나 때문에 다시 집순이로 살고 있는 나

“한국에서 다문화센터에서 베트남 친구 4명 만났어요. 26살 링 언니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말을 조금 배웠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문화센터에도 못가요. 결혼하고 하이퐁에 계시는 엄마 아빠를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베트남에서는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방문을 닫고 살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어요. 한국에 오면 지드레곤 콘서트도 가고 자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도 없고, 너무 재미없고 우울해요.” (2021. 6. 29. 인터뷰)

베트남에서는 교통사고보다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이 2.5 배 더 높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약 800만 명에 이르고, 실업, 파산, 이혼 등 다양한 문제로 자살하지만 그중 우울증이 50% 이상을 넘고 있어 우울증은 흔하면서 심각한 질병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호치민시 인구의 최대 6%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최근 15세에서 27세 사이의 젊은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우울증으로 고통 받은 사람 중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고, 여성 환자 2명 중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 관련 질병으로 전문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 수가 매년 20~30% 증가하고 있다

(인저리타임, 2019.12.17.일자). 유엔어린이기금(UNICEF)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청소년의 약 8~29%가 정신 건강 상태로 고통 받고 있고, 심리 건강 및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젊은이와 청소년이 3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들 중 약 20%만이 필요한 의료 지원 및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의 일부는 우울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알코올, 담배, 각성제를 남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인저리타임, 2019.12.17.일자). 우울증은 베트남에서 자살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매년 수만 명이 우울증으로 사망하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의 2.5배에 해당하고 있다. 참여자의 경우는 위 통계자료에 모두 포함되는 대상으로 베트남에서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정신적 증상을 그대로 안고 국제결혼을 선택했다. 낯선 타국에서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가중되면서 극단적 선택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베트남에서의 가족관계를 보면 늙으신 부모님과 나이 많은 오빠들 틈에서 또래 여자아이들의 내면의 심리적인 부분을 공유해줄 대상이 없었던 가정환경이었다. 결혼 또한 나이차가 26살이나 많은 남편을 만나 사랑 없이 결혼하게 되었으니 21살의 젊은 참여자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자살이라는 단어가 친숙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도 식사를 준비하거나 집안을 청소하는 것은 모두 남편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었다. 남편이 만들어준 한국음식 중 샤브샤브와 삼겹살이 제일 맛있다고 말하는 참여자의 모습에서 미안함보다 당연함이 앞장선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갈수 있다. 자살에도 명분이 필요하다. 지나간 과거를 고민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자신만 괴로울 뿐이다. 오늘의 삶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찾아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은 생각보다 즐겁고 보람찬 기쁨을 안겨 줄 것이라는 것을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

3.2. 다수자와 강자 앞에 추락한 가정부 같은 인생

연구참여자 A는 보육원에서 자랐다. 다섯 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친할머니 집에서 오빠와 언니랑 함께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참여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오빠와 언니는 집을 나갔고, 참여자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던 참여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육원에 버렸다고 생각했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달래며 외롭고 쓸쓸한 성장 과정을 겪었다.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된 후 재혼한 아버지를 찾게 되었지만 병약한 몸으로 새어머니의 도움 없이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선택한 참여자의 삶도 쉽지만은 않았다. 임신 7개월째 되는 날 시부모님과 갈등으로 시댁에서 쫓겨 나와 직장에 출근한 남편을 기다리며 외롭게 살았고, 혼자 쌍둥이를 낳아 키우며 병약한 큰아들 때문에 1년에 받은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말도 통하지 않은 낯선 한국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결혼생활은 어린 참여자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다. 남편의 도움으로 새어머니를 한국에 모셔서 육아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주말에도 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며 베트남에 보내는 새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며 수없이 많은 날을 눈물로 보내야 했다. 베트남 여성에 대한 한국남성의 시각은 ‘베트남 여성은 한국여성보다 순수하고, 한국여성과 비슷한 외모에 예쁘고, 내조를 잘하고, 착하다.’ 라는 인식이 높다.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한 한국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베트남 여성들은 순종적이고 헌신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민정 외, 2006; 설동훈 외, 2006).

우리나라로 결혼이민을 오는 여성의 대부분은 하노이나 호치민의 대도시의 여성들이라기보다 일가친척들이 모여 한 부락을 이루고 살아가는 베트남 농촌의 여성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한 집 걸러 한 집이 결혼이주여성이고 그 인연이 한국으로 와서 언니 동생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 경우도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동생과 함께

한국에 나와서 살고 싶었지만, 동생은 한국남성의 선택을 받지 못해 베트남에 남게 되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평범하게 성장할 수 없었던 참여자는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하고 성장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처럼 생활력이 없는 베트남 남자들보다 자상하고 가정적인 현재의 남편과 결혼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결혼은 외롭게 자라왔던 시설에서의 삶에 대한 보상이었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자괴감과 가족이 없는 고아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참여자에게 결혼 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소중한 고마운 존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지 못한 참여자는 가정교육과 예의범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특히 어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 시부모님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남성은 전장에서, 여성은 마을에 머물며 가족을 챙겼던 모계사회의 특성이 남아있다.

① 친할머니로 착각한 적이 있는 나의 시어머니

“처음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 때는 시부모님 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 아이를 키워줄 생각이 없다. 아이를 낳으면 너희들이 나가서 키워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통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적이 없는 제가 낯선 한국 땅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섭고 겁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음식도 맞지 않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매일 시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나가서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2021. 6. 30. 인터뷰)

베트남사람은 3대가 모여 살며 효(孝)가 가장 큰 미덕으로 간주 된다. 베트남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노부모를 봉양하도록 교육 받는다. 또한, 대가족 중심의 가족문화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끼리 도움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가족문화는 베트남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과거 한국사회도 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어진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의 형태였지만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 시대로 변화가 진행되다가 이제는 핵가족에서 1인 세대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참여자의 경우 할머니에 대한 고마운 기억이 강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삼남매를 키워주셨던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간직되고 있었다. 그런 참여자에게 손자를 낳으면 키워주기 싫다며 차라리 나가서 살라고 하신 시어머니의 모습은 참여자의 친할머니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자식과 손자를 사랑하지 않는 냉정한 시어머니에 대해 섭섭한 감정이 신혼생활 내내 시대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② 외국인 며느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한국말

“결혼하고 시부모님 집에서 살았을 때 한국말도 잘 못 했는데 시어머니가 들려서 말하는 깊은 뜻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단어 한 단어씩 천천히 말해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로 ‘밥 먹었냐?’라고 하셔서 ‘네’라고 대답했는데 ‘밥 좀 해놔’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밖에서 돌아오셔서 밥을 차리라고 해서 그때 쌀을 씻고 밥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전화까지 했는데 밥도 안 해 놓고 너만 먹었냐고 화를 내시면서 집을 나가셨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왜 화를 내셨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한국말도 잘 못 하는데 화내시는 시어머니가 섭섭했어요.” (2021. 6. 30. 인터뷰)

참여자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어른들이 사용하는 사투리나 한국말의 깊은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에 살아왔던 한국인이 라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다. 하물며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어른들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없는 참여자가 익숙하지도 않은 한국 시어머니의 깊은 뜻이 담긴 한국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베트남 시설에서 규율과 규칙적인 말과 행동에 길들여진 참여자가 낯선 환경과 사람들, 낯선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짐작이 간다.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던 잡곡밥과 된장국을 매일 먹어야 했던 신혼 때를 떠올리며 된장국은 베트남에서 돼지들한테 주는 밥보다 맛이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하는 참여자의 눈가에 잠시 이슬이 맺혔다.

③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시어머니 말의 의미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너는 그냥 내 딸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고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니까 제 방에 들어오셔서 왜 시어머니 보다 늦게 일어나냐고 화를 내셨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안 일어난다고 혼내셨어요. 그런데 오후에는 저를 불러서 딸처럼 생각하니까 편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 진실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2021. 6. 30. 인터뷰)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는 엄마 같지 않은 시어머니로 인해 참여자는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편하게 지내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참여자가 시어머니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아들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며느리가 낳은 손자는 키워줄 마음이 없다고 하신다. ‘내가 죽으면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너에게 물려주마’ 라고 하시며 매달 100만 원이 넘는 화장품 매출을 남편 카드로 결제하시는 시어머님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자식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고 있는데 외국인 며느리는 그 안에서 길을 잃었다.

이와 같은 갈등은 단지 국제결혼이주여성 며느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 한국여성과 달리 가족적이고 순종적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들인 외국인 며느리가 고분고분하지 않고 고집 있게 구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시모의 불만은 한국의 젊은 며느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김민정, 2007). 국제결혼남편 가족들에게 여성의 문화적 차이는 감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지 언어, 음식, 예절 등 시간이 지나 여성이 배우면 해결되는 것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김이선 외, 2006).

④ 시댁도 친정도 기댈 곳 하나 없는 힘겨운 내 인생

“임신 7개월 때 분가해서 처음 쌍둥이를 낳을 때는 혼자 너무 무서워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큰 아이(ADHD)가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살았어요. 눈 오거나 비올 때 한명은 업고 한명은 우산 쓰고 다니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새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베트남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곧바로 들어오지 않으셨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들어오셔서 주말에도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돈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2021. 6. 30. 인터뷰)

참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원에서 나와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족을 찾기 시작했고 자신을 보육원에 맡겼던 아버지를 어렵게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자식들을 보육원에 버리고 재혼한 아버지가 밋고 원망스러웠지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참여자는 새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남편이 초청장을 보내 새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셨다. 그러나 베트남에 홀로 남아있는 참여자의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주말에도 일을 다니며 참여자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인간의 발달과정은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그중에서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의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에 있는 부모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참여자의 경우는 시댁이나 친정부모들 그 누구도 참여자의 인생에 모델링이 되어주지 못했다. 긴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족관계는 참여자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가족의 영향은 부모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주고받는 양방향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자의 불행한 과거는 친정 부모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했다. 결혼하고 한국에 살면서도 시댁의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로부터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의사소통과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는 수모를 겪었다며 자신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했다.

⑤ 가족에서 제외되고 무시당해 추락해 버린 나의 자존감

“아이들 아빠는 저를 무시해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도 말하지 않고, 차를 바꾸던지 이사를 할 때도 저와 한 번도 상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매우 나쁘죠. 남편을 볼 때마다 재는 나한테 뭐지? 왜 자꾸 나를 무시하지? 라는 생각에 불쾌할 때가 많지만 말을 해도 바뀌지 않고 자꾸 싸우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포기했어요.” (2021. 6. 30. 인터뷰)

참여자의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했다.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경제관념이 투철해서 작은 돈이라도 낭비하지 않는 모범적인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참여자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통보만 하고 있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했다. 부부는 성별에 따라 확연히 다른 의사소통 특성을 지니고 있다.

루안 브리젠딘(Louann Brizendine,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남성은 7천 단어를 소화하는 것도 힘들다고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3배꼴로 말을 더 많이 하는 셈이다. 전업주부인 참여자의 경우 남편이 오기 전까지 소모하는 단어는 1만 단어정도 되고 전기검침원인 남편은 하루에 사용하는 7천 단어를 모두 소진한 채 귀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내가 사용하지 못한 1만 단어는 남편과의 대화로 사용하길 원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대화의 양을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아내와의 대화가 피곤하고 버겁다. 참여자의 남편이 집안의 애정사를 참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당일날 통보한 경우도 참여자와 참여자 남편의 의사소통 특성이 서로 다른 사고의 차이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감성적이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반면 남성은 경쟁적이며 문제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안일을 며칠 전부터 아내와 상의하며 7천 단어를 넘겨서 쓰고 싶지 않은 것일 뿐 참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다. 이러한 사고패턴의 차이는 참여자와 남편의 의사소통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남편과의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⑥ 남편과 시어머니가 독점하는 경제권

“시어머니한테 섭섭한 것은, 화장품을 한 달에 정해진 양을 팔아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자꾸 아이들 아빠 카드를 써서 매출을 올리고 카드 값은 안주세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결제하는데 남편에게 못하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차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큰 아들인 저희 남편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다고는 하지만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의 문제니까 제가 낄 수가 없어 보고만 있는데 경제권이 없는 저는 가정부보다 못한 존재인가 봐요.” (2021. 6. 30. 인터뷰)

참여자의 시어머니는 서울에서 화장품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했고, 매출의 대부분을 참여자의 남편 카드로 결제하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도 키워줄 생각 없다고 했던 시어머니는 참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병원에 잠깐 다녀갔을 뿐 10년이 넘도록 참여자의 집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참여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해 주시는 시아버지와는 관계는 좋다고 표현하면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섭섭한 듯 불편한 심정을 들어낸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쉬운 듯 복잡하다. 전통사회에서는 모든 살림의 주도권이 시어머니에게 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지배를 받으며 규율과 규범을 몸으로 익혀가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사운영과 경제권, 자녀 양육권 등 가정 살림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전통사회에서 순종적이던 며느리는 자신의 가정에서 남편이 버는 돈을 아내인 자신이 주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과 동시에 가게운영을 주도하려고 한다. 반면 시어머니는 자신이 키운 아들에 대한 보상심리와 결혼 직전까지 유지해왔던 권위와 살림살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시어머니가 주도권을 포기하고 며느리와 협력적 관계로 돌아서면 갈등은 완화될 수 있다. 반대로 며느리가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생활비를 절약하고 시어머니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고 직장에 나가서 본인의 능력대로 돈을 벌면 시어머니와의 갈등 관계는 협력 관계를 넘어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의 양육비까지 드릴 수 있는 고용 관계로 승격될 수 있다.

⑦ 효도를 강요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저희 남편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한국여자들은 가족들 모임에서 무조건 일 열심히 해야 사랑 받는다고 말해요. 조카도 동생도 고모도 할머니도, 남편 쪽 시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전화해서 챙겨야 해요. 그런데 나만 왜 그렇게 해야 해? 너는 내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해봤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2021. 6. 30. 인터뷰)

참여자는 여자의 도리와 예의범절을 말로 지적하는 남편이 밋고 못마땅하다. 조카들 생일까지 전화해서 챙기라고 말하는 남편 때문에 기분이 나빠 자주 싸

우게 된다. 게다가 베트남에 홀로 계시는 아버지한테 전화 한 번도 하지 않은 남편이 야속하기만 하다. 최근 ‘대리효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남편 또는 아내가 자신의 부모에게 대리 효도하기를 강요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대리효도’는 자신이 특별히 부모님을 챙기지 않았으면서 결혼 후 배우자에게 자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쓰이고 있다. 참여자의 경우처럼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생각하지도 않았다가 막상 남편이 시댁 식구들의 생일과 조카들의 생일까지도 참여자에게 챙겨 줄 것을 요구하자 참여자는 남편에게 베트남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전화라도 자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대리효도라고 한다. 참여자의 남편은 큰 아들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 그러나 참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들만 챙기고 베트남에 홀로 계시는 아버지를 사위 한 번도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리지 않는 것에 섭섭함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맞서 ‘각자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라는 뜻의 ‘셀프효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챙기는 게 맞다’라는 풍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너무 이기적이고 정신이 없다. 각자 상대의 부모에게 알아서 잘하면 되는데 너무 따진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리효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부의 연을 맺은 사이끼리 전혀 모른 채하는 것도 옳지 않다. 상대 배우자에게 ‘대리효도’를 강요하는 것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하지만 네 부모, 내 부모를 가르치 않고 서로의 부모에게 함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된 부부의 연이라고 생각한다.

3.3. 가족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외국인 엄마

베트남 여성들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을 서두른다. 오랜 내전과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조혼 풍습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여자 쪽 부모의 나이는 대부분 40대다. 베트남에서는 20세 전에 결혼하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한다. 22세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대부분 20대 후반이나 30대까지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베트남 남자들도 나이가 어린 여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 대도시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추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HK TEL, 2013.10.19.일자). 개인의 자유를 더 누리고 싶다는 풍조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F의 경우도 남편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않았어도 베트남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솔로의 생활을 더 누렸을 텐데 남편이 한국으로 복귀결정이 내려져 23살에 남편과 결혼하고 한국에 나와서 결혼생활 9년차가 되었다. 참여자는 9살과 4살 아들을 두고 아파트전세를 얻어 남편이 GS건설 설계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와 참여자가 인력사무소에 다니면서 통역해주고 벌고 있는 급여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렵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생활비는 남편과 참여자가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시댁과 친정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저축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적지 않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 집을 마련하기 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참여자의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직장생활과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을 매우 힘들어 하고 있었고, 한국생활적응과정에서 한국문화교육과 자녀교육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① 회사일과 집안일로 밤낮으로 지친 생활

“저는 인력사무소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생활은 대부분 만족스러운데 직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받을 땐 기분이 좋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주고 밤에 전화해서 일을 시키지 않으면서 저에게는 밤 늦게 전화해서 통역하라고 해요. 저도 가정이 있고 퇴근하면 집에서 쉬고 싶은데 문제가 생기면 계속 전화하고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2021. 6. 25. 인터뷰)

참여자는 한국생활에서 특별히 힘든 부분은 없고 대부분 만족스럽다고 했다. 언어도 불편하지 않고, 한국음식도 베트남에서 데이트하면서 많이 먹어봐서 그런지 익숙하고, 날씨도 베트남보다 훨씬 좋아 대체적으로 한국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시부모님과도 따로 살고 있어 가끔씩 찾아뵈면 반가워해 주시고, 경제

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 특별히 금전적인 갈등을 겪을 일도 없어 매우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라온 성장과정과 결혼 후 한국생활에 적응하기까지 순탄한 삶을 살았던 참여자에게 있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은 문화가 다른 한국사회 속에서의 직장생활과 큰 아들과의 갈등이라고 했다.

②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외국인 엄마의 소망

“우리 큰아들은 9살인데 벌써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베트남어와 한국말을 함께 가르쳤고, 유치원 때까지는 베트남 말로 대화를 잘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어느 순간부터 베트남 말을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베트남 말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대답하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베트남 말로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대꾸도 하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친정 부모님이 놀려 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시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는 베트남 말로 대화하는 것을 보면 베트남 말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는 대화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엄마가 아들에게 잔소리도 해야 하고 숙제를 봐주기도 해야 하는데 베트남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한국말로 하면 그때는 마지못해 한국말로 대답을 해주기는 하는데 내 아들에게까지 베트남 엄마라고 차별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2021. 6. 25. 인터뷰)

참여자는 한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엄마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은 다문화가정 부모가 해결해줄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라고 했다.

특히 베트남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엄마가 베트남말로 질문하면 한국말로 대답하는 큰아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크다고 한다.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는 큰아들이 바쁜 아빠를 붙잡고 아침에 숙제를 봐달라고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참여자는 자신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큰 아들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다고 한다.

아이가 커 가면서 아무 소리도 못들은 것처럼 주변의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좌절, 불안, 우울을 경험하고, 이러한 감정을 겪을 때 고통스러움을 느낀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기 위해

“방어기제”라고 하는 마음의 도구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어기제는 종류가 다양해서 수 십 가지가 넘는다(엄명용 외, 2015). 또한 이러한 방어기제는 어른이 될수록 성숙해지고, 이타주의, 승화나 유머와 같이 생산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데 어린 아이들의 경우 방어기제가 거의 없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부정’의 방어기제를 발동하여 있는 현실을 없는 것처럼 느낀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부정적 방어기제를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른이 보기에 거짓말로 비칠 수 있다.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아이는 ‘현재의 놀이를 중단하고 싶지 않거나, TV를 끄고 싶지 않고, 씻고 싶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로 ‘부정’ 방어기제를 발동시키는 것이다. 이때 아이를 부드럽게 불러 손을 잡고, 장난감을 치우게 하거나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아이가 못 들은 척 할 때 그대로 넘어가면 싫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못 들은 척 하는 행동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베이비트리, 2021.10.25 일자).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서로 양보하고 잘 맞춰서 열심히 살면 되니까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교육은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무시하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해요. 내가 숙제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는 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아빠한테 숙제를 봐달라고 해서 남편과 매번 싸우게 되요. 남편은 아이 앞에서 화내지 않고 그냥 숙제를 봐주는데 한 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는 짜증나나 봐요.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2021. 6. 25. 인터뷰)

참여자의 첫째 아이는 참여자의 말을 못 알아듣는 척 무시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다. 참여자가 아이의 생활방식을 간섭하고 엄마의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하면 아이는 반항심이 발동하여 엄마의 말에는 무조건 반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참여자의 말에 의하면 학교생활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참여자가 집에서 숙제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빠랑 같이 숙제를 한다고 했다. 참여자의 아이는 참여자가 한국의 엄마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참여자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베트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엄마의 언어를 알아듣기는 하지만 엄마가 다른 아이들의 엄마처럼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엄마가 베트남어를 쓰지 않고 한국어만 사용하도록 길을 들이고 싶었던 것 같다. 아이는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교우관계도 나쁘지 않고 아빠와의 관계도 좋다. 다만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엄마에게 불만이 많아 반항하는 것이다. 일단 아이에게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엄마의 언어를 배워둔 것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세제시민교육을 하면 된다. 참여자가 베트남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이에게 베트남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아이가 베트남을 사랑하게 되면 엄마가 사용하는 베트남 언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엄마가 베트남어로 훈육하면 더 잘 따르게 될 것이다.

③ 남편의 무심함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초라한 나

“남편과 결혼한 뒤로 한 번도 싸워본 적은 없어요. 우리 남편이 자상한 편이라서 싸울 이유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 데이트도 많이 하고 자상한 남자였는데 결혼한 뒤로는 집안일을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침8시30분에 출근해서 10시 넘어서 퇴근하고 주말에도 직장동료들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요. 본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가끔 현장에도 가는데 설게 감리 일을 해서 그런지 술자리가 많아요. 연애할 때는 일 열심히 하는 남자가 멋있게 보였는데 지금은 아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면서도 가족에게는 관심도 없고 일만 하는 남편이 섭섭해요.”
(2021. 6. 25. 인터뷰)

참여자의 시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시고 누나가 두 명 있는데 큰 누나만 결혼했고 둘째 누나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40살이 넘도록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시아버님은 회사원이셨는데 지금은 정년퇴직하셨고 어머니도 직장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으셔서 일을 안 하시고 한 달에 100만 원정도 나오는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계신다고 한다.

참여자는 아들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 시아버님을 보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한다. 참여자의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 참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걸 반대하셨는데 참여자의 남편이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시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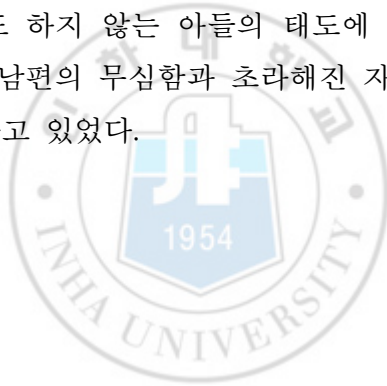
4. 소결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경험을 탐색하고,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은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을 ‘주체적 문화적응유형’, ‘타협적 문화적응유형’, ‘수동적 문화적응유형’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면 다음의<표 IV-1>부터 <표 IV-3>과 같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주체적, 타협적, 수동적인 문화적응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주체적인 문화적응 유형’으로 참여자 B는 종교와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공무원 신분의 전 남편과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양쪽 모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마음과 같지 않았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 한 푼 없이 시집왔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의 무서운 얼굴이 참여자의 눈에는 호랑이처럼 느껴졌고, 어머니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남편이 야속하게만 보였다. 한국인 막내며느리와 우즈베키스탄 며느리를 편애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가혹한 시집살이가 힘들어 죽음까지 생각하면서도 참고 살았지만 결국 이슬람교를 거부하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세 딸을 키우며 한국에서 만난 이집트 총각과 재혼하여 종교와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참여자 C는 가난한 맞벌이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지 집에 살면서 잘사는 고모 딸과 비교당하며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출해서 중학교도 포기하고 돈 벌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구하는데 몰두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지 않은 안산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불법체류자신분의 중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중국인이 아닌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고 싶었지만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들의 차별과 편견은 피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왔던 모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들은 내가 키우겠다는 각오와 혼란과 좌절 속에서 용기를 불태우며 불행을 딛고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주체적인 삶을 실

천하고 있었다. 둘째, ‘타협적인 문화적응 유형’으로 참여자 D는 종교적 실천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통일교에서 소개 받은 남편이 통일교를 믿는 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종교적 실천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 간의 역사적 거리감을 지혜로 극복하고 시댁과의 관계를 좁혀가며 불같은 성격의 남편을 침묵으로 인내하는 속에 현실의 격한 감정을 종교 활동으로 승화시켜가고 있었다. 참여자 G는 바쁘게 살아가는 의사 엄마의 삶이 싫어 자신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거부했지만 결국 친정어머니의 삶에서 지혜를 얻어 한국에서의 문화적응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었다. 신혼 초기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무엇이든 다해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찾아오고, 시댁식구들이나 친척들이 있지만 도움 받을 곳이 없어 홀로 육아를 전담해야 했다.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한국어는 눈치로 터득해서 의사소통의 기술을 키웠고, 고단한 삶은 힘들지만 다동이 가정을 꾸꾸며 화목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었다. 셋째, ‘수동적인 문화적응 유형’으로 참여자 E는 환경에 매몰되어 존재감을 잃고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21살이라는 어린나이에 26살이나 더 많은 한국인 남편을 만나 국제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가수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집순이로 전락한 참여자는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 살았고, 원하지 않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자신이 한국에 온 목적과 떨어진 삶에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느끼며 수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참여자 A는 무능력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다수자와 강자 앞에서 한없이 추락한 자신의 삶을 가정부에 비교하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결손가정에서 자라 피해의식이 강하고 가족에 대한 결속력이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가정교육을 따로 배우지 못하고 보육원의 규율과 규칙생활이 몸에 밴 듯 집안 정리정돈은 깔끔하게 잘 하지만 어른을 공경하거나 예의를 갖춰 행동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했다. 남편이 독점하는 경제권은 자신을 무시하는 가족들의 차별의식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가정사에 대한 결정에서 습관처럼 배제된 자신의 입장을 국제결혼여성에 대한 한국가족들의 편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어가 서툰 엄마를 무시하는 아이들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통제 불능의 아이들 교

육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며 상담소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결혼 초기에는 친할머니처럼 푸근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가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 며느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로 궁지몰아 야단을 치고,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알 수 없는 의미의 말로 다독이지만 시댁도 친정도 기댈 곳 하나 없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참여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족에서 제외되고 남편에게 무시당한 자존감은 끝없이 추락하였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독점한 경제권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 자신을 한탄하고 있었다. 효도를 강요하는 남편과 외국인 며느리라고 소외시키는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생일은 철저히 챙기라고 강요하면서도 정작 참여자의 생일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아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F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무게에 짓눌려 외국인 엄마로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회사일과 집안일로 밤낮으로 지친 생활을 홀로 감당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건설회사에 취업해서 파견 나온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성공하며 베트남 여성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했지만 베트남을 싫어하고 베트남 말을 사용하면 무시하고 대꾸도 하지 않는 아들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끼며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었다. 남편의 무심함과 초라해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위태롭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V. 문화적응과정에 나타난 다문화상담 의미

이 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상호문화주의와 다문화상담이 그들에게 어떻게 주체화되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와 문화적 자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함양과 같은 실천적 삶에 의해 상호문화교육의 주체가 되어간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상호문화교육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근거한 다문화상담이 그들의 문화권 증진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1. 다문화상담의 경험 양상

1.1. 문화적응에 대한 고단함 해소

다문화상담에서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다. 문화적 역량이란 상담현장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 포함된 문화적 차이를 구분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문화적 차이가 갈등을 양산할 때, 상담자는 주류 문화에 편승해서 결혼이주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집단의 차이를 수용하고,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결혼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문화적 지식을 충족시켜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부터 문화적 역량이 성숙될 수 있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초국적 이주와 함께 출신국과 한국문화의 차이와 다름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심리, 정서적 갈등과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감내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들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주고 한국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에 따른 하나의 방안으로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상담자가 진행하는 다문화상담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문화상담에서 상담자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의 문화특수성, 가치관 세계관 등에 상호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접근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정서적 고충을 위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김정열 외, 2014).

“결혼하고 처음에는 남편이 잘 챙겨줬는데 지금은 여자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고 잔소리만 해요.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한국음식을 배우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다문화센터에 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음식도 배웠는데 그때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베트남에서도 혼자 살았고 한국에서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요즘에는 남처럼 느껴져서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해요...중략...저는 다문화센터와 심리상담 센터에서 돈 까지 내고 상담을 받아 봤어요. 상담을 받을 때는 머리로 이해하지만 집에 가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상담을 받을 때는 한국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A 2021. 7. 7.)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원활하게 적응하려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낯선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문화적응과정에서 찾아오는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풀어 줄 다양한 방안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유일한 자기편으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남처럼 느껴질 때 오는 불안감과 초조함은 우울을 넘어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럴 때 다문화상담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상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는 남편과 매일 싸워요. 저는 한국음식 못해요. 청소도 내가 하면 깨끗하지 않아요. 남편이 더럽다고 화내요. 우리 딸은 내가 밥 해주면 잘 안 먹어요. 나도 돈이 필요한데 남편은 돈 없다고 안줘요. 나는 아기가 울면 힘들어요. 그래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공장에 다니면서 돈 벌고 있어요. 남편도 돈 벌고 나도 돈 버는데 남편은 나한테 청소 안한다고 더럽다고 해서 날마다 싸우고 남편이 이

혼하자고 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한국에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베트남 언니가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내가 게으르고 욕심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상담선생님이 우리 엄마처럼 나이가 많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남편사랑을 많이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나한테 돈 벌라고 안했어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청소하기 싫어서 돈 벌러나갔어요. 상담선생님이 말해줬어요. 남편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참여자 G 2021. 6. 27)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트러블이 생길 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다. 욕하는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이를 바로 잡아 주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다문화상담은 친정식구와 같고 다문화상담사는 친정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들도 친정이 없다면 외롭고 불안하고, 고독하다. 하물며 언어도 통하지 않는 먼 타국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하나 없다면 그 불안과 공포는 몇 배의 고통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 다문화상담은 친절이고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물론 법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일상에서의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문화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부당함은 상담소를 친절처럼 생각하고 찾아와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문화상담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친절이다.

“저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요. 남편은 마마보이라서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요. 처음 결혼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엄마가 보고 싶어 많이 울었어요. 하루 종일 마늘과 생강을 까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저는 한국문화와 한국음식은 참을 수가 있는데 종교가 다른 것은 힘들었어요. 종교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고 세 딸을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합쳐서 살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못했어요. 큰 딸이 장애가 있고 막내딸이 도박이 있어서 다문화센터와 wee센터에서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이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남편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혼하고 한국 땅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섭고 겁이 많이 났어요.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언니가 아랍남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종교도 같고 마음이 따뜻해서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도 한 명 낳았어요. 아빠가 다른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식탐을 부려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 힘이 되요.” (참여자 B 2021. 10. 6.)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이야기 나눌 곳이 모국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 밖에 없다. 때문에 그들끼리 모여서 시댁과의 문제, 남편과의 갈등,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게 되어 결손가정의 문제들로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한다. 다문화상담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먼 미래를 깊게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슬기로운 지혜를 나눠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상담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사가 필요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상담전문가가 상담을 돕는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다문화상담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2. 이중문화 정체성의 본질탐색

다문화가정 안에서 이중문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자녀양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중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은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을 찾지 못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자녀양육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울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교사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가정통신문 이해 부족, 자녀의 학습지도 조력의 결핍과 어려움 등은 자녀의 취학전 교육에서부터 많은 격차를 발생시키며, 학습결손 현상, 학교생활 부적응과 문제행동 심화의 잠재성을 안게 된다(성상환 외, 2010). 다문화사회란 주류와 비주류문화를 포함한 소수자들 모두 사회구성원이라는 주인 의식을 갖고 상호 존중하는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뜻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르고, 사회적 편견과 무시와 차별은 비주류문화에 속해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불평등한 사회를 직면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중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은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좌절과 절망감을 주고,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상담은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불공정한 사회현실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저희 남편은 저를 무시해요. 저희 시어머니도 한 달에 100만원씩 저희 남편카드에 화장품 매출을 올리면서 저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 생일은 조카들 생일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챙기라고 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10년이 넘도록 전화 한 번도 안했어요. 우리 남편과 아이들은 베트남 말을 못해요. 베트남은 못사는 나라고 베트남 식당은 더럽다고 하면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된장국 냄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맛있게 먹고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베트남 음식 맛이 없다고 만들지 못하게 하고, 베트남 말 듣기 싫다고 나한테도 쓰지 말라고 해요.” (참여자 A 2021. 7. 14.)

다문화상담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정 안에서 상호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중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속에 궁극적으로 화목한 가정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담현장에서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상담을 다수 진행했던 다문화상담 전문가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중문화에 대한 갈등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태도, 아내의 문화에 대해 무시하고 배척하는 남편, 다문화센터를 제외한 이웃과 사회의 불편한 시선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상담 전문가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심리적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모국을 향한 애국심과 개인의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목표를 세워 진행해야 한다. 국제결혼을 선택한 동기와 입국지역과 시기에 따라 개인별 상황과 겪는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와 가족구성원들 모두가 상호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중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속에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들의 이해와

존중을 받게 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사회적응과 사회 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족이고 우리 가족은 1994년에 모두 귀화해서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핸드폰 개통실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 사람들은 나를 중국 사람이라고 놀리고 중국에서 만든 물건은 죄다 싸구려라고 하면서 비웃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은 시끄럽고 지저분하다면 내가 싸간 도시락은 더러워서 안먹고 싶다고 해요. 그럴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자리에서 피했어요. 나는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중학교도 못가고 친척집을 떠돌아다니며 지금까지 혼자 살았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닌지 걱정부터 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아는 것이 없어서 엄마로서 혼만 내고 해준 게 없어요. 다문화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았는데 욕아스트레스가 99%라고 했어요.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리려는 충동 때문에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 받아서 먹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요.” (참여자 C 2021. 11. 19.)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문화상담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중문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진행해야 한다.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과 개인의 자존감을 끌어올려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자기효능감을 발달시켜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하고 칭찬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 또한 다문화상담은 단순한 심리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 스스로 개인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성취감을 고취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같은 맞춤형 다문화상담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며 자신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여 삶에 대한 의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삶의 의지를 다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다문화상담으로 인형극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 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전혀 듣지를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베트남 말을 가르쳐서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베트남말로 물어보면 대답을 안하고 한국말로 물어보면 그때서 대답해요. 속제도 내가 봐주면 안하고 저녁에 11

시 넘어서 늦게 들어온 아빠한테 봐달라고 하거나 아빠가 오기 전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숙제를 봐달라고 해요. 친구들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놀려서 그런 건지 베트남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무튼 내가 베트남 말만 해도 무시하고 들은 척을 안 해요. 얼마 전 다문화센터에서 아이와 함께 인형극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그 뒤로 친정 부모님과 대화 할 때는 베트남 말로 대화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참여자 F 2021. 7. 6.)

“저는 한국말 잘 못해요. 한국에 1년 됐어요. 아기가 올면 머리가 아파요. 아기 3개월에 어린이집 갔어요. 나는 한국음식 못해요. 남편이 회사에서 와서 청소하고 밥해요. 나는 한국에 친구 없어요. 밖에 나가면 무서워요. 집에서 심심해요. 게임만 해요. 나는 우울증이 심해요. 여러 번 자해해서 응급실에 실려 갔어요. 남편이 다문화센터에 상담신청 했어요. 한국말 배우고, 인형극으로 상담 받았어요. 인형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혼자가 아니에요.” (참여자 E 2021. 7. 6.)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는 이중문화의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자녀는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없고, 한국말이 아닌 언어를 철저히 배척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족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낮아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상담에서는 인형극을 통해 자녀로 하여금 엄마의 나라도 소중하고, 엄마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긍정적 수용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그들의 자녀에게서 느꼈던 서운한 감정을 풀고 자녀와 더욱 친밀한 관계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동안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형극을 활용한 다문화상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부모자식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시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1.3. 상호문화존중의 관용적 태도함양

지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붙들어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 때 혼자만의 힘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지지해주는 일이 어려울 때,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힘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게 되는데,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지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지체제 구축작업은 개인 간의 협력이나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예방하고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과 발달을 촉진시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전체가 그들을 도와가고 효과적인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지체제 구축단계에서는 그들의 배우자, 시댁식구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이를 위한 관용적인 태도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다문화상담에서 관용의 전제 조건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다. 관용적인 태도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차별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다름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이다(이옥순, 2008). 여기서의 관용은 힘 있는 자의 일방적인 배려의 덕목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 사이의 상호적 이해와 배려인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이 상호적인 관용을 기초로 해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상호문화 교섭이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한 다문화사회가 건설될 것이다(이수안, 2007).

“저는 임신7개월에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편하게 살라고 하셔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시아버지가 식사하실 때 컴퓨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랑 못살겠다고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먹기 힘들었어요. 된장국은 베트남에서 돼지들한테 주는 밥보다 맛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김에다만 밥을 먹는다고 그것도 보기 싫다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베트남 말도 못 가르치게 하고 저한테도 베트남 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시어머니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A 2021. 7. 14)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를 강요받는다. 특히 한국 문화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적이고 반복될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모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하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혐오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된다. 상담의 현장에서 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못하고 외톨이와 같은 삶을 지속하며 말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체념한 듯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가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고 ‘훌륭한 문화다’, ‘참 좋은 곳이라서 가 보고 싶다’ 라고 칭찬해주면 그들은 밝고 환한 미소로 보답하며 자신의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그렇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한국문화와 자신의 문화의 유사점을 찾아가며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이해하고 한국문화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다문화상담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 있다고 본다.



2. 다문화상담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2.1. ‘동화’ 보다 ‘문화다양성’ 을 존중하는 상호문화성

다문화사회에서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과 상호존중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문화 간 차이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에 달려있다. 한국사회는 외국인 200만 시대를 돌파했지만,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 다문화주의의 담론과 순혈주의와 단일 민족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뤄지기 전에 국가에 의해 차용되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인정과 승인보다는 정부주도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김현미, 2008). 이와 같이 정부의 다문화 정책 중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문화교육은 2006년 ‘다민족, 다문화사회’ 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으로 개정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필두로 각 정부부처와 민간단체의 재원이 다문화 사업에 투입되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문화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유치원부터 초, 중, 고를 거쳐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교육이 개정교육과정에 정식으로 도입되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교육은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기보다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조대훈, 2015). 겉으로는 다문화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에 목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동화주의’ 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교육 정책지원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로 이뤄진 다문화가정에 치중해 있어 비 다문화가정의 한국인을 위한 교육은 많지 않다(장인실, 김경근, 2012). 이는 다문화교육은 소수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오해와 문제의식에 따라 다문화가정 적응교육 외에도 한국인들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다수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지만(이혜영, 2013), 정부주도의 다문화교육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편견 및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문화교육이 갈등과 투쟁의 장

으로 변질 된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한국사회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반다문화 운동과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를 비롯한 네티즌의 외국인혐오 발언 등, 이자스민 의원의 이주민을 위한 행보에 반대적 수위를 높이며 외국인혐오증이 확산되었다. 서구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소수자들의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결혼생활, 자녀양육, 정착과정 등에서의 적응과 인권 문제를 다루거나 이들을 다문화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김효선, 2015). 이렇듯 다문화주의적 관용과 인정은 동화와 배제의 역학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혼재하면서 복합적인 정체성과 다양한 혼종적 개인성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주의를 실행했던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 역시 변화를 중재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다문화주의 정책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실패를 선언하며 다문화주의의 대안으로 상호문화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사회로의 동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그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상호문화교류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교육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호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고착화된 문화적 관념의 틀을 깨고 변화된 판단과 가치관에 근거하여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차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 불평등을 없애고 국가와 민족의 개념을 뛰어 넘어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범국민 시민교육을 의미한다. 이렇듯 세계화와 국제화로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아직 문화다양성과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한국말과 한국음식을 전 남편한테 배웠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결혼하고 처음에는 다문화센터에 다니는 것이 힘들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데 나처럼 한국말 못한 사람은 따라가기가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다문화센터는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처럼 아이가 많은 엄마들은 수업시간에 자꾸 빠지니까 못 따라가요. 남편과 이혼하고 다문화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이 끝나도 전문가선생님이 계속 점검해주면 좋은데 상담이 끝나면 더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중략...저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외로웠어요.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언니가 이집트남자를 소개해서 재혼했어요. 아들도 낳고, 세 딸도 내가 키우면서 대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사춘기 딸들이 다문화라는 편견 때문에 힘들어해요. 엄마가 다문화라고 창피하게 생각해요. 나는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참여자 B 2021. 10. 6.)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상호문화교육과 다문화상담이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문 인력과 체계화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단편적인 지원으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은경 외, 2016). 상호문화교육이나 다문화상담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식과 행동이 변하려면 다문화적인 환경을 수용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최소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상호문화교육과 다문화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족이나 동호회, 친구모임 등을 통해 매달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며 몇 년에 걸쳐 관계가 지속되어야만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문 상담자들과 교육전문가들로부터 현재의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공감하며 마음의 연대를 맺어가는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적인 정체성을 키워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소득가정을 위한 국가지원 정책과 같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직업교육과 다문화상담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마련이 필요하다.

“나는 다문화센터 몰라요. 남편이 데려갔어요. 한국에서 힘들어요. 머리가 아파요. 아기가 울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남편이 응급실에서 울었어요.

내가 미안해요. 베트남에서 우울증 약 먹었어요. 손목에 30번 자해했어요. 한국에서도 8번했어요. 아기한테 미안해요. 엄마가 아기 밥 못해요. 기저귀도 못 갈아요. 아기 3개월에 어린이집 갔어요. 토요일은 어린이집 쉬어요. 남편은 일가요. 나는 아기 혼자 봐요. 아기 울면 힘들어요. 우울증 약 먹어야 해요. 다문화센터 상담 받았어요. 우울증이 심하다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가요. 빅뱅 콘서트도 없어요. 한국 살면 재밌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한국 재미가 없고 답답해요.” (참여자 E 2021. 7. 6.)

결혼 초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그들 스스로 다문화센터를 방문하거나 상담센터를 찾는 일은 극히 드물다. 대체로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의 손에 이끌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초등학생이나 중,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그들 스스로 다문화센터의 문을 두드리 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자신의 문제보다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이나 심각한 발달장애로 인한 성장과정의 문제와 어린 자녀를 위한 양육과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자녀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전반적인 양육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언어적 제약이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엄마와 자녀 간의 언어적 소통의 부재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며 어린 자녀로 하여금 이상 행동을 유발시키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올바른 자녀 교육법과 어린자녀와의 갈등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은 기존의 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부모교육과는 달라야 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상호문화존중의 측면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남편은 베트남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 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동생들과 상의해요. 저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대 답도 안하고 그냥 무시해요. 한국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라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결혼 와서 한국말을 공부하는데 남편은 베트남 말을 배우지 않고, 나한테도 베트남 말을 못 쓰게 했어요. 엄마가 베트남 말을 쓰면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 지 못하니까 베트남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후회가

돼요.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내가 한국말을 잘못하니까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위험한 행동을 하면 한국말은 내가 못하고 베트남 말은 아이들이 못 알아들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쌍둥이는 14살이니까 지금 베트남 말을 배우기는 너무 늦었고 셋째는 지금 두 살이니까 베트남 말 가르칠 거예요...중략...저희 남편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말 하고, 한국여자들은 가족들 모임에서 무조건 일 열심히 해야 사랑받는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시댁식구들과 조카들까지 내가 전화해서 생일을 챙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해? 너는 베트남에 계시는 우리아버지한테 전화해봤어?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해요.” (참여자 A 2021. 6. 30.)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에서 그들의 적응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을 향한 남편과 시댁식구들, 나아가 지역사회와 한국사회 전체의 인식과 태도의 개선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처럼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철저히 배척되고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만을 강요하는 동화주의 배우자 때문에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았다. 심한 경우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기억에서 지우고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에 순응하며 한국에 온 이상 한국 문화와 한국정서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도 있었으나 낯선 타국 땅에서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지우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마저 가로막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무시와 배척의 동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로 다가가는 사랑과 보호의 문화다양성이 필요하다.

“우리 남편은 마마보이라서 시어머니 말을 안들은 적이 없어요. 밖에 나갈 때도 시어머니한테 말하고 나가고 잠잘 때도 시어머니가 불 끄고 일찍 자라고 하면 무조건 불을 끄고 잠을 잤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 집에서 시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밤 우리 방 문 앞에서 이불을 깔고 주무시며 남편이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일찍 자게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매일 마늘과 생강을 가져와서 까라고 하셨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빵만 먹는데

시어머니는 된장국에 김치만 먹으라고 했어요. 겨울에 샤워하는데 보일러를 꺼버려서 찬물에 샤워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돈도 없이 시집왔다고 나를 미워하셨고, 아들을 낳은 동서와 딸만 셋을 낳은 나를 비교하며 차별이 심하셔요.” (참여자 B 2021. 10. 6.)

지금까지 시행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의 기조 하에서 관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 문화로의 적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그들을 사회적응의 수동적 존재로 전략시켰다는 지적(김진희, 2011)은 다문화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되새겨 살펴볼 만한 뼈아픈 지점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기조에 반하여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주류문화로의 동화와 흡수의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주류와 비주류 문화구성원 간의 상호문화존중이라는 의식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결혼이주여성보다 자신의 가족들의 입장을 먼저 대변하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에 왔으니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한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문화가정 문제의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다문화교육도 중요하며, 그보다 남편과 시댁식구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과 상호문화존중의 다문화교육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문화교육은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문화 이해교육을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의 부족과 그로 인한 갈등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음식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낯선 타국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문화가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가족구성원들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모국에 대한 향수를 잊고 한국음식에 익숙해질 것을 종용하고 있다. 참여자 B는 주식이 빵인 우즈베키스탄의 음식 문화를 버리고 한국음식문화에 적응 할 것을 요구 받았을 때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가족으로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아침, 저녁으로 빵만 먹는데 시어머니는 된장국에 김치만 먹으라고 했어요. 냉장고에는 김치하고 된장, 고추장만 있어요. 공장에서 마늘과 생강을 많이 가져와요. 하루 종일 마늘 생강을 까고 돈 벌었는데 나는 돈 안줘요. 남편은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아침밥도 회사에 가서 먹고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들어와요.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나만 밥 먹어요. 한국음식이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남편 큰 형수님이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와요. 불고기, 잡채, 김밥은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시골사람이라 한국음식 맛있게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된장국에 김치만 먹어야 해요. 된장국은 맛이 이상해요.” (참여자 B 2021. 9. 15.)

참여자 B에게 있어 김치와 된장국은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맛없고 냄새가 고약한 음식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주었다. 한국의 시어머니는 빵과 우유를 먹어야 하는 외국인 며느리의 음식문화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된장국 냄새에 코를 막는 참여자 B의 행동을 일탈 행위로 규정하며 빵과 우유를 사먹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간과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 문화적 정체성은 자신이 속해있는 민족과 집단의 구성원이나 지식과 관련해서 생기는 자기 개념의 일부이거나 소속감, 민족정체감, 성취, 민족관습 등으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Tajfel, 1986; 노충래, 홍진주, 2006 재인용). 그러나 한국의 가족구성원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간과한 채 단순한 문제로 인식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쉽게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참여자 B의 이야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들과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타 문화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참여자 B의 경우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을 받는 한국사회구성원들에게 타문화를 소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지킬 수 있고, 인권과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권과 관련된 다문화교육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의 부족한 상황에서 차별과 편견, 인권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문화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주민을 차별하지 말고 존중하자’ 등의 규범적 메시지만 남게 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교육의 실태를 보면 다

양한 민족이나 인종들의 사진을 보여준 뒤 ‘피부색, 의상, 얼굴 생김새 등이 달라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도 사이좋게 놀아야 한다는 간단한 메시지만을 전달한다. 특정한 자료나 교재가 없는 인권교육은 집단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의존해 대부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생각과 문제의식을 통해 습득한 내용이 아니므로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참여자 F는 다문화센터에서 받았던 다문화교육의 문제로 타문화소개와 그 문화를 소개한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는 교육이 상이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수업시간에 베트남 말, 베트남 문화를 소개한다고 하면 베트남선생님이 베트남 말로 수업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한국말로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는데 왜 잘 모르는 사람이 소개하는지...(중략)...다문화수업도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좀 이상해요.” (참여자 F 2021. 7. 6.)

이와 같이 다문화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인권교육과 타문화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사들의 자질과 인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다문화교육을 처음 강의한 강사들의 경우 자국의 문화만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강사 스스로 인권이나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점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일본문화를 소개했던 참여자 D의 경우 역사적, 정치 외교적 갈등관계로 인해 일본문화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노인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반일감정이 강한 어르신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참여자 D는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 자각하는 기회가 없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일본문화를 소개할 때는 일본의 대표로서 수업을 하게 된다.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어르신들 앞에서 국가 간 갈등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사이의 균형적 관계를 고민하게 된다. 특히 참여자의 시아버님처럼 가족 중에 강제징용을 당했거나 창씨개명 등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경험했던 어르신들의 경우 ‘일본 사람이라면 치가 떨린다.’ 고 말하거나 ‘독도를 왜 일본 땅이라고 하나?’ 며 노려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럴 때 참여자 D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일본 사람이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일본문화의 대부분은 한국문화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왔어요.” 라고 설명하면 어르신들은 두 눈을 빛내며 참여자 D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한국에 처음 와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는 노인복지관에서 청소와 어르신들 목욕봉사를 했어요. 그러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일본에 대해 적대감이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일본문화를 소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축복결혼’을 한 목적이 한국과 일본의 적대적인 감정을 내가 풀어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왔으니 용기를 내서 수업했어요. ‘일본 사람이라면 치가 떨린다.’ ‘독도를 왜 일본 땅이라고 하나?’고 노려보는 어르신에게 ‘일본 사람이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일본문화의 대부분은 한국문화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왔어요.’라고 말하면 처음에 노려보던 어르신들이 두 눈을 빛내며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음번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참여자 D 2021. 7. 14.)

참여자 D는 일본문화를 처음 접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주여성인 자신에 대한 반응이 적대적일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의 일본이주여성에 대한 반일감정의 정서나 경계심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참여자가 노인복지관에 나가서 청소와 목욕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 유대감이 생겨서 이제는 몇몇 분들의 반일감정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얼굴을 익히기 전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마친 후 ‘일본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축복 결혼을 선택한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서 보람이 있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반일 감정은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역사적 문제로 인한 편견과 갈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 일본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인식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첫걸음으로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2. 다문화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상호문화성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은 ‘국민 됨(nationhood)’에 대하여 각 구성원들 스스로 생각하고 규정하는 자기인식 또는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Brubaker, 1992). 국가와 민족에 대한 구분이 필요 없던 과거와 달리,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의 국민들이 생겨나고, 국민정체성 인식에서도 혈통과 같은 종족적 특징보다는 국적과 정치 공동체의 소속감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황정미, 2010; 윤인진, 송영호, 2011). 결혼이주여성의 성장과정과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사회 속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참여자 F의 내러티브이다. 결혼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 여성들은 국적변동이 결혼생활과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는다.

참여자 F는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자신은 베트남 사람이며, 국적취득이 자신의 국민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참여자 F는 베트남 언어와 문화를 거부하며 한국 엄마로 살아주기를 강요하는 큰아들을 대할 때 마다 국적의 의미가 퇴색되어짐을 느낀다고 하였다. 국적과 상관없이 자신은 원래 베트남 사람이었고,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이 필요 없게 되면 베트남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참여자 F가 자신은 ‘원래 베트남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혈통, 출신 성분으로서의 베트남을 강조하는 것이다.

“남편 따라 한국 와서 결혼하고 한국국적 취득했지만 나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우리부모님이 베트남 사람인데 내가 한국국적 취득했다고 한국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큰아들은 내가 베트남 엄마라서 창피한가 봐요. 저랑 밖에 나가기 싫어해요. 아기 때부터 베트남 말 가르쳐서 유치원까지 베트남 말 잘했어요. 이제는 초등학교 가서 베트남 말 안 해요. 내가 베트남 말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대답했어요. 지금은 3학년인데 내가 베트남 말을 쓰면 못 알아듣고 대꾸도 안 해요. 한국말로 소리를 지르면 그때는 대답은 하지만 내가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숙제도 내가 봐주면 안하고 남편이 늦게 퇴근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아빠한테 숙제를 도와달라고 해요.” (참여자 F 2021. 7. 6.)

참여자 F는 10년간의 한국 생활에서 민족의 고정관념의 변화를 통해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특히 모성의 경험은 이 재구성의 과정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빠르게 진행시킨다. 참여자 F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베트남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베트남 엄마인가 한국 엄마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힘들어 한다. 자신이 베트남 사람이므로 ‘베트남 엄마’로 불리는 것이 맞지만 현재 한국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엄마로서의 모성수행이 한국 엄마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엄마’로 불려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모성실천이 다른 한국 엄마들이 하는 것만큼은 따라가야 하는데, 그만큼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베트남 엄마를 무시하는 아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참여자 F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자신을 한국 엄마와 비교하며 무시할 때마다 자신의 모성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베트남 사람인데 우리 아이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한국 엄마예요. 우리아들은 내가 한국 엄마들과 다르다고 한국 엄마 아니라고 해요. 아들이 나를 베트남 엄마라고 무시하면 섭섭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나는 한국 엄마들과 똑같이 해줄 수 없으니까 한국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 엄마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차별과 편견은 가족들이 더 심하고 속상한 일이 많아요.”
(참여자 F 2021. 7. 6.)

참여자 F는 자신이 베트남 사람은 맞지만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으니 자신은 한국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들은 참여자가 한국 엄마들과 다르다며 한국 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여자 F는 아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이 베트남 엄마인지 한국 엄마인지 혼란스럽다.

그러나 참여자 F는 자신이 베트남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국 엄마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참여자 F는 인력사무소에서 통역 일을 하면서 베트남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자신의 아들에게 베트남 말을 가르쳐서 자신의 남편처럼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어 했다.

참여자 F가 베트남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참여자는 자신이 한국인과

똑같은 한국 엄마로 인정받기를 바랐다. 하지만 자신을 한국 엄마로 인정해주지 않고 베트남 말과 베트남 문화를 배척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아들 때문에 베트남 엄마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참여자 F는 자녀와의 갈등과 사회적 이슈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다. 자신을 한국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아들을 위해 돌봄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베트남 어머니로 구성하고 있었다. 참여자 F는 베트남 엄마이자 한국 엄마이고 싶었다. 자신의 아들이 베트남 엄마를 자랑스러워하지는 않더라도 한국 엄마보다 열등한 것으로 베트남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랐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으로 모성의 삶을 선택하고 위장결혼일 거라는 주위사람들의 의심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일본 통일교의 주선으로 축복결혼을 선택한 참여자 D는 자신이 아이를 낳으면 시댁식구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교 때문에 결혼했을 거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가족들로부터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통일교의 연결로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종교 활동만 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가족들이 처음에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통일교에서 인원접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후로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제가 헌금하고 봉사활동 하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제가 속은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은 뒤로 남편은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활동 다니는 것도 인정해줬어요.” (참여자 D 2021. 7. 14.)

참여자 D는 자신이 아이를 낳으면 가족들의 의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강제징용에 대한 반일감정으로 일본 사람이라면 치가 떨린다는 시댁 식구들의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유일한 해결방법이었고, 참여자 D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에서 모성의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사례는 참여자 B의 이야기이다. 참여자 B가 한국에 온 지 17년이 다 되어 가지만 세 딸의 남편과 살았던 기간은 8년이 안 된다.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은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은 동서와 참여자를 비교하며 차

별하였다. 장애아로 태어난 큰 딸아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남편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한 참여자 F는 결혼 8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고 세 딸을 데리고 집에서 가출하였다.

“시어머니는 아들만 좋아 하셨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돈 없이 결혼하러 왔다고 저를 우즈베키스탄으로 돌려보내버리라고 하셨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 하루 종일 마늘과 생강을 까라고 하셨어요. 큰 딸을 낳았는데 동서가 낳은 아들손자와 차별했어요. 다리에 장애까지 갖고 태어났다고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나도 아들을 낳고 싶어서 둘째와 셋째를 계속 가졌는데 모두 딸만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딸들 안 좋아해요. 그래도 나는 어머니니까 우리 딸들을 지켜야 해요. 큰 딸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남편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했다가 이혼 당했어요. 남편은 이슬람교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고 딸들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세 딸의 양육비로 한 달에 90만원 주는 것도 아까워 하셨어요. 남편은 2주에 한 번씩 딸들을 만나면서 아빠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만약 내가 세 딸들을 낳지 않았으면 한국에서 열심히 살 수 없어요. 벌써 죽었던지 한국 땅을 떠났을 겁니다.” (참여자 B 2021. 10. 6.)

지금까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머니라는 지위가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정체성의 보호막이 되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 F와 참여자 D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한국의 가족문화 속에서 동등한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어머니가 된다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또한 어머니라는 지위는 그들의 자녀와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원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딸만 셋을 낳고 이혼까지 경험한 참여자 B의 사례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참여자 B가 딸들의 생모이고, 지금까지 아들을 키워 온 어머니라는 사실이다.

다문화교육은 사회통합을 일궈내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이다. 이를 위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아정체성이란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주관적 판단을 말한다(정정현, 김선미, 2013).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삶에 대한 만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는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은 건전한 사회

건설의 밑거름이다. 반면,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고 심지어 불행함과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정체성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문화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의 일방적인 동화를 강요받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정체성의 혼란이 그들의 자아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시부모님 집에서 살았을 때 한국말도 잘 못 했는데 시어머니가 돌려서 말하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임신7개월 때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한 단어 한 단어씩 천천히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로 ‘밥 먹었냐?’라고 하시는 것이 ‘밥 좀 해놔’라는 뜻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밖에서 돌아오셔서 밥을 차리라고 해서 그때 쌀을 씻고 밥을 하니깐 ‘내가 전화까지 했는데 밥도 안 해 놓고 너만 먹었냐’고 화를 내시며 집을 나가셨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나를 남편이 끌고나와 그 길로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왜 화를 내셨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한국말을 몰라서 미리 밥을 해놓지 못했는데 무조건 화내시고 집을 나가신 시어머니가 밉고 섭섭했어요.” (참여자 A 2021. 6. 30.)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교육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한계를 최대한 보완하고, 상호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핵심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와 같은 토대를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이질감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아정체성의 무너짐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한국 사회와 잘 소통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이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는 필수조건이고, 다문화교육의 범위 안에서 언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정체성 유지와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좌절, 충족되지 않는 욕구와 결혼생활, 스스로의 무능력함에 빠져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수동적인 자세로 현실을 받아들이며 모든 일에 대해 쉽게 포기하

고 도전조차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무감각,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무조건적인 순종과 강압적인 동화 요구에 따른 피해의식 등은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표현하는 듯 보였다. 또한 과도하게 낮아진 자존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타인 앞에 나서기 등을 꺼리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의 변화는 그들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가게 하였다. 다문화교육은 정체성을 잃어가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정체성을 찾아주는 실천적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 회복과 소극적인 자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체성 회복은 타문화권에서의 적극적인 삶을 개척하고, 다문화교육을 통한 정체성 찾기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를 찾아주는 정체성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초기에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이주민들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 등 적응교육 위주로 실시되었지만, 이후 일반 한국인들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다수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다(이혜영, 2013).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인들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결혼이주여성 강사 양성사업이 등장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는 한국의 가족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인 모국어와 자국문화의 삭제를 요구받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가 아닌 것에 대한 억압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문화와 정체감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금지당하고 있다. 이는 아이의 한국어 습득을 더디게 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아이의 어머니임을 밝혀질 경우 놀림의 대상이 될 거라는 이유다. 그러나 이는 어머니의 문화를 배척하고 한국 사회에 동화될 것을 강요하는 행위다(김정선, 2009).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이민자와 귀화자의 비율은 25.1%로 2015년 40.7%로에 비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배우자나 가족이 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사용을 격려한다는 응답이 25.1%로 2015년 38.9%보다 줄어든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52.3%는 외국인출신 부모의 모어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조차도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부끄러워

하거나 자신의 자녀들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또한 출신국에 따라 어머니 나라 언어도 경제적 가치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잘하면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누구나 배우고 싶어 하는 언어이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저개발국가의 언어는 친구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언어로 평가받는다.

참여자 F의 아들은 유치원 때까지 엄마와 베트남어로 대화가 가능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부터 베트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참여자가 사용하는 베트남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참여자 F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언어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아직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중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이들도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편견 없이 배워볼 수 있는 이중 언어 학교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 타자와의 연대 속에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상호문화성

서구사회의 흑인으로부터 출발한 다문화교육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어왔다는 것은 다문화사회로 입문한 한국 다문화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종과 민족적 이념을 넘어 소수자들이 또 다른 소수자들과 다양한 연대를 맺어갈 수 있는가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소수자들은 전혀 다른 생활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단일한 공통성을 추구하는 연대운동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여타 시민단체들이 소수자 운동과 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윤수중, 2005). 그러나 인종과 민족적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한 인정과 정책 도입은 다른 소수자 지원 정책에도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가 있다. 1970년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과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고용 및 교육 기회의 소수자 우대정책은 인종·민족적 소수자뿐 아니라 여성, 장애인 등 다른 소수자의 차별 문제에도 적용되었다(황정미, 2011).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동등한 참여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시민적 주체로 서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

들은 다문화센터와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무언가를 받기만하는 입장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 했다.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행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은 자기 믿음을 넘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신의 행동에 가치 부여를 가능하게 한다(Honneth, 2011).

결혼이주여성들의 고유한 능력과 활동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실천임을 경험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한국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 사회에 귀속감을 느끼는 것이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사회적 경험과 참여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김정선, 2009).

참여자 A는 주민으로서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을 대변하는 능동적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있었다. 참여자 A는 자신이 한국에 살면서 다문화가족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다문화센터에 다니며 무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다문화센터를 나갈 수 없게 되어 쉬고 있지만, 그동안 자신이 받은 혜택을 생각하면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하루빨리 봉사활동이 재기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ADHD쌍둥이 큰아들과 12개월 된 막내아들까지 아들만 셋을 키우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십 번이 넘는 자해를 시도하는 21살 베트남이주여성과 청소문제로 매일 남편과 싸우는 32살 이주여성의 문제들이 자신의 관심과 상담연결로 조금이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문화가족이니까 무조건 받기만 하고 한국어 공부도, 다문화상담도 무료로 다 해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다문화센터에 가서 청소도하고, 녹색어머니회도 참여하고, 한국말 잘 못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찾아서 통역도 해줬어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을 못해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한국음식 이 입에 맞지 않아서 힘들었고, 시부모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문화를 잘 몰라서 임신7개월 때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베트남 여성들은 문화차이로 인해 남편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저도 경험 했던 일들이니까 통역을 해주거나 상담을 연결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참여자 A 2021. 7. 7.)

이처럼 참여자 A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던 계기는 다문화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이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자립하려면 어떠한 지식과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통해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제가 다니는 다문화센터에 다른 다문화센터장이 오셨어요. 그 센터장이 말했어요. 다문화가정 엄마들은 받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른다고 했어요. 솔직히 어디에 가든 다 그냥 줘요. 교육도 무료로 받고 과자도 주머니에 막 집어넣고 정말 창피했어요. 센터장님 말대로 다문화가정도 의식을 바꿔야 해요. 받기만 하지 말고 나누려면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남편 혼자 벌고 있어서 힘들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막내가 어린이집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직장에 가려고 해요.” (참여자 A 2021. 7. 7.)

참여자 A가 다문화센터에서 받은 수업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다문화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 A의 경우처럼 코로나가 끝나고 막내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당장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와 비주류에 머무르게 하는 이중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자기계발을 통해 돈이 되는 일자리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 주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여자 D도 통일교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 가서 청소와 목욕 봉사를 하고 있고, 빵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딸을 데리고 다니며 독거노인을 위해 요리 봉사활동도 해오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다문화교육을 하는 것처럼 일본문화를 알려주고 일본의 문화는 대부분 한국에서 넘어왔다는 것을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본사람이 다 나쁜 것은 아니네’ 라며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참여자 D는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했다. 가부장적인 남편을 만나 가정살림에만 매달려 살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는 참여자 D는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천함으로써 국제결혼을 선택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나는 결혼하려고 한국에 온 거 아니에요. 일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싶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시부모님은 나를 일본 며느리라고 차별대우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한 달 만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시아버님도 그 뒤로 몇 일만에 돌아가셨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큰 아주버님이 일본이라면 치가 떨리는데 제수씨가 결혼해서 오니까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아이들 아빠가 그러는데 시아버님 형님이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셨는데 시아버님 대신 일본에 징용 가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내가 한국에 결혼 온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은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활동만 한다고 불만이 많은데 일본에서 공장에 다니면서 돈도 벌어들였지만 먹고 쓰는 것 밖에 의미가 없어요. 남을 위해 봉사활동 하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참여자 D 2021. 7. 14.)

참여자 D의 경우처럼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 타자지향적인 능력을 키우며 이주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사안으로 관심이 확대된다.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연대와 책임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만 TASAT(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통해 ‘베트남 여성들은 고압제 때문에 장애아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말한 대만의 입법원의 발언에 항의한 TASAT 회원들은 공개 시위에 나선 첫 행보 이후 이주노동자 차별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고, 댐 건설 반대 노동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민자와 이주자들을 위한 인권보호법 제정동맹인 AHRLIM 설립을 추진하였다(Hsia, 2006). 이와 같이 개인에서 시작하여 공동적 주체로 나아가 대중적 이슈를 이끌어 내며 자신들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민자 운동참여는 역사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들의 능동적 참여와 나눔의 실천은 다문화교육에 반영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타 기관들의 다문화교육 수업에 공유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 A는 지역 내 다문화교육의 통로가 다문화센터, 시민단체, 대학교 등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

비슷한 내용의 강의가 중복되고, 강사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한정된 정부예산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였다. 다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창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커리큘럼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 밖에서도 변화된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이주민 엄마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확장된 모성을 드러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화하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자신들끼리만 어울리는 한국 학부모들과의 관계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차별적 대우는 그들의 주체화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저항하며 일상적인 영역에서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오히려 다문화가정자녀를 문제로 보고 그 문제의 원인을 결혼이주여성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에게 소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어머니로서 모성애가 부족하거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부재와 문화의 차이,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편견은 차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경우가 많다. 우리사회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열등하게 보이도록 몰아가며 편견을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시대란 한 인간이 한 나라의 시민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국경의 초월과 민족적 개념을 뛰어 넘어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세계화를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개인은 세계시민에 걸맞은 구성원으로서의 세계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로서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민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의 시민의식이다. 둘째, 타국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 태도를 의미하는 다국적 의식이다, 셋째, 전 세계 인류의 공동주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참여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지구공동체의식이다, 넷째, 초국가적 형태의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자신의 국가에 대한 관심과 자존감을 나타내는 국가정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지은림, 선광식, 2007). 이와 같이 세계시민으로서 그에 걸맞은 의식을 높여가는 교육이 세계시

민 의식 교육이다. 이를 위한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다양성의 존중, 문화정체성과 상호의존성, 참여의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타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더불어 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방안으로 반편견교육, 인권교육, 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관용교육 등이 제시될 수 있고,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원이 세계시민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다.

“저는 한국에 결혼 온지 30년 넘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한국말이 많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키워 놓고 직장에 가야지 했는데 큰아들이 군대에 다녀와서 복학했는데 아직까지 직장생활은 한 번도 못했어요. 다문화센터에 다니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직업을 구하는 공부도 했는데 나를 써주는 곳이 부업밖에 없어요. 부업은 고생만하고 돈이 안돼요. 남편이 기술개발 한다고 정부에서 빚을 7억이나 빌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잘 안돼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어 올 때가 많아요. 큰아들은 아르바이트 해서 자기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둘째는 대학에 가지 않고 돈 벌겠다고 지금 군대 갔어요. 이럴 때 나라도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직장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참여자 D 2021. 7. 14.)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이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더디게 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취업과 구직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과 직업교육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완성하여야 한다.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의 건설이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반편견교육, 양성평등교육, 시민교육, 관용교육 등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건전한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언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은 건전한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3. 소결

본 연구는 초국적 이주라는 특수한 상황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에서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다뤄봄으로써 그들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문화적응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출발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모국에서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문화적응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었고, 낯선 문화에 대한 경험과 삶의 의미에서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센터와 다누리콜센터, 아동복지관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심리검사와 다문화상담, 다문화학부모상담을 경험한 후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표현보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대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사고전환을 통해 긍정경험을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를 새롭게 확립함으로써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수용적이고 온화한 대처방식을 통해 문제해결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찾고 문제 상황에서 자신감을 발휘하여 외부환경에 귀인 시켰던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삶의 목표와 의미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필요자원을 찾는 과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과 자신감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상담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확립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효능감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 긍정적인 사고를 향상시켜 정신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과 이주를 통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기존의 가치와 신념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그들은 남편과 시대, 지역사회와 직장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있어 다문화상담의 의미는 문화적응에 대한 고단한 삶을 수용해주고, 이중문화의 정체성의 의미를 불어 넣어주며, 상호문화존중의 관용적 태도를 심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에 대한 고단한 삶을 수용해주는 다문화상담은 소수집단의 차이를 수용하고,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문화적 지식을 충족시켜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주고 한국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고, 믿고 의지할 사람하나 없는 타국에서 일상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차별과 편견에 대한 부당함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문화상담은 친정의 의미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상담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먼 미래를 깊게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슬기로운 지혜를 나눠주는 예방주사와 같은 의미로 나타났다.

둘째, 이중문화 정체성의 의미를 불어 넣어주는 다문화상담은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불공정한 사회현실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정 안에서 상호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중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속에 궁극적으로 화목한 가정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상담은 단순한 심리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 스스로 개인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성취감을 고취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상호문화존중의 관용적 태도를 심어주는 다문화상담은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예방하고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과 발달을 촉진시켜 갈 수 있도록 한국사회 전체가 그들을 도와가고 효과적인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상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부모자식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시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상담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사회구성원들에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에서의 원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가 상실된 상태로 한국생활을 겪고 있었다. 사회적지지망이 없는 취약한 소수집단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위계적 성역할은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국제결혼은 자신의 성장과정의 배경이 되는 문화와 상대 배우자의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짧은 기간 동안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문화적응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진심의 대화가 가능한 부부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부족을 이유로 가족의사결정권에서 제외시키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부부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가족구성원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와 문화는 한 나라의 보편적 가치로서 단기적인 정책만으로 해결 되지 않는다. 가족과 이웃, 직장에서 한국인과의 관계망을 확장시켜나가며,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소수자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는 낯선 땅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한국 문화적응에 대한 경험을 공감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각자 개인의 삶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VI.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정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문화적응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경험을 변형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 줌으로써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정이라는 장소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연구참여자는 결혼이주여성 7명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하였고,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신문기사, 웹사이트,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월간지 등을 활용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일정비교분석과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Merriam, 1998).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의 삶의 의미를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적 특성 및 성장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의 아픈 과거임과 동시에 현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추억으로 나타났다. 초국적 이주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문화적응과정을 통해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지만 모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었다. 모국에서의 성장과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큰 자극에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반면, 어떤 참여자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중심을 잃고 불안에 휩싸이고 있었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증상의 원인은 자극이 아니라 성장과정의 환경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자는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문제 원인이 될 수 있는 자극 및 제반 상황을 점검한 다음 작은 자극에도 휘둘리는 약한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성장과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선행연구의 이론을 기초로 결혼이주여성들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적응과정에서 겪고 있는 가정생활문제, 문화적응에 대한 어려움, 자녀양육문제 등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우선적인 해결방법으로 다문화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때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관계를 통해 생존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취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회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고, 완전한 가족관계 속에서 평온하게 자라지 못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모국에서의 가족관계경험을 탐색하여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제와의 경쟁관계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들의 성장과정이 한국생활적응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보내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낯선 타국 땅에서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그들 스스로 문화적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러티브 연구는 다문화상담의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언어와 문화는 한 나라의 보편적 가치로서 단기적인 정책만으로 해결 되지 않는다. 가족과 이웃, 직장에서 한국인과의 관계망을 확장시켜 나가며,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소수자로서 건강한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국제결혼은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주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결혼이 선택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국적을 취득하고,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갖춰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국초기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어공부를 꾸준히 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참여자들은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한국문화이해교육에 참여해본 연구참여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참여자들보다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문화와 가정생활을 일방적으

로 가르쳐서 동화시키려는 목적보다는 그들의 모국에서의 문화를 존중하고 가족들의 지지와 인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 국제결혼은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주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결혼이 선택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학력과 능력을 신장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한국사회를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적응과정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에 협상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 경제활동의 의미는 직업과 소득의 주체자로서 가족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가족의 지지를 받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경쟁사회인 한국의 경제적 현실에서 남편의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녀교육을 대비하여 저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다문화통역이나 다문화홍보활동 등의 기회를 갖는 것은 가족 내 지위가 상승되고 남편과 자녀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구와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는 낯선 땅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문화적응에 대한 경험을 공감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각자 개인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적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논의 및 제언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국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 안정감 있는 삶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한다. 어린 나이에 낯선 타국에서의 적응과정이 쉽지 않은 문제로 대두되지만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자라온 성장배경이 다르고 생활문화의 차이와 언어능력 부족으로 가족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남편, 시부모,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 초점을 두고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상담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화적 가치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내담자의 문화가치와 생활범위 안에서 찾도록 도와주는 상담기법이 다문화상담이다. 상담의 초점이 개인에서 가족과 문화적 이슈로 이동하고, 상담의 방법과 스토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역할은 상담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상담실 밖에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상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다문화상담 교육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상담자의 역량은 문화적 유능성으로, 문화적 유능성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Sue et al. 1992; Sue & Sue, 2015). 첫 번째 요소는 ‘태도/인식(attitude/awareness)’이다. 이는 상담자가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편견, 선입견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지식(knowledge)’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관을 이해하고, 비판에 대해 단적인 태도로 수용해야 하며, 여러 문화집단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 역사, 전통, 세계관, 가족체계, 차별,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입(skills)’은 내담자의 상황과 문화적 가치에 맞는 개입 전략과 기술을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 문제 해결방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지만 문화적 유능성이 높은 상담자는 적극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 상담기법을 선호하는 문화권 내담자를 상담할 때는 이에 맞게 자신의 상담 개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Ng & James, 2013; 신윤정 외, 2019 재인용).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이입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과 교감이라는 결정적 역할로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감정이입은 다문화상담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부적응 문제들을 상담으로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홍성하, 2012).

이와 같이 ‘국적’이라는 특수한 문화적 배경과 특정 하위문화를 갖고 있는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상담은 다른 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을 중지하고 내담자의 경험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태도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상담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상담은 차별과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하고, 이중문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은 그들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교육문제, 문화적응과 한국어습득문제, 사회적지지망 결핍 등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행동을 제거하는 방식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한 긍정적 행동특성을 강화하며, 위협요인을 줄여주고 안전한 생활의 보호요인을 강화해주는 상담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경험과 사회병리 현상을 밝히는데 다문화상담이론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상담이 서양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적 상담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다차원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범위에 대한 이해와 문화가치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집단의 사회적 관심이 상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서구의 인지행동주의, 정신분석, 실존주의 상담이론을 주체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담현장은 개인주의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주류문화에 속하는 소수집단의 내담자 특성과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도달한 결론은 첫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의 차이 등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특히 의사소통의 문제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고,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무엇보다 가부장적인 생활문화로 인해 문화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족 내에서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적응에 성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둘째, 문화적응에 필요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

심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족통합교육과 한국어 교육, 육아 및 자조모임 등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성과 그들의 가정을 성공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기구를 설치하고, 다문화상담과 운영 등 관련된 지원법들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지지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지지체계를 개발하고, 각종 문화와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된다. 더불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통합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례연구에 국한됨으로써 현장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사례 자체가 현장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때문에 질적 연구는 물론 양적으로도 사례연구가 확대되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는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연구 범위가 다문화가정으로 국한되어 연구가 소규모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활동반경은 결코 작지 않고,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참여나 정당 활동,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선주민과 똑같은 사회영역에 대한 참여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간 차이를 분석하는 데 문화충돌의 원인이 되는 그들의 자국문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문화 간 이해는 교차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 대한 문화비평을 전제로 할 때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과 이해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을 한국의 국민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터전은 한국사회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들은 일정기간이 아닌 한국사회에 진출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엄연히 영주권을 소유하고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존재하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을 외국인으로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국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저변의 인식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저개발국 출신이라는 인식보다 한국사회의 가족으로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넓혀져야 한다. 또한 과거 국제결혼과는 달리 최근 들어 중국, 조선족, 새터민, 동남아시아 등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국 실정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그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동질성 파악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다문화정책은 일시적이나 홍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정책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을 타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선주민과 같은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 즉,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다문화상단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국내에도 생겨나고 있고,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연구대상에 비해 그 숫자가 미흡한 실정으로 아직 출발단계에 불과하다. 100년만의 대재앙인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 몰려 방황하는 청년들이 10%가 넘게 되면 경제는 무너지고 자살률은 사상유래 없는 고공행진을 하게 될 것이다. 흑사병이 중세시대의 생활방식을 바꾸었듯 코로나가 전 세계인의 삶에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만 명이 넘는 노숙자가 추운 길거리에서 쪽잠을 자고,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요양병원의 노인들과 보육원 아이들이 외로움과 싸우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소수자들에게 생명존엄의 사상을 전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코로나시대를 극복하고 인류의 행복을 염원하는 의식 있는 상담자들의 존귀한 성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정, 이무영, 한재희(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체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강복정, 강기정, 박수선, 손서희(2016).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4(7), 451-459.
- 강진웅(2016). 한국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비교: 통섭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체성의 동학. 『다문화교육연구』 9(1), 1-24.
- 강하라(2019). 『유아기 첫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희영, 문영민(2017). 『통합적 관점의 이주여성 지원정책 방안연구: 이주 다양성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5 of 2017 정책 연구.
- 고기숙, 정미경(2012).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10), 254-279.
- 고미영(2007). 가능성을 불러오는 이야기의 힘. 『국어국문학』 146, 151-180.
- 고예정(2014).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공운정(2008). 『상담자윤리(상담자 전문성 개발영역)』. 서울: 학지사.
- 곽금주(2008). 통합심포지엄 :다인종, 다문화시대 한국 사회의 심리학적 과제와 전망;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8, 1-26.
- 구수연(2010). 다문화 현상이 갖는 딜레마. 『다문화콘텐츠연구』 3, 65-92.
- 국가권익위원회(2017).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2017년도 인권상황』. 국가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권미경(2007). 교육문화 과제 탐색: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에 관한 질적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명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 향 :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옥(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규식(2016).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정착화 과정 및 지원정책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나영(2014).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생성(salutogenic)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도희, 박영준, 이경은(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양육행동에 관한 인과모형 탐색. 『농촌사회』 17(2), 1-31.
- 김도희, 이경은(2010). 결혼이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15(2), 5-25.
- 김동일(2012). 『‘Big5’ 성격검사 전문가 지침서』. 학지사.
- 김동호(2013).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자의 문화적 유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 공감능력, 여성주의 상담역량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희, 김은심(2015).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지된 건강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 29(2), 344-353.
- 김두년(2013).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법학연구』 49, 325-347.
- 김두섭(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 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 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회』 29(1), 25-56.
- 김만호(2018). 일본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이 자녀교육 수행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영(2018).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를 위한 가정 생활교육프로그램개발. 서울한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원(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

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2007).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지방 사회의 필리핀 아내. 『페미니즘연구』 7(2), 213-248.
- 김민정(2014).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고부갈등 경험: 중국, 베트남,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시부모와의 동거경험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범수(2007). 일본의 다문화공생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31, 86-112.
- 김수연(2019). 가족확대기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스트레스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규, 이주재(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김연수(2007). 남편의 아내모국문화 이해노력과 심리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59-580.
- 김연수, 박지영(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경험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 269-297.
- 김연수, 현경자(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653-677.
- 김연숙(2000). 레비나스 타자윤리의 선진유가적 이해. 『유교사상연구』 14, 537-568.
- 김영순, 임지혜, 정경희, 박봉수(2014).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나타난 정체성협상의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회』 10(3), 36-96.
- 김영순, 오영훈, 정지현, 김창아, 최영은, 정소민, 최승은, 조영철(2016). 『처음만나는 다문화교육』. 고양: 북코리아.
- 김영순(2017).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북코리아.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한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

- 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임환나(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영순, 조영철, 김정희, 정지현, 박봉수, 오영훈, 손영화, 박종도, 이미정, 정경희, 박미숙(2019).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 북코리아.
- 김영순, 김선정, 오영훈, 이미정, 김창아, 김기화, 박미숙, 윤현희(2020). 『한국다문화사회의 교육과 복지실천』. 집문당, 2020, 134-137.
- 김영옥(2012).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불안에 대한연구 : 경기도 S시의 필리핀 여성들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혜, 안태운, 남효정(2011). 『경기도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상담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영희, 정선영(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가정과학의질연구』 25(5), 65-82
- 김예란, 유단비, 김지윤(2009). 인종, 젠더, 계급의 다문화적 역학. 『언론과 사회』 17(1), 2-41.
- 김은경(2010). 다문화가정 모-자녀의 긍정심리성향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 프로그램개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실, 김정선(2007). 지구/지역 시대 개인들의 행위 전략으로서 국제결혼: 새로운 아시아/지역으로서의 충남 J 마을 사례 연구. 이상화, 김은실, 허라금 외. 『지구화 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인아(2016).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가족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선(2009).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귀속(belonging)의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선(2010).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귀속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26(2): 1-39.
- 김정훈(2017). 한국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인식: 다문화가족

-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0(2), 92~95.
- 김정열, 박수준, 유정옥(2014).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경기: 공동체.
- 김지영, 최훈석(201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총서』 11(1), 1-4.
- 김진희(2011).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이주여성노동자의 교육 참여 현실과 평생교육의 방향성 모색. 『평생교육학연구』 17(1), 25-51.
- 김창기, 이진성(20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2), 296-307.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2008). 상담일반: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태호(2009). 상담의 윤리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적 접근. 『다문화교육연구』 2(1), 57-78
- 김태호(2009a). 다문화상담과 다문화정책. 2009년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학술자료집.
-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서울: 또하나의문화.
-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9, 10-37.
- 김현미, 김기돈, 김민정, 김정선, 김철효(2007).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현미(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 57-105.
- 김현미(2010).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Home) 만들기: 문화 접경지대 번역자로서의 이주여성. 『비교한국학』 18(3), 145-175.
- 김현미(2013). 『누가 100퍼센트 한국인인가, 우리 모두 조금 낮은 사람들』. 파주: 오월의 봄.
- 김현숙(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2), 139.

- 김현아(2013). 다문화상담 관련 종사자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상담자 자질의 관계: 다문화상담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3), 717-1737.
- 김현아, 이자영(2013a). 문화상담자 교육 콘텐츠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다문화 현장전문가 FGI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3), 468-484.
- 김현아, 이자영(2013b). 다문화 현장전문가가 인식하는 다문화 내담자의 주요문제와 특성. 『재활심리연구』 20(2), 337-368.
- 김혜미(2021).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vol.38, no.2, pp. 29-42 (14 pages).
- 김혜선(2012). 초국가적 가족의 형성과 가족유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신(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 부부의 가족 건강성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진, 김현주(2017). 초보상담자의 중도입국청소년 상담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4(1). 23-58.
- 김효선(2015).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발전방향 모색. 『미래교육연구』 5(12). 1-15.
- 김효선(2020).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정(2014).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 향상을 위한 CBT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윤주, 이숙(2009).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아개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9), 27-36
- 남인숙, 안숙희(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99-108.
- 노은하(2016). 한국 이주 중국 여성의 어머니 됨.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충래, 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 경기 지역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다누리콜센터(2018). ‘2018 다누리콜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건위원회.
- 단효홍(2018). 초국가적 가족유대를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의 행위주체성 : 한국 내 중국 한족 여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무숙, 김이선, 이춘아, 이소영(2009). 『다문화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귀천, 이유봉(2012).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14), 46쪽.
- 박민희(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동숙(2018).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과 정서적 유능감이 자녀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명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신규(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구미지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1), 40-53.
- 박선태(2012). 결혼이주여성의 역할 부담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double ABCX 모델의 적용.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자(2012).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 방향: ‘상호문화주의’ 시각과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7(1), 299-333.
- 박은정(202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채(201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세계시민의식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철민(2012). 개인적·가족적·사회적 특성이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문화적 적응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3), 413-436.
- 박현성(2014). 결혼이주여성의 일·가정양립경험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변화순, 이미정, 김혜영, 황정미, 이선형(2008).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법무부(2020).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 서양임(2014). 일본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문화심리 적 현상.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정원(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홍란, 김기연, 김양호(2008).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21-143.
- 선성혜(2016). 한국과 일본의 비공식 복지체계 비교 연구: 가족 간 사적 이전 소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희식, 이해경, 임경택(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설임추(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자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방법학』 32(1). 45-68.
- 성상환, 김광수, 임은미(2010). 『다문화가정학생 지도교사를 위한 상담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센터.
- 송복희(2012). 아시아지역 가정생활문화를 통해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 생활 적응전략.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윤선, 이미나(2019).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관련 KCI연구동향: 1993년~2017년까지 게재논문 41편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4), 697-706.
- 신경림, 조명옥, 양지향(2005).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승연(2007). 다문화가족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신윤정, 김은하, 이은설(2019). 대학생용 계층차별주의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2), 605-621.
- 안신호, 이진환, 신현정, 홍창희, 정영숙, 서수균, 김비아(2009). 『긍정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안증애(2016). 결혼이주여성 상호문화교육과 상호문화상담에 관한연구, 광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현정(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승민(2008).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승민, 연문희(2009).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1(4), 943-966.
- 양옥경, 김연수(2003).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개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11, 115-147.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엄명용, 노충래, 김용석(2015). ‘사회복지실천 기술의 이해’, 학지사.
-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여성가족부(2019).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엄지숙(2001). 『유아교육에서의 질적연구』. 서울: 문음사.
- 엄지숙(2003).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엄지숙(2009). 유아교육연구에서의 내러티브 탐구, 관계와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 주목하기. 『유아교육학연구』 13(6), 235-253.
- 오미정, 오은정(2018).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2(2), 96-105.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3), 61-83.
- 오성배(2006). 한국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오세민, 박정훈, 홍성휘(2017). 기초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정현황과 내용에 관한 분석:경기도 내 시·군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8(1), 74~103.
- 오옥선, 김성봉(201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 들여다보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2), 235-2
- 오옥선(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은경, 최미, 최한나(2016). 국내 다문화상담 연구동향: 학술지 및 학위논문 분석(1993~2016.7). 『상담학연구』 17(5), 223-242.
- 오주연(2018). 결혼이주여성 학부모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당진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3).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수정, 이청아(2022).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 미치는 사회적 관계: ‘단단한 껍데기’와 ‘날개’가 되는 관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Vol. 114 No. 3 pp. 113~140
- 유재신(2008).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의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정균(2021). 혼인이주여성의 출산아수별 출산계획: 계층이동 경험과 외국인 비중의 영향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1), 106-139.
- 유현실(2009).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현희(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과 가족응집력의 매개효과.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수종(2005).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 서울: 이학사.
- 윤인진, 송영호(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윤형숙(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위주원, 최한나(2015). 한국사회 다문화상담자가 지각하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개념도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40, 87-130.
- 이국진(2014). 결혼이주여성의 영유아기 자녀양육을 통한 사회적 관계와 부모정체성 탐색.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진, 최유정, 최셋별(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이무영(2010). 다문화가족 한국 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경, 안상근(2018).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농업교육과 인적개발』 50(3), 155-181.
- 이민자(2019).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병석, 나인숙(2012). 『영유아 다문화 인성교육』. 학지사.
- 이상노(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형(2014).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소영(2013).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와 다문화시민권리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소희(2009). 트랜스내셔널 장에서의 페미니스트 주체 형성과 연대의 정치학. 『영미문학페미니즘』 17(1), 209-236
- 이수안(2007). 이주여성의 타자성과 관용의 상호 발현에 대한 이론적 모색 : 재독 한인여성의 이주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2, 73-107.
- 이순자(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관계성 연구 : 부

- 부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조절효과 검증. 성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숙경(2012).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남(2011).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모역할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란(2019). 다문화상당자 역량모형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주(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옥순(2008). 관용과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배려 교육론 적 고찰. 『도덕윤리교육』 26, 63-86.
- 이은경, 황현숙(2016). ‘다문화정책 연구보고서’, 희망제작소 사회의제 팀.
- 이주재, 김순규(201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4호. 73-91.
- 이지현, 진수진, 주현정, 조연실(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 부부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4(1), 87-98.
- 이지영(2019). 다문화가정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 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2), 105-125.
- 이진경(2021).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 메타분석.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희(2009). 이주여성어머니 교육프로그램이 모성역할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신생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운(2017).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검증. 중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춘양(2021). 한부모이주여성 삶의 성장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지』 40(5), 258-298.
- 이혜경, 전해인(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학회지』, 18(4), 413-432.
- 이혜영(2013).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외국인 강사들의 참여경험 연구: 서울시 ‘교실로 찾아가는 먼 나라 이웃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자(2016).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화도(2011). 상호문화성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의 이해, 『비교교육연구』 21(5), 171-193.
- 임금빈(2016). 폭력피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응력의 매개효과와 사회적배제의 조절효과를 결부하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성주(2017). 여성결혼이민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생활만족도: 2016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2018a).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9(1), 421-442.
- 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2018b). 일반 상담역량, 다문화 상담역량, 사회정의 옹호 상담역량의 구조적 관계 및 잠재집단 탐색. 『상담학연구』 19(5), 209-232.
- 임혁(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4), 189-221.
- 임현숙(2009).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한 삶의 전환 체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형백(2009).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와 정책 비교. 『다문화사회연구』 (2), 161-185.
- 장성숙(2010). 한국인의 심리상담 이야기, 현실역동상담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장영신(2018). 액션러닝을 활용한 다문화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다문

- 화 역량과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수행 경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은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은정(2020). 여성상담자의 성역할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내러티브탐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인실, 김경근, 모경환, 민병곤, 박성혁(2012).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학지사.
- 장혜경(2009). 집단미술치료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연구』 16(4), 699-717
- 장훈성(2018).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경상북도 다문화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복동(2016). 한국의 다문화정책 변화와 과제 : 다문화가족서비스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공헌학회지』 3(2), 21-38.
- 정유리(2016). 초국가적 이주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180-194.
- 정정현, 김선미(2013). 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학생의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정체성과 자아정체성 비교분석. 『사회과교육연구』 20(4), 97-107.
- 정천석(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 유형에 관한 질적 비교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혜영, 김진우(2010).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29-55.
- 조대훈(2015). 글로벌 · 다문화 한국의 ‘시민’ 과 ‘시민교육’ : 새로운 쟁점과 과제. 『교육과학연구』 17(1호), 1-18.
- 조상호, 김치용(2017). 영화를 이용한 성인아이 치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 연구.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Vol. 20, No. 1, pp. 82-92.
-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최영인(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원휘(2019). 이주여성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대만 중심으로

- 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숙, 김민경, 최연실(2015).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다문화가족 대상 상담 업무 현황과 종사 인력의 교육 요구도를 중심으로. 『가족과가족치료』 23(1), 89-113.
- 조인주, 현안나(2012).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177-206.
- 조진숙, 황재원(2017).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경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2): 931-954.
- 조희원(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결혼이주여성, 아시아. 『유럽미래학회』 7(3) 259-274.
- 조현미(2009). 일본인 국제결혼여성의 혼성적 정체성. 『일본어문학』 45, 521-544.
- 조혜련(2014).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과정과 맥락에 관한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미연(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의사 결정요인 분석,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은선, 이현정(2010).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 관련 종사자들의 현장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9(4), 817-846.
- 주은선(2011). 다문화상담 관련 종사자 경험 연구와 연구방법의 제고. 『가족 과 상담』 1(2), 41-55.
- 지은림, 선광식(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분석. 『시민교육 연구』 39(4), 115-134.
- 지은진, 최지명, 김교현, 권선중, 박은진, 이민규(201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7(1), 243-252.
- 천성문, 이영순, 박명숙, 이동훈, 함경애(2021).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최가희(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 최금혜(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여성

- 연구』 72, 143-188.
- 최문희(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와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미희(2017). 다문화상담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다문화학생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인간』 6(1), 1-29.
- 최병두(2012). 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 공간적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7(1), 13-36.
- 최상진, 김기범(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3(2), 279-295.
- 최승호(2019).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프로그램 요구분석. 『인문사회21』 10(2): 701-712.
- 최정숙, 오지영(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미술활동활용 집단 프로그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3(9), 319-348.
- 최정혜(201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및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4): 153-171.
- 통계청(2022). ‘2021 인구통태통계연보’
- 하윤주(2011). 원예요법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가은(2021).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19.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9). 『2018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 사업 연간실적보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서연(2012). 다문화가정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수연, 설염추, 성춘향, 박용한(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스트

- 레스,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한국교육방법학회』 29(1), 1-23.
- 한숙자(2011).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전략의 모색. 『복음과상담』 17, 9-43.
- 한재희(2011). 『한국적 다문화상담』. 서울 : 학지사.
- 함진옥, 조인주(2012).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사회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4(3), 65-97.
- 함진옥(2017).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함필주, 강기정(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및 취업준비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3), 525-541.
- 현경자, 김연수(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7(4), 653-677.
-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달아기, 채옥희(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지』 16(4), 733-744.
- 홍달아기, 채옥희, 한은진, 송복희(201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문화적응 단계별 특성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6(4), 1-22.
- 홍미기(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하(2010). 다문화 상담이론에서의 방법론적 토대로서 현상학. Philosophy, The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05, 143-168.
- 홍성하(2012). 다문화상담에서의 감정이입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철학』 112, 193~224
- 홍영숙(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5-22.
- 황미경(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의 다문화 역량과 서비스 질에 관한 연

- 구: 서울, 경기지역 다문화지원센터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5(2), 115-145.
- 황재섭(201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무용 참여를 통한 문화적응력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19(2).
- 황정미(2010).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한국의 다문화교육 아젠다에 대한고찰. 『담론』 201. 13(2).
- 황정미(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27(4), 111-143.
- 황혜영, 이미정(2015).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5(4), 415-425.
- Luo Le(2016).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문화적응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수준간의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 BBC코리아(2022.2.17.일자) ‘그래서 조선족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0342568?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 경향신문(2011.02.15.일자). “조화롭게 살자더니... ‘우리의 가치가 싫으면 떠나라’ .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1102152142035>
- 교육과학기술부(2013). ‘교사를 위한 다문화학부모 상담 길라잡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글로벌이코노믹(2021.11.16.일자). “베트남, 중산층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 https://news.g-ene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11081225399964428b74b45e_1/article.html?md=20211116143850_U

다누리(2020). www.liveinkorea.kr. 자료 검색.

마음의길(2020.12.30.일자). ‘단 15분만 봐도 이혼 예측할 수 있다’. <https://www.mindgi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35>

법무부(2011).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 지원’ 출처: kind3@yna.co.kr

법무부(2022). 통계월보 2022.

신동아(2006.10.10.일자). “해체되는 공동체, 사라지는 한국어”.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0507/1>

아주경제(2021.10.17.일자). “K-POP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나? ⑦한류, 베트남의 보편가치로 우뚝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1013025121408>

아주경제(2021.12.11.일자). “김태언의 베트남 통(通) ‘베트남 여성이 사라진다’. 성비불균형 문제 심각”.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8064734162>

연합뉴스(2019.3.3.일자). “이집트 종교지도자 ‘일부다처제, 여성·아동에 종종 불리’ ”.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3048100111?input=1195m>

연합뉴스(2021.4.1.일자). “국제결혼 중개 이용자 학력·소득 수준 높아져..”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077600371>

연합뉴스(2022.1.12.일자). “한국인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미국…중국은 가장 불신”.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136500371?input=1195m>

인저리타임(2019.12.17.일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https://www.injurytime.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3>

베이비트리(2021.10.25.일자). “못 들은 건지,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우리 아이”. <http://babytree.hani.co.kr/85381>

중앙일보(2016.3.24.일자). “이중 언어사용이 아이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3가지”. <https://www.joongang.co.kr/article/19775875>

한겨레(2021.8.10.일자). “470만 태아들이 사라진다…딸이라는 이유로”.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07086.html>

헬스조선(2015.8.1.일자). “부부끼리 안 싸우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법”.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8/2

015072800917.html

헬스조선(2017.7.5.일자). “통일교 출신이 알려주는 통일교의 모든 것” <https://hellchosun.net/71>

HK TEL(2013.10.19.일자). “사돈의 나라 베트남” , <https://m.blog.naver.com/mclhkg/60201972651>

YTN(2022.5.12.일자). “다문화 사회’ 진입 ‘눈앞’...짚어야 할 점은?”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122016312169

해외문헌

- Alba, Richard & Nee, Victor. (2009). Chapter two: Assimilation Theory, Old and New, in *Remaking the American Mainstream: Assimilation and Contemporary Immigr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7-66.
- Albert Bandur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tol*. 박영신, 김의철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문화심리학 총서 3. 교육과학사.
- Allemann-Ghionda, C. (1999). *Schule, Bildung und Pluralität: Sechs Fallstudien im europäischen Vergleich*. Bern Verlag.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2014). *2014 ACA Code of Ethics*.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Arredondo, P., Toporek, R., Brown, S. P., Jones, J., Locke, D. C., Sanchez, J., & Stadler, H. (1996). Operationalization of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4(1), 42-78.
- Arredondo, P., Tovar-Blank, Z. G., & Parham, T. A. (2008). Challenges and Promises of Becoming a Culturally Competent Counselor in a Sociopolitical Era of Change and Empower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6, 261-268.
- Atkinson, D. R., Morten, G., & Sue, D. W. (1993).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4th ed. Brown & Benchmark/Wm. C. Brown Publ.
- Auernheimer, G. (2003). *Einführung in die interkulturelle Erziehung*. 3. neubearbeitete u, erweiterte Auflag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 Buchgesellschaft.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박영신, 김의철 역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문화심리학 총서 3. 서울: 교육과학사.
- Banks, J.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모경환, 최충욱, 김명정, 임정수 역 (2022). 『다문화 교육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Baruth, L. G. & Manning, M. L. (2007).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J: Prentice Hall.
- Basilio, L., Bauer, T. K., & Kramer, A. (2017). Transferability of human capital and immigrant assimilation: An analysis for Germany. *Labour*, 31(3):
- Baucom, D. H., Epstein, N., & Lataillade, J. J. (2002). Cognitive - behavioral coupletherapy. In A. S. Gurman, & N. S. Jacobson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therapy* (pp.26-58), Guilford Press. 245-264.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ed. Amado M. Padilla, Boulder. co: Westview, 9-25.
- Berry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207-236. in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edited by P.124 R. Dasen, J. W. Berry and N. Sartorius. Newbury Park, CA, Sage.
- Berry et al., (1988).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2005).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p. 17-38 in *Acculturation*, edited by Kevin M. Chun, Pamela Balls Organista and Gerardo Marin. Washington D. C: Decade of Behavior.
- Berry, J. W., & Hou, F. (2016). Immigrant acculturation and wellbeing in Canada. *Canadian Psychology / Psychologie canadienne*, 57(4), 254-264.
- Brubaker, R.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uber, M. (1964) Reden über Erziehung. 우정길 역(2010). 『교육강연집』.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 Buber, M. (1979). Ich und Du, 10. Auflage, Heidelberg: Lambert Schneider.
- Camilleri, C. (2006). Prinzipien einer interkulturellen Pädagogik. In Hans Nicklas et al. (Eds.). Interkulturell denken und Theoretische Grundlagen und gesellschaftliche Praxis, Frankfurt/Main: Campus, 47-54.
- Carlo, M. de (1998). L'interculturel. 장한업 역(2011). 『상호문화 이해하기: 개념과 활용』. 파주: 한울.
- Chou, W. J. (2010). Maternal mental health and child development in Asian immigrant mothers in Taiwan. *Journal of the Formosan Medical Association*, 109, 293-302.
- Clandinin, D. J.(Ed.).(2007).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강현석 외 역(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4). Knowledge, narrative, and self-study. In: J. Loughran, M. Hamilton, V. LaBoskey & T. Russell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self-study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practices (pp. 575-600).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ing.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7).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84-185.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역(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연구의 경험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은 2000에 출판)
- Clandinin, D. J. (2012).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 강현석, 소경희, 박민정, 박세원, 박창언, 염지숙, 이근호, 장사형, 조덕주 역(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2015).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염지숙, 강현석, 박세원, 조덕주, 조인숙 역(2015).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파주 : 교육과학사. (원저 2013).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2006). Narrative Inquiry, In J. Green, G.

- Gamilli, & O. Elmore (Eds.), Handbook of Complementary Methods in Education Research, MJ: Lawrence Erlbaum, 375-385.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 PR-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reswell, J. W. (1998; 200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 (2010).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Dewey, J. W.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박철홍 역(2002). 『경험과 교육』. 문음사, 서울.
- Dilthey, W., (2002). The Formation of the Historical World in the Human Sciences, ed. by Rudolf A. Makkreel and F. Rodi, Princeton Univ. Press, New Jersey.
- Ezzy, d. (2002). *Qualitative analysis: Practice and innovation*. London: Routledge.
- Gamst, G., Dana, R. H., Der-Karabetian, A., Aragon, M., Arellano, L., orrow, G., & Martenson, L. (2004). Cultural competency revised: The california brief multicultural competence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7(3), 163-183.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 Gottman, J. M., &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47-52.
- Gottman, J. M. (1994). *Why marriages succeed or fail*. NY: Simon & Schuster
- Herskovits, M. J., Redfield, R., & Linton, R.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Revised and expanded. McGraw-Hill, New York.
- 차재호, 나은영 역(2014).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 Honneth, Axel(2011). 문성훈, 이현재 역(2011). 『인정투쟁』. 사월의책.
- Ivey, A. E., D'Andrea, M. D., & Ivey, M. B. (2012).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Multicultural Perspective* (7th ed.). London: SAGE. 김병석, 김지현, 최희철, 선혜연 역(2015). 『상담이론과 실제 - 다문화 관점의 통합적 접근』. 서울: 학지사.
- Ivey, A. E., Ivey, M. B., & Simek-Morgan, L. (200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multicultural perspective*. Boston: Allyn Bacon.
- Jo, H. J., Yeon, B. K., Han, C. H., Ryu, S. G., & Lee, S. (2017). A pilot study on the status of mental health in marriage immigrant women in Hanam cit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iatry, 17*(2), 108-115.
- John Murraay Gibbon, (1938). *Canadian Mosaic: Making of a Northern Nation*. 토론토: McClelland & Stewart.
- Kim, Mi-Kyung(2010) Globalization, glocalization, multiculturalism: A proposal for globalization form below.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59*, 207-252 (in Korean).
- Kim, J. K., & Yoo, K. H. (2019). Effects of Self-esteem on Nursing Students' Resilienc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6*(3), 261-269.
- Kim, Shin-Jung, (2010). The embodiment of multicultural space and 'migration' - the multicultural aspects in Korean Poetry,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26*, 113-143 (in Korean).
- Kim. Y., Kim, M., & Han, G. (2006). *Cultural conflict experience of immigrant women and promotion policy challenges for communication*. Seoul: Korean Women' s Development Institute.
- Laird, J. (1989). Women and stories: Restorying women's self-constructions. In M. McGoldrick, C. M. Anderson, & F. Walsh (Eds.), *Women in families: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pp. 427-450).
- Lévinas, E. (1979). *Le temps et l' autre*. 강영안 역(1997).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 Li, L., Jiang, R., He, Z., Chen, X., & Zhou, X. (2020). Trajectory data-based traffic flow stuSIEs: A revisit.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C: Emerging Technologies, 114*, 225-240.

- Louann Brizendine. (2006). ‘여자의 뇌(The Female Brain)’ , 리더스 북, 임옥희(옮김이)2007.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Mason, J. (1996). *Qualitative Researching*.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김두섭 역(2005). 『질적연구방법론』. 파주: 나남출판사.
- Merriam, S. B.(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Minami, M. (2008). *Reconstructing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Construct explication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Ng, C. T. C., & James, S. (2013). “Directive approach” for Chinese clients receiving psychotherapy: Is that really a priority?. *Frontiers Psychology, 4*(4), 1-13.
- Pedersen, P. (1990). The multicultural perspective as a fourth force in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12*(1), 93-95.
- Pedersen, P. (1994). *A Handbook for Developing Multicultural Awareness*. Alexandria, VA: American Association for Counseling and Development.
- Patterson, F. M. (2004).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from the Lives of Aging International Migrant Women. *International Social Work 47*(1), 25-47.
- Polkinghorne, D. E. (2009).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39, 254-257. 강현석, 이영효, 최인자, 김소희, 홍은숙, 강웅경 역(2009).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인문과학 연구의 새지평』. 서울: 학지사. (원전 1988 출판).
- Portera, A. (2005). Interkulturelle Pädagogik und Erziehung in Europa. In: Vierteljahrsschrift für wissenschaftliche Pädagogik.
- Reynolds, P. D. (1979). *Ethical Dilemma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CA: Jossey-Bass.
- Ricoeur, P. (1990). Soi-même comme un autre. 김웅권 역(2006).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서울: 동문선.
- Rey. M. (1986). Training Teachers in Intercultural Education?, The Work of the

- Council for Cultural Cooperation(1977-83).
- Rey-von Allmen, M. (2010). The Intercultural Perspective and its Development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Council of Europe, C. A. Grant, & A. Portera(ed.), *Intercultural and Multicultural Education: Enchacing Global Interconnectedness*, New York: Routledge, 2010, p. 33.
- Rey-von Allmen, M. (2010). The intercultural Perspective and its Development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Council of Europe. In *Intercultural and Multicultural Education* (pp. 47-62). Routledge.
- Searle, W., & Ward, C.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4), 449-464.
- Seidman, I. E.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teachers in education and social sciences*(3th. ed.). New York, NY: Teacher College Press. 박혜준, 이승연 역(2009), 『질적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학지사: 서울.
- Seo, D. (2010). Features and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studies Korea: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focusing on qualitative research. *The Journal of Migration & Society*, 3(2), 5-32.
- Shin, J. C. (2012).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in Korea: Western University ideas, Confucian trad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Higher Education* 64(1), 59-72.
- Sodowsky, G. R. (1996).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Inventory: Validity and Applicationas in Multiculturan Training. In G. R. Sodowsky & J. C. Impara (Eds.). *Multicultural assessment in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pp. 283-324). Lincoln, NE: Buros Institute of Mental Measurement.
- Sodowsky, G. R. & Lai, E. W.(1997). Asian immigrant variables and structural models of cross-cultural distress. In Booth, A., Crouter, A., & Landale, N.(Ed.), *Immigration and the Family: Research and Policy on U.S. Immigrants* (pp.211-234).
- Smith, M. P. and L. Guarnizo. (1998).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Inc.
- Sue, D. W., Bernier, J. E., Durrant, A., Feinberg, L., Pedersen, P., Smith, E. J., et al. (1982). Position paper: Cross-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Counseling Psychologist, 10*, 45-52.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4), 477-486
- Sue, D. W. V. (1992). The challenge of multi-culturalism: The roadless traveled. *American Counselor, 1*, 7-14.
- Sue, D. W. (2001). Multidimensional facets of cultural competen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6), 790-821.
- Sue, D. W., & Torino, G. C. (2005). *Racial-cultural competence: Awareness, knowledge, and skills* in Carter(edit.), Handbook of Racial-cultural Psychology and Counseling: Training and Practice. NJ: Wiley.
- Sue, D., W., Ivey, A. E., & Pedersen, P. B. (2008). Theory of multicultural counseling & therapy, 1st ed.. 김태호, 임은미, 김인규, 은혁기, 김명식, 서혜석, 하혜숙, 김영혜, 김수아, 정성진 역(2008). 『다문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태영출판사.
- Sue, D. W., & Sue, D. (2008).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5th ed.).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이준호, 임은미 공역(2011). 『다문화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Sue D. W., & Sue, D. (2012).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John Wiley & Sons. 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이호준, 임은미 공역(2017). 『다문화상담』. 학지사.
- Sue, D. W., & Sue, D. (2015).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7th ed). NJ John Wiley & Sons.
- Tajfel, H. and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and L. W.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gago: Nelson-Hal

- Taylor, D. M. & Lambert, W. E., (1996). Language in the lives of ethnic minorities: Cuban american families in miami. *Applied Linguistics*, 17(4), 477-500.
- Ward, C., & Kennedy, A.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 Webster, L., & Mertova, P. (2007). *Using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 An introduction to using critical event narrative analysis in research on learning and teaching*. New York, N.Y: Routledge.
- Worthington, R. L., Soth-McNett, A. M., & Moreno, M. V. (2007).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research: A 20-year content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51-361.



ABSTRACT

Exploring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Counseling in the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Chae, Gyeong Ran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February, 2023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counseling of immigrant women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ir cultural adaptation process using narrative analysis. This study focuses on the life experiences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Korean men, their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and their cultural adaptational process. This study also explores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counseling for their adaptation process using narrative analysis.

This study focuses on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spouse and immigrant wome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nflict with their in-laws and difficulties in raising children. A total of seven immigrant women of international marriage participated in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parental counseling at OO Children Welfare Counseling Center in Incheon. Using narrative qualitative analysis, these women were interviewed to understand their cultural adaptational experiences and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counseling.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is the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 of immigrant women of international marriage?

Second, what is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counseling for their cultural adaptation?

First, to investigate the two research questions, indepth interviews of their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s were conducted. Second, by examining their cultural adaptation life experiences,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effective coping mechanism during the process of integrating into Korean society.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six months, from June to December 2021. Participants included seven women: Four women who grew up in Vietnam, and one from Japan, China and Uzbekistan. They were interviewed for a total of 3-5 90-minute sessions. To ensure research validity, Merriam's (1998) triangulation approach was adopted.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using narratives analysis and meaning of their multicultural counseling are as follows. First, as found in Chapter IV, the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 of immigrant women of international marriage can be categorized into Independent cultural adaptation type, Compromising cultural adaptation type, and Passive cultural adaptation type.

First, the participants of the Independent cultural adaptation type was creating her own life focusing on her religion and love. A mother-in-law who scolds her for marrying her son without a penny from a poor country, and a mama boy husband who cannot say a word in front of his mother, divorces her husband, takes her three daughters and remarries an Egyptian man. She is building an independent life with religion and love. Another participant, separated from her poor working parents and living in her grandfather's house, suffered indescribable pain, but married an illegal Chinese immigrant man and overcam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o live as a full-fledged Korean. Based on her harsh childhood experiences, she overcame misfortunes

and nurturing the embers of hope, courage and determination that she would raise her children to live an independent life.

Second, the participant of the Compromising cultural adaptation type learned to compromise with the reality through religious practices. Overcoming the historical dist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 wisdom, becoming closer to her in-laws, and enduring her fiery husband personality with silence, she was sublimating her intense emotions into religious activities. She learned wisdom from her maternal mother and although she was living a hard and difficult life by compromising, she maintains her dreams for family and her many children.

Third, the participant of the Passive cultural adaptation type became caught in her environment, lost her sense of self and living helplessly. At the young age of 21, she married a Korean man 26 years older and gave birth to a child she did not want. She was living a precarious life with depression and helplessness in a lif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reason why she came to Korea. Another participant was abandoned by her incompetent father, grew up in an orphanage self-torturing herself. She was living a passive life in Korea with her married family. With her husband controlling the finances, discriminating her as a foreigner and being excluded from family decision-making, she accepted this circumstance passively.

In Chapter V,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counseling for immigrant women of international marriage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ir child rearing.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multicultural counseling was needed to understand the problems in detail, such as cultural adaptation as a parent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n language acquisition, economic difficulties, childcare and children's education, and lack of social connection and support network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hat multicultural counseling should be accepted as being natural, without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help to positively develop bicultural identities, and instill a tolerant attitude of respect for each other's cultures. Above all,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several follow-up counseling should be continued even after the end of multicultural counseling to

implement specific action plans for problem solving.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more agencies providing multicultural counseling.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marital conflicts intensify due to cultural differences caused the different background of one's own growth process and the culture of the spouse and learning to manage values differences in a very short time can lead to difficulties in the cultural adaptation process. There are spouses who acknowledge cultural diversity, view mutual culture positively, show respect for each other's opinions and are capable of sincere conversation. but exclude their immigrant spouse from family decision-making due to their limited Korean language skills, not giving them equal rights, force one-sided sacrifice and do not give them the necessary authority as a family member.

This study focuses on the meaning of mutual cultural communication by looking at and interpreting the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 of immigrant women of international marriage from their point of view.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s a way to overcome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onflicts and difficultie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participants into members Korean society and to show the value of counseling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minoritie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not limited to immigrant women of international marriage, it should expanded to the qualitative research by examining counselors who are conducting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members of Korean societ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life for the underprivileged.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follow-up research in terms of understanding human beings and helping counselors to practical intervention.

Key words: immigrant women of international marriage, cultural adaptation, multicultural counseling, mutual cultural education, narrative analysis

<부록 1>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나타난 다문화상담의 의미 탐색
연구기관 및 부서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과
연구자 소속 및 연락처	

연구참여권유

본 연구자는 귀하에게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나타난 다문화상담의 의미 탐색**]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시길 요청합니다. 아래와 같은 설명문은 연구 참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의 목적, 내용, 위험(불편감), 이익, 귀하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이해가 되진 않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문화다양성이 국경을 넘어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한국사회에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과정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면서 다문화상담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언어와 경제적 어려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이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는 있지만 지원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부족과 다문화상담의 학문적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상담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파악하고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분야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다문화상담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연구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사회통합과 이주민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문화상담의 필요성과 현장에서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과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구술면담을 통한 생애사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질적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IRB심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2021년 12월까지 연구종료 시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7명의 연구참여자와 심층면담을 계획하고, 1회에 약 50-6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면담의 횟수는 3-5회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리하기 위하여 면담내용을 녹취할 예정이며 동의해 주신다면 녹취된 내용을 전사한 후 녹취파일과 함께 귀하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검토 및 수정 절차를 갖겠습니다.

3. 이익 및 위험 가능성: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경우 특별히 예상되는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과 공간적 할애를 통한 불편함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면담을 진행하는 시간과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활동범위 내에 있는 상담실을 이용할 예정이며,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담 때마다 (1만원 문화상품권 3장)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4. 연구참여와 중지:

본 연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 참여 진행단계에서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 또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중단 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입회하에 그 즉시 폐기합니다.

5. 개인 정보 및 비밀 보장:

본 연구에서는 귀하의 면담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등이 수집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신원이 나타나는 기록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합니다. 또한 연구결과가 출판된 이후에도 귀하의 신상정보는 비밀 유지되며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녹취된 면담자료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인간대상 연구기록 및 보관 등)에 따라 연구종료 시점부터 3년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6. 연구 관련 문의:

본 연구에 대한 문의는 연구참여자의 권익에 관한 내용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32-860-7154 / 이메일 : irbedu@inha.ac.kr) 서명된 참여 동의서 1부는 연구자가 보관하고 1부는 연구참여자가 수령합니다.

본인은 위 동의서를 자세히 읽었고 그 내용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연구에 대한 목적과 의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참여자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자 성명		서명		서명일	

< 부록 3> 반 구조화 질문내용

범주	세부 내용
개인적특성 및 성장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에서의 가족관계는? - 모국에서의 친구관계는? - 모국에서의 사회생활 경험은? - 모국에서의 경제적 상황은?
결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한국 남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의 남편과 결혼생활 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현재의 남편과 결혼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자녀양육과 관계에서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자녀양육과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회적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경제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생활에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직장생활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 경제적으로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문화정착화와 한국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만족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가장 만족했던 문화생활 및 취미가 무엇입니까? - 가장 힘들었던 문화생활 및 취미가 무엇입니까? - 한국생활에서 가장 만족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